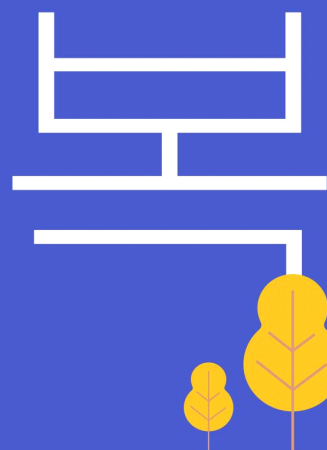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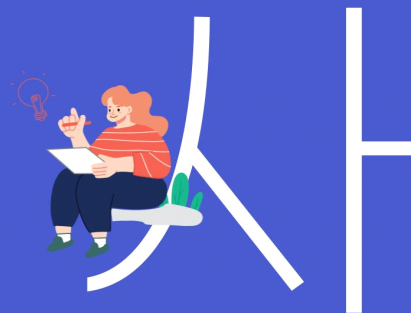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022-03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조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이 보고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재원과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임(연구보고서 2022-03).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제언이나 의견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힘.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전체총괄: 정상수(전략기획실장)

운영총괄: 김화자(전략기획실 기획조정팀 팀장)

연구책임: 강주연(전략기획실 기획조정팀 팀원)

연구자문: 이강주(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관한 변화 추이, 재단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견인하기 위한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서비스 정책적 방향과 실천적 과업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과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자료를 수렴 또는 합병하여 해석하는 수렴적 병렬 혼합 방법(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을 수행함.

표 1. 연구 방법

혼합 연구 방법	양적	1) 조사대상: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총 1,434명 2) 조사기간: 2022년 6월 28일 ~ 2022년 7월 20일 3) 조사방법: 미백서베이 조사를 활용 4) 조사내용: 활동/참여, 보호/복지, SDQ-kr, 배경변인 등 5) 분석방법: 기술통계 및 교차검증, 다중응답, t-test, ANOVA 6) 분석 및 시각화 도구: SPSS Statistics 23, Excel 2016
	질적	1) 조사대상: 청소년 13명, 지도자 13명(총 26명) 2) 조사기간: 2022년 5월 12일 ~ 2022년 6월 4일 3) 조사방법: 1:1 대면 인터뷰 4) 조사내용: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 기대감, 청소년 서비스 관련,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스트레스 경험 등 5) 분석방법: 단어빈도분석, 의미연결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질적분석 6) 분석 및 시각화 도구: python 3.8.3, Gephi 0.9

- 상기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를 통해 행복도,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여가, 아르바이트, 재단 인식 등 문항에 대하여 실태를 확인함.
-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에서는 SDQ-Kr (한국어판 청소년 강점, 난점 검사)를 토대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을 스크리닝하고 집단별 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등의 차이를 살펴봄.
-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서는 청소년, 지도자 인터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고 행복한 삶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3. 연구결과

1)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

-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연도별 변화 추이 확인을 통해 정리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2.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도별 추이 분석 주요 결과와 시사점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행복지수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지수(0.67점)는 2020년 (0.73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상 수준임.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행복에 관하여 취약함.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에서 경험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행복과 연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요구됨.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	·2020년 대비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낮을수록 미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낮게 보고됨. ·2020년, 2022년 모두 재단 제공 서비스를 미경험한 집단 보다 경험한 집단이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음.	·청소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여건에 따라 미래기대에 대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함. ·청소년들이 삶의 조건에 따라 학습, 여가 등의 격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존재해야 함.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의 점수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임. ·2020년 대비 학교생활만족도와 참여기회충분도는 증가했지만 여타 다른 영역은 감소함. ·성남시 청소년은 2020년, 2022년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타영역 대비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함(모든 학교급).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2020년 대비 타 영역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임. ·상담심리치료 요구도도 증가함.	·2022년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친구관계 스트레스 또한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또한 증가하여 상담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예측됨.
여가생활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생활(시간, 장소, 프로그램)충분도는 보통 수준 이상임. ·2020년 대비 여가장소,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는 증가했지만 여가시간은 감소함.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의 경우 2022년에 들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중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타 집에 비해 높음.	·여가장소,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증가는 거리두기 완화 등의 상황이 반영되고, 여가시간의 감소는 전면등교 등 물리적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유추됨. ·사회 자본 측면으로 운영되는 여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함.
참여의식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는 보통 수준 이상임. ·투표 가능 인지도와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 또한 중상 수준임. ·2020년 대비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는 감소했고,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와 투표 의지는 증가함.	·투표 가능 나이 인지와 투표 의지가 증가한 부분은 고무적이나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에 관심도가 감소한 부분은 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참여교육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결과임.
아르바이트	·2022년 기준 성남시 청소년은 10명 중 1.4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됨.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감소 추세이나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는 증가함.	·근로 시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안전문제, 근로권익 보호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스마트폰 사용실태	·2020년 대비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한 집단의 호전적인 변화가 두드러짐. ·그러나 2022년 현재에도 성남시 청소년의 10명 중 2.8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10명 중 1.3명은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10명 중 2.1명 정도는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면등교의 시행, 일상 회복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행태의 호전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유추됨. ·스마트폰 사용에서 청소년을 타자화하여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 및 습관 개선 등 역량강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온라인활동 실태	·성남시 청소년은 온라인 속 커뮤니케이션/소통, 자료 및 정보탐색, 여가활동, 교육/학습에 대해 2020년, 2022년 모두 중상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임. ·온라인 부정적 경험 실태의 경우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등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온라인 이용 서비스 비율은 2020년, 2022년 모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2020년 대비 페이스북 이용 비율은 감소, 인스타그램 이용비율은 증가함.	·청소년의 온라인활동에 대해 중독, 규제 등의 대상으로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활동 자체가 청소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시사함. ·온라인활동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을 약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삶의 역량을 배양하고 증진하는데 온라인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형해야함.
체험활동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체험 방식이 주류를 이루지만 하이브리드 형태 비율이 상당 부분 증가함. ·2020년 대비 경험 비율이 증가한 체험활동 영역은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직업체험, 환경, 자기(인성)개발 영역이었으며, 큰 감소 추세를 보인 영역은 봉사였음.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체험활동 경험 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차이가 컸는데, 주관적경제사정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체험활동 경험 없음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2020년 50.7%→2022년 18.2%)했지만,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없음 비율은 2020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음. ·연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자기(인성)개발 영역이었음. ·직업체험과 문화예술은 온/오프라인 방식과 무관하게 꾸준히 선호되는 영역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인성)개발 영역을 선호함.	·제공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온,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했기에 비율이 증가했는지,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함.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체험활동 경험 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가능했던 조건과 어려웠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체험활동에 대해 체감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만족도가 꾸준히 높은 영역과 큰 감소를 보이는 영역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제선정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삶의만족도에 감소하는 것을 대비한 자기(인성)개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연간독서량	·2020년 대비 학교성적이 안좋다고 인식하거나, 가정 경제사정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독서량 증가가 눈에 띈. ·그러나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에 대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연간독서량이 높았음.	·팬데믹 상황은 취약한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문해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어렵게 함. ·취약한 여건의 청소년들의 독서량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타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에 문해력 증진, 독서문화 향유를 돕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매일 등교에 대한 선호도는 2020년 대비 20% 증가함(2020년 34.1%→2022년 55.7%). 전면 등교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원격수업 병행을 선호하는 청소년도 18.9%로 집계됨. ·학교에 꾸준히 나와 가장 좋은 점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43.1%),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24.3%) 순임. ·학교에 꾸준히 나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기본적 규칙준수 어려움(33.6%),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30.7%)순이었고, 규칙준수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등교 꺼려짐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보고율이 높았음.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협동 어려움, 등교꺼려짐,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의 비율이 더 높게 보고됨.	·전면등교 이후에도 원격수업병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여전히 10명 중 1.8명 수준이며 스트레스와 부적응 영역에서도 중, 고등학생의 자퇴율 증가에 따라 학교 밖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 회복, 학습의 영역에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청소년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의 공백, 대면 수업에 대한 적응, 대인관계 등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	·2020년 대비 알고있음의 비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모름의 비율 또한 상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됨(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외).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모름 비율이 가장 많이 관찰된 집단은 초등학교와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임.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급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인지도의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잘모름+모름, 이름만알고있음, 잘알+알에 해당하는 집단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의 여건과 욕구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단에 대해 알고있는 집단은 지속적인 고객으로 모른다고 인식한 집단은 신규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청소년재단 운영 프로그램 경험 비율	·2020년, 2022년 모두 작은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방과후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놀이문화 공간 사용 등 시설의 상시적인 활동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난. ·초, 중, 고등학교 모든 집단이 또래, 개인집단 상담 등의 심리지원 활동, 동아리 활동의 경험은 증가했지만, 축제성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경험 비율은 하락함.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가 높아지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을 시사함.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관심사와 흥미,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 맞춤형된 프로그램을 일상에서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배움과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함.

2)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 SDQ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의 삶을 확인함. 청소년의 SDQ 스크리닝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예측, 지역사회 표본에 사용되는데 이점을 가짐.
- SDQ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

표 3.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주요 결과와 시사점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총난점과 하위척도 기준 SDQ집단	·성남시 청소년은 10명 중 3.3명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경계 및 개입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사회지향행동에서는 10명 중 1.1명, 난점인 과잉행동에서는 10명 중 2.1명, 정서증상에서는 10명 중 3.3명, 품행문제에서는 3.1명, 또래문제에서는 2.1명 정도가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됨. ·성남시 청소년은 내재적으로 걱정, 불행, 낙담, 두려움, 우울, 불안, 분리불안과 더불어 두통, 복통 호소와 같은 증상이 포함된 정서증상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된 집단은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로 특정지어지는 문제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우려가 있음. ·예방적 스크리닝이 필수적이며 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요구사항 기반으로 문제가 발현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함.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성별, 학교급과 SDQ 집단 차이	·강점인 사회지향행동과 난점인 품행문제의 경우 남자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음. 여자의 경우 난점 중 정서증상에서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높았음. ·학교급 기준으로는 난점의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가 경계개입군으로 빈출되는 경향이 높았음. ·그러나 초등학교 학교급의 경우 사회지향행동 영역에서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학교급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취약한 지점에 대해 사전에 선별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난점인 요소들의 문제 발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주관적 가정 경제사정과 SDQ 집단 차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보다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더 높았음.	·경제적인 여건이 풍족하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회계층의 이점을 정서적 지원 차원으로 연결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건강하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행복지수와 재단 서비스 경험과 SDQ 집단 차이	·사회지향행동과 난점의 전영역에서 경계개입군보다 정상군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음.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 비율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6~9개 서비스 경험군 보다 미경험군에 속한 집단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음.	·재단 제공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계개입군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서비스 운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SDQ 집단 차이 (총난점 기준)	·주관적 건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경계개입군이 정상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음. ·경계개입군은 정상군에 비해 가출욕구, 자퇴욕구, 자살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담심리치료 요구도가 정상군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	·경계개입군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영역에서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개입군의 상담심리치료 요구도는 낮기 때문에 이들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SDQ 집단 차이	·경계개입군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정상군에 비해 더 높았음.	·스마트폰 사용영역에서의 경계개입군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함.
코로나19 이후 생활과 SDQ 집단 차이	·정상군, 경계개입군 모두 매일 등교를 가장 선호했음. ·정상군의 경우 기본적 규칙, 등교 꺼려짐 등 이미 익숙해진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불편감을 느낌. ·경계개입군은 교우관계,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등 실질적인 학습격차를 체감함.	·정상군, 경계개입군 모두 삶의 질 저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특히 경계개입군은 또래문제, 학습격차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3)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행복한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함.
- 인터뷰 내용을 6개 주제로 부문화하여 분석하였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키워드와 의미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 관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일상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관계는 친구, 선생님, 엄마 순임. ·청소년의 주요 행위는 공부였으며 활동, 각종 여가 등은 학업과 병행하는 요소임. 활동 참여 경로는 친구, 가족 등의 권유로 시작됨.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학교, 학원임. 일상 속에서 공부에 대한 부족함을 경험하고 주말에 이를 보충함. ·지도자들은 직업인의 관점으로 이야기함. 주된 관계는 청소년, 청년, 선생님, 부모님을 언급함. ·지도자들은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 지원, 성과를 자신의 업무로 묘사함. ·지도자들은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함.	·청소년과 지도자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가 비슷한 부분은 선생님, 부모님으로 보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학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 반면, 지도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함. ·청소년과 지도자의 일상에서 연결되는 단어는 활동이 유일함.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병행되는 요소이고, 지도자들에게는 업(業)이자 보람과 걱정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임.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기대감	·청소년은 미래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묘사하였고, 친구와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언급함. ·청소년에게 학업은 항상 고민하는 요소였고, 추후 미래에 직업을 얻음으로써 안정감을 얻기는 기대함. ·청소년들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모습과 자존감과 여유를 경험하고 싶어함. ·지도자는 현재를 중심으로 인생을 묘사하였고, 가족과 업으로 만나는 청소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시함. ·지도자들은 내 상황을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현재의 개발을 중시하며 사랑, 건강, 만족감, 즐거움 등을 경험하고 싶어함.	·청소년과 지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족을 중요하게 언급함. 지도자는 자신이 만나는 청소년을 주요하게 생각함. ·청소년은 미래의 관점에서 지도자는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양상을 보임. ·청소년과 지도자는 이행의 단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은 자신이 만족하고 안위를 경험하는 소소한 순간(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산책 등) 등을 행복으로 느끼며, 행복에 있어 공부의 성취를 중요시함.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 가족들과 함께함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행복을 느낌. ·행복을 느끼는 공간은 집, 학교, 카페 등이었고, 친구와 가족이 자신에 대해 조언, 도움, 공간을 표현할 때 행복을 느낌. ·지도자는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변 관계에서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라고 인식함.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들이 공부에서 벗어나 재미와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였음.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부의 성취에 대해서 청소년은 교과목 중심이었다면 지도자는 자격증 취득 이상으로 인식함.	·청소년,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도움을 얻을 때 청소년이 행복할 것이라고 인식함. ·그러나 청소년이 혼자 보낼 때도 행복을 느낌. 따라서 개별화된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복과 공부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과 지도자의 생각이 다른 양상을 보임. ·지도자는 청소년에 비해 성취에 대한 인식의 범주가 넓었음(프로그램, 동아리를 통해 자격증 취득). ·청소년의 행복에 있어 공부는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여짐.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	·청소년은 학업의 과정에서 주요과목(수학, 영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음(토픽모델링 비중 88%). 또한, 가정, 학교 등 소속된 환경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짜증, 걱정, 상처 등을 경험함.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인식함.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어려울 때,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에 관해 정보를 얻지 못할 때,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예측함.	·주변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과 관련하여서 청소년과 지도자가 일치함. ·학업에 관하여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지도자는 스트레스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영역에 대해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 호소하는 스트레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 질수도 있음을 시사함.
--------------------	--	--

구분	주요 조사결과	시사점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	·청소년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학업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함.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거나,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학업과 청소년 활동을 병행하며 기분과 마음을 전환하기도 함. ·지도자들은 학업을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진로, 직업, 체육 등의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스트레스 극복방안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학업의 병행, 학업의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나, 지도자는 청소년의 삶에서 학업의 분리를 강조함. ·청소년과 학업은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 보여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청소년 활동과 학업의 긍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는 환경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관점	·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 학교외에도 친구와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함.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곳으로 인지함. ·청소년은 청소년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재미도 느끼지만 고민도 경험하고 있었음.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경험에 있어서는 주변인(친구, 가족,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컸음. 처음엔 권유 형태로 이용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며 만나는 좋은 어른(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함.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 회의, 상담, 동아리, 체험, 만들기 등을 경험함. ·지도자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대하여 아이, 청소년, 청년을 만나고 있었음. 지도자들은 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미, 관심, 의미를 내포함 경험을 느끼기를 기대함. ·지도자들은 운영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음. 청소년이 시간과 의지가 있는지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심도깊은 고려를 하고 있음.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상황에서 학업과 청소년활동이 중첩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며, 청소년 모집에 어려운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재미를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전문성을 배양하고 도전, 노력, 열정의 자세를 가짐.	·청소년들이 일상 속 존재하는 공간 속 학교, 학원 외에 학교 밖에서 친구와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점은 중요함. 이 부분은 지도자들의 진정한 고민들이 현재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재미도 있지만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고민을 느끼고 있기에 재미는 강화하고 학업의 병행에 있어 부담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학업과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주가 되고 청소년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함.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참여 동기가 주변인의 권유가 크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설계 및 운영, 평가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운 주변인들에게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함.

4. 결론 및 제언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청소년의 생활 습관을 총체적으로	·청소년(또는 보호자)들이 간편한 접근을 통해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한 관리 체계가 필요함.
코칭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습관형성 디지털플랫폼 등의 이점과 현장 전문가의 성취 보상 및 독려 관리 등을 접목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관리의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사회 자본 측면의	·학교 안팎에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적극 발굴
여가, 문화 프로그램	·하여 재단 내 양질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 제공으로	·사회 자본 측면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제공에 이바지하며 경험 격차 등
경험 격차 최소화	·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청소년과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를 보임.
	·청소년들은 학업(입시)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지도자들은 진로 체험(경험) 중심으로 미래를 생각함.
교과과목과 청소년	·청소년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도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활동의 연계성 강화	·숲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화가 필요함.
	·추후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의 연계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재미는 강화하고 교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을
	·연계하여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진로에 관한 관점의 간극을 줄히길 기대함.
	·SDQ 분석결과 성남시 청소년 10명 중 3.3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경계 및 개
경계개입군	·입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성남시 청소년들은 특히 '정서증상' 문제에 취약했음.
청소년의 심리적	·초등학교 학교급의 경우 사회지향행동에서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기
회복 안정을 위한	·때문에 관계향상 중심의 솔루션이 필요함.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
다각적인 지원	·의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아 자기 내면의 안
	·정감과 리추얼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극 필요함.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체험활동 영역에서 자기(인성)개발 영역을 선호하는 것과 접목할 수 있겠음.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에서는 교과과정
	·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조함.
교과과정 T/F팀	·재단 내 400여개 프로그램은 교과 및 범교과 주제가 혼재되어 있음. 교과목, 성취
구성의 필요	·기준을 연계한 움직임이 요구됨.
	·따라서 교육과정 기획·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시설에 제공한다
	·면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관계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
청소년시설에서	·만 즐길 수 있는 재화임. 청소년들은 청소년 서비스를 경험하며 관계재의 긍정적인
청소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경험함.
관계재의 순기능	··청소년들은 지도자가 함께하며 사회적 자산과 심리적 자산을 배양하는데 긍정적인 경험
강화	·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
II. 연구 설계	5
1.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혼합 연구 설계 방법	5
2. 설문조사 기반으로 한 양적 분석	5
1) 설문참여 대상	5
2) 조사 절차 및 윤리적 고려	8
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8
4) 분석방법	12
3.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조사	12
1) 인터뷰 대상	12
2) 조사절차 및 윤리적 고려	15
3) 질문지 구성 및 내용	15
4) 분석방법	19
III.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 ..	24
1.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	24
2.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26
3.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30
4.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36
5. 생활실태	44
1) 여가활동	44
2) 참여의식	48
3) 아르바이트 및 노동, 인권교육 경험	55
4) 스마트폰 사용 실태	65
5) 체험활동	74
6) 독서활동	116

7) 온라인활동	123
8) 코로나19와 학교생활	147
9)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159
6. 소결	184

IV.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194

1. SDQ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195
2. SDQ와 행복지수,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	205
3. SDQ 총난점 기준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 비교	208
4. 소결	213

V.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218

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218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18
2) 중심성 분석결과	220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23
2.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226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26
2) 중심성 분석결과	228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31
3.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234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34
2) 중심성 분석결과	236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39
4.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	243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43
2) 중심성 분석결과	245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48
5.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	251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51

2) 중심성 분석결과	253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56
6.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258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258
2) 중심성 분석결과	260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63
7. 소결	267
VI. 결론 및 제언	274
1. 결론	274
1) 청소년의 생활 습관을 총체적으로 코칭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75
2) 사회 자본 측면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 체계적 제공으로 경험 격차 최소화	276
3) 교과과목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성 강화	277
4) 경계개입군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278
2. 제언	279
1) 교과과정 T/F팀 구성의 필요	279
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관계재의 순기능 강화	280
3. 연구의 한계점	281
참고문헌	283
부록	291

표 목 차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3
〈표 2-1〉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응답자	6
〈표 2-2〉 표집 관련 협의	7
〈표 2-3〉 SDQ의 하위 척도 및 세부 구성	9
〈표 2-4〉 청소년 자기보고용 하위척도 및 총 합산 점수 해석지침	10
〈표 2-5〉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11
〈표 2-6〉 인터뷰 대상(청소년)	13
〈표 2-7〉 인터뷰 대상(지도자)	14
〈표 2-8〉 인터뷰 질문지(청소년)	16
〈표 2-9〉 인터뷰 질문지(지도자)	17
〈표 2-10〉 분석을 위한 분석 영역 재구분	19
〈표 2-11〉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구설계 흐름도	23
〈표 3-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25
〈표 3-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28
〈표 3-3〉 연도와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른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28
〈표 3-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1)	33
〈표 3-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2)	34
〈표 3-6〉 연도와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34
〈표 3-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1)	41
〈표 3-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2)	42
〈표 3-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3)	43
〈표 3-1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활동	48
〈표 3-1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참여의식	53
〈표 3-12〉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	54
〈표 3-1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56
〈표 3-1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	58
〈표 3-1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	61
〈표 3-1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노동, 인권교육 경험	64

〈표 3-1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67
〈표 3-1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	69
〈표 3-1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	72
〈표 3-20〉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도	76
〈표 3-2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건강·보건활동 참여도	79
〈표 3-2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도	82
〈표 3-2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교류활동참여도	85
〈표 3-2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모험개척활동 참여도	88
〈표 3-2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91
〈표 3-2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도	95
〈표 3-2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직업체험활동 참여도	99
〈표 3-2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환경보존활동 참여도	103
〈표 3-2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	107
〈표 3-3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체험활동 만족도	110
〈표 3-31〉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113
〈표 3-32〉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115
〈표 3-3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연간독서량	117
〈표 3-3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독서량 충분도	120
〈표 3-3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독서 선호도	122
〈표 3-36〉 연도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	123
〈표 3-3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커뮤니케이션/소통)	125
〈표 3-3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자료 및 정보탐색)	128
〈표 3-3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여가활동)	130
〈표 3-4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교육/학습)	132
〈표 3-4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크리에이터 활동)	134
〈표 3-4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이용 서비스	138
〈표 3-4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142
〈표 3-4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144
〈표 3-4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	146

〈표 3-4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	152
〈표 3-47〉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	155
〈표 3-48〉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	158
〈표 3-4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161
〈표 3-5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	164
〈표 3-5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아탑 중 한곳이라도) 인지도 ..	166
〈표 3-5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인지도	169
〈표 3-5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	172
〈표 3-5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재단 운영시설 활용도	177
〈표 3-5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	182
〈표 4-1〉 총난점, 강점, 난점별 정상군, 경계개입군 구분	194
〈표 4-2〉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성별 교차표	196
〈표 4-3〉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학교급 교차표	198
〈표 4-4〉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거주구 교차표	200
〈표 4-5〉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주관적 학교성적 교차표	201
〈표 4-6〉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교차표	203
〈표 4-7〉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행복지수 비교	205
〈표 4-8〉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재단 제공 서비스 미경험, 경험에 따른 교차표	205
〈표 4-9〉 총난점 기준 정상군, 경계개입군 삶의 만족도 비교	208
〈표 4-10〉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스트레스와 부적응 비교	209
〈표 4-11〉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스마트폰 사용실태 교차표	210
〈표 4-12〉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코로나19 이후 생활 교차표	211
〈표 5-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19

〈표 5-2〉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청소년)	220
〈표 5-3〉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지도자)	221
〈표 5-4〉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24
〈표 5-5〉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26
〈표 5-6〉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청소년)	228
〈표 5-7〉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지도자)	229
〈표 5-8〉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기대감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32
〈표 5-9〉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34
〈표 5-10〉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청소년)	236
〈표 5-11〉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지도자)	237
〈표 5-12〉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행복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41
〈표 5-13〉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44
〈표 5-14〉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청소년)	245
〈표 5-15〉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지도자)	246
〈표 5-16〉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상황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49
〈표 5-17〉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51
〈표 5-18〉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청소년)	253

〈표 5-19〉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지도자) ..	254
〈표 5-20〉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57
〈표 5-21〉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259
〈표 5-22〉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청소년)	260
〈표 5-23〉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지도자)	261
〈표 5-24〉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265
〈표 5-25〉 영역별 추출된 토픽모델링 결과	272
〈표 5-26〉 청소년과 지도자의 텍스트데이터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	273

그림 목 차

〈그림 5-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워드클라우드	219
〈그림 5-2〉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222
〈그림 5-3〉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25
〈그림 5-4〉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관련 워드클라우드	227
〈그림 5-5〉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	230
〈그림 5-6〉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33
〈그림 5-7〉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 워드클라우드 ...	235
〈그림 5-8〉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238
〈그림 5-9〉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42
〈그림 5-10〉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워드클라우드	244
〈그림 5-11〉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247
〈그림 5-12〉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50
〈그림 5-13〉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워드클라우드	252
〈그림 5-14〉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255
〈그림 5-15〉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57
〈그림 5-16〉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워드클라우드	259
〈그림 5-17〉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262
〈그림 5-18〉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26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행복’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행복은 보이지도 않고 또 때때로 당사자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Vaillant, 1995/2013). 인간의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며 주관성과 추상성에 기반한다(고도현, 김도영, 2021). ‘행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로 갈수록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사회과학, 정책의 영역에서 이러한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물질적 안녕과 효용(utility)을 최상의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의 경제발전 논리에 관한 회의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되어진다(여유진, 김미곤, 2018).
-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근래에 올수록 사회정책과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책 대상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복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 주목할 수 있으며 현 사회의 위치와 정책 수립 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유용하다(허종호, 2021; 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간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국내 총생산)와 건강기대수명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사회적 지지, 자율성, 관용과

포용성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중위권 내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고승화, 2022; Helliwell, Huang, Wang, & Norton, 2021).

- 한편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 또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매년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후 10여년간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변화의 폭은 더욱더 커져 ‘관계적 가치’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꼽은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10% 이상 줄어든 반면,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학생은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정환재단, 2021a; 2021b).
-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은 삶의 질이나 만족감, 안녕감 등과 유사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인지하는 본인 주변의 상황에 대한 평가이다(서재욱, 정운태, 2014). 대체로 주관적 행복도와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과 관련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윤정, 2018).
- 한편, 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단위 혹은 시,도 단위의 추이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성남시만을 한정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이에,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2~3년 주기로 성남시 청소년의 삶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2018년부터는 주관적 행복도와 행복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반영한 재단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현하며 이를 체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러나 매년 그 문항이 일관적이지 않아 추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올해 2022년 조사에서는 2020년의 문항을 대다수 일치시켜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삶에 관한 변화 추이, 재단 이용 실태 등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강점, 난점(SDQ-kr) 등의 분석과 질적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서비스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20년, 2022년 행복실태조사 데이터와 강점, 난점(SDQ-Kr), 대면 등교 이후 생활 등 2022년 새롭게 조사된 문항을 기반으로 성남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연구를 위해 2020년 행복실태조사 데이터, 2022년 행복실태조사 데이터를 병합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지도자 13명, 청소년 13명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추출했다.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	2020년, 2022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여가, 아르바이트, 재단 인식 등 문항에 대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기술통계 및 유형 분석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2022년에 새롭게 조사된 청소년 SDQ-Kr(한국어판 청소년 강점, 난점 검사)을 토대로 인구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 등의 차이를 확인함.	기술통계 및 유형 분석

연구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청소년 13명, 지도자 13명의 인터뷰 데이터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고 행복한 삶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텍스트 마이닝 및 질적 분석

1.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혼합 연구 방법 설계

- 혼합 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 및 통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과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자료를 수렴 또는 합병하여 해석하는 수렴적 병렬 혼합 방법(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을 수행한다. 혼합 방법은 통계적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Creswell, 2014/2017).
- 기 진행되었던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에 기반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스트레스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적인 접근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들의 행복과 스트레스,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변화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양적 분석

1) 설문참여 대상

-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대상 또한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와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급 및 학년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선정하였다.

- 표집을 위해 성남시 구별, 동별로 나눈 뒤, 학령인구 증가 지역, 학생 수, 모집단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 참여 대상 학교(33개교)를 선정하였다. 당초 1학기 시작과 동시에 설문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코로나19 신종 변이(오미크론)가 대대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계가 있어 조사 시기가 1학기 말로 조정되었다. 이에 2022년 5월 기준 모집단의 인원수를 다시 파악하였고 모집단 인구는 23,110명으로 확인되었다.
- 설문의 과정에서 당초 설문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33개교)의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여 구별, 동별, 모집단 비율 등에 적합한 학교를 추가로 재선정하였고 총 49개교가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고 1,43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설문응답자의 비율은 남자 671명(46.8%), 여자 763명(53.2%)으로 모집단과 대비하여 남자가 적게 표집되었고, 여자가 과표집 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23명(36.5%), 중학생 476명(33.2%), 고등학생 435명(30.3%)으로 초등학생이 모집단 보다 과표집 되었고, 고등학생은 적게 표집되었다. 중학생은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거주구별은 수정구 279명(19.5%), 중원구 356명(24.8%), 분당구 799명(55.7%)이었으며, 수정구, 중원구가 모집단 보다 과표집 되었으며 분당구는 적게 표집되었다.

〈표 2-1〉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응답자

구분	설문 응답자		모집단(초5, 중2, 고2) (2022.05.기준) ¹⁾	
	명	비율	명	비율
남자	671	46.8%	11,927	51.6%
여자	763	53.2%	11,183	48.4%
계	1,434	100.0%	23,110	100.0%
초	523	36.5%	7,585	32.8%
중	476	33.2%	7,777	33.7%
고	435	30.3%	7,748	33.5%
계	1,434	100.0%	23,110	100.0%

구분	설문 응답자		모집단(초5, 중2, 고2) (2022.05.기준) ¹⁾	
	명	비율	명	비율
수정구	279	19.5%	3,938	17.0%
중원구	356	24.8%	3,962	17.1%
분당구	799	55.7%	15,210	65.8%
계	1,434	100.0%	23,110	100.0%

□ 설문 참여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외부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8차에 거쳐 표집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고 재단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자가 설문 참여 대상 학교에 설문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였다.

□ 이후 공문, e-mail을 통해 각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에게 설문조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해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설문조사 url 주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 표집 관련 협의

구분	시기	협의 형식	협의 인원	
1차	2022.02.24.	대면회의	내부	현장 지도자 3명
			외부	OO초등학교 교감 1명
2차	2022.06.27.	e-mail, 유선	내부	현장 지도자 10명
			외부	OO고등학교 부장교사 1명 OO고등학교 담임교사 1명
3차	2022.06.28.	e-mail, 유선	외부	OO고등학교 부장교사 1명
4차	2022.07.01.	e-mail, 유선	외부	OO중학교 상담교사 1명
5차	2022.07.04.	e-mail, 유선	내부	현장 지도자 2명
6차	2022.07.05.	e-mail, 유선	외부	OO초등학교 부장교사 1명
				OO중학교 담임교사 1명

1) 학교알리미(2021). 지역별 공시정보.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a05_s0.do.

구분	시기	협의 형식	협의 인원
7차	2022.07.08.	e-mail, 유선	외부 OO중학교 담임교사 1명 OO고등학교 담임교사 1명
8차	2022.07.14	e-mail, 유선	외부 OO중학교 부장교사 1명

2) 조사 절차 및 윤리적 고려

- 양적 조사를 위해 전술한 과정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를 통하여 설문에 관한 설명서와 협조 공문을 전송하였다. 조사는 쿤텍 주식회사의 미백서베이(<https://surveyapp.meback.ai/>) 조사툴을 활용해 진행되었고, 조사 시작 전 본 조사에 관한 소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했다.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 조사 데이터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안내하였으며, 개인 정보보호와 비밀보장에 관련한 부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발적 참여 동의를 얻은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고동완 외(2020)는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5번의 실태조사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이 그동안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시계열적으로 추이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의 문항을 기반으로 유사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검증하여 주요 문항을 선별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행복도의 변화와 추세, 분석결과의 유의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동완 외(2020)가 제시한 문항(〈표2-7〉 참조)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문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되고 등교 중지가 일어났던 시점인 2020년 실태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22년 코로나 이후의 학습과 생활에 관하여 묻는 문항(실천교사교육모임, 2022)을 새롭게 배치했다.
- 더불어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평가를 위한 도구로 실용적인 이점이 있는(Lundh, Wångby-Lundh, & Bjärehed, 2008) 강점·난점 설문지(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Kr)를 활용하였다. Goodman(1997)이 제시하고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2003)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강점·난점 설문지는 총 25개 문항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며, 각 문항을 합산하여 정상군 및 경계선, 개입필요 집단으로 해석한다.
- 사회지향행동 문항은 타인을 돕고, 공유하고 돌보는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난점은 4개의 하위 유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과잉행동은 가만히 있기 어렵거나 충동적이고 산만한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정서증상의 경우 내재적으로 걱정, 불행, 낙담, 두려움, 우울, 불안, 분리불안과 더불어 두통, 복통 호소와 같은 증상을 포함하기도 한다.品行문제의 경우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가장 일반적인 외현화 문제인 불순종, 또래 싸움, 괴롭힘, 거짓말, 도벽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또래 문제의 경우 또래에게 거부되는 경험을 의미하며 소외, 따돌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강슬기, 2022).

〈표 2-3〉 SDQ의 하위 척도 및 세부 구성

5개 하위 척도명		문항구성	점수 범위
강점	사회지향행동	1, 4, 9, 17, 20	0-10점
	과잉행동	2, 10, 15, 21*, 25*	0-10점
난점	정서증상	3, 8, 13, 16, 24	0-10점
	品行문제	5, 7*, 12, 18, 22	0-10점
	또래문제	6, 11*, 14*, 19, 23	0-10점

* 역점수 문항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기보고용 총 합산 점수 해석지침에 근거하여 정상군, 경계선, 개입필요군으로 구분한 뒤, 정상군, 경계개입군(경계선군+개입필요군)으로 그룹을 재구조화한 뒤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표 2-4〉 청소년 자기보고용 하위척도 및 총 합산 점수 해석지침

		정상군	경계개입군	
			경계선	개입필요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5	6	7~10
	품행문제	0~3	4	5~10
	도래문제	0~3	4~5	6~10
총 합산 점수		0~15	16~19	20~40

- SDQ는 임상 및 발달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며, 청소년의 문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정서행동적 강점에도 주목한다는 장점을 가진다(양윤희, 임동선, 2020).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가진 SDQ-Kr을 활용하여 다양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 종합해보면 2020년과 동일하게 조사되는 문항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97개 문항이며, 2022년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추가한 SDQ-Kr과 코로나19 관련 문항은 28개이다. 따라서 총 122개의 문항을 조사에 활용하고자 한다.

〈표 2-5〉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대영역	중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출처
여가	여가시간 활용실태	평일 휴일 여가 활동 시간	1	고동완 외, 2020
	여가시간 관련 요구	성남시 여가활동 장소 충분 정도	1	
		성남시 여가활동 프로그램 충분 정도	1	
활동/ 참여	활동 참여 현황 및 요구	9개 활동(건강-보건, 과학정보 등) 참여 여부	9	
		9개 활동별(건강-보건, 과학정보 등) 만족도	1	
		9개 활동 중(건강-보건, 과학정보 등) 선호도	4	
	활동기관 이용여부 및 요구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1	
		성남시 청소년시설·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15	
		성남시 활동시설에 대한 요구	1	
	청소년 참여	선거 참여의식	3	
보호/ 복지	보호	청소년 안전사고 위험 인식	1	
		스트레스	10	
	복지	가출, 자퇴, 자살 경험	7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	1	
		아르바이트 경험 및 횟수	2	
		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경험 및 횟수	1	
		노동, 인권교육 경험 여부	1	
사회/ 진로/ 생활/ 정서	학교생활	학교생활적응	1	
	생활/태도	자아존중감	4	
		가정생활 만족도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1	
		일상생활 만족도	2	
		행복 상태(현재와 미래)	2	
		삶의 만족도	3	
		스마트폰 사용 실태	3	
		독서 실태	3	
		온라인활동	9	
배경 변인	개인특성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주관적 학교성적, 방과후 보호자 재택 여부 등	8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DQ-Kr)			25	안정숙 외, 2003
강점: 사회지향행동, 난점:과잉행동, 정서증상, 행동문제, 또래문제				
2022년 코로나 이후의 학습과 생활			3	실천교사교육모임, 2022
총 문항 수			122	

4) 분석방법

-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는 총 2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첫째,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는 2020년과 2022년에 동일하게 조사되는 97개 문항을 기반으로 변화점을 살펴본다. 둘째,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변화에서는 2022년에 새롭게 조사된 한국어판 강점, 난점 설문지(SDQ-Kr)을 기반으로 강점인 사회지향행동, 난점인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의 정상군, 경계개입군을 확인하여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행복지수와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을 비교한다. 또한 총난점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부적응 등을 차이점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수집된 데이터는 모집단에 기반하여 가중치를 적용²⁾하였고, 기술 통계 및 교차검증, 다중응답 분석, t-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Statistics 23 버전을 활용하였다.

3.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조사

1) 인터뷰 대상

- 연령별, 청소년사업 참가 유형을 기준으로 인터뷰 대상을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1회기 사업이 아닌 정기적으로 1개월 이상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소통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도자는

2) 2020, 2022 연도별 평균치, 백분율 비교시 2020년 데이터는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의 1,68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함. 2020년 데이터 또한 모집단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로 선정했다.

- 청소년사업 참가의 유형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동아리, 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치기구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사업은 “참여 사업”으로 명명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 온앤온, 꿈드림 등의 사업은 “지원 및 돌봄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 상기 기준에 따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과 지도자는 각각 13명으로 총 26명이다. 청소년의 경우 연령별로 12-13세는 4명, 14-16세는 4명, 17-19세는 5명이었다. 청소년사업 참가 유형별로 보았을 때 지원 및 돌봄 사업 참가자는 7명, 참여 사업은 6명이었으며, 청소년사업 참가 경험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표 2-6〉 인터뷰 대상(청소년)

구분	연령대	지역	청소년사업 참가 유형	주관적 학교성적	주관적 경제형편 인식	참가 경험 기간
청소년1	12-13세	분당구	지원 및 돌봄 사업	좋은편	좋은편	1년
청소년2	12-13세	중원구	지원 및 돌봄 사업	좋은편	안좋은편	2년
청소년3	12-13세	수정구	지원 및 돌봄 사업	좋은편	보통	1년
청소년4	12-13세	분당구	지원 및 돌봄 사업	보통	안좋은편	2년
청소년5	14-16세	수정구	지원 및 돌봄 사업	좋은편	안좋은편	5년
청소년6	14-16세	중원구	지원 및 돌봄 사업	보통	보통	2년
청소년7	14-16세	분당구	참여 사업	보통	좋은편	1년
청소년8	14-16세	분당구	참여 사업	보통	보통	3년
청소년9	17-19세	중원구	지원 및 돌봄 사업	좋은편	안좋은편	1년
청소년10	17-19세	분당구	참여 사업	좋은편	좋은편	3년
청소년11	17-19세	수정구	참여 사업	좋은편	좋은편	4년
청소년12	17-19세	분당구	참여 사업	좋은편	좋은편	3년
청소년13	17-19세	중원구	참여 사업	보통	보통	3년

- 앞서 인터뷰 대상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담당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담당 연령대의 경우 편의상 청소년의 연령대와 동일하게 기술했으나 실제 지도자는 초등학교급 연령대부터 크게는 청년 연령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담당 사업 또한 참여 사업, 지원 및 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도자가 한가지 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담당 연령대, 담당 사업을 구분하였다. 지도자 경력의 경우 재단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왔던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최소 1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지도자의 경력 범위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인터뷰 대상(지도자)

구분	담당 연령대	담당 사업	지도자 경력
지도자1	12-13세	지원 및 돌봄 사업	6년
지도자2	12-13세	지원 및 돌봄 사업	6년
지도자3	12-13세	지원 및 돌봄 사업	1년
지도자4	12-13세	지원 및 돌봄 사업	3년
지도자5	14-16세	지원 및 돌봄 사업	1년
지도자6	14-16세	지원 및 돌봄 사업	4년
지도자7	14-16세	참여 사업	10년
지도자8	14-16세	참여 사업	20년
지도자9	17-19세	지원 및 돌봄 사업	6년
지도자10	17-19세	참여 사업	9년
지도자11	17-19세	참여 사업	20년
지도자12	17-19세	참여 사업	13년
지도자13	17-19세	참여 사업	2년

2) 조사절차 및 윤리적 고려

- 질적 조사를 위해 사전에 지도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 청소년용과 지도자용을 전달하였다.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연구의 목적과 연구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연구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사항 또한 고지했다. 또한, 청소년 인터뷰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인터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용 연구 참여 동의서는 청소년, 보호자, 연구자가 모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하였다. 지도자용 연구참여 동의서 또한 지도자, 연구자가 각각 서명을 한 뒤 1부씩 보관하였다.
- 인터뷰 공간은 지도자의 협조를 얻어 인터뷰 대상인 청소년과 지도자가 가장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동아리실 등을 활용하였다. 개인면담 방식으로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안내한 사항이나 인터뷰 당일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다시 한 번 구하고 녹취를 실시하였다. 이후 녹취 자료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Naver CLOVA Note)를 활용하여 전사하였고 보안유지와 익명성을 위해 각 사례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술한 과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3) 질문지 구성 및 내용

- 인터뷰는 인구학적 특성 관련 질문과 심층 인터뷰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용은 인적사항, 일상생활 경험, 행복경험 및 인식, 스트레스 경험, 해결방안, 마무리 순으로 질문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의 행복 및 스트레스 경험, 청소년의 일상 생활 등을 묻는 질문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고(김강산, 2019; 소수연, 주지선, 조은희, 손영민, 백정원, 2021; 임정아, 진영선, 2017; 장여

옥, 조미영, 강주연, 김나영, 2020; 전기숙, 2016; 조가희, 2021; 조유리, 2011, Kim et al, 2007), 재단 내부 연구회의를 거쳐 문
 향을 확정하였다. 청소년용 인터뷰 질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표 2-8〉 인터뷰 질문지(청소년)

질문 구분	내용	출처
인적사항	1) 간단한 자기소개, 행복과 스트레스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장여옥 외, 2020
일상생활 경험	1) 하루의 일과는 어떤가요? 2) 약 2년간의 장기적 코로나 상황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정상 등교 생활은 어떤가요? 3) 청소년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떤가요? 4)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나요? 5) 가족구성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본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차례로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7) 본인의 삶에 대해 10만 만점 중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나요? 8) 자기 삶에서 청소년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임정아, 진영선, 2017 장여옥 외, 2020
행복경험 및 인식	1)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2) 언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3)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4)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5)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7) 지금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 미래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전기숙, 2016 조가희, 2021 조유리, 2011 Kim et. al, 2007
스트레스 경험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2) 집, 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나요? 3) 스트레스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나요? 4) 스트레스를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김강산, 2019 소수연 외, 2021

질문 구분	내용	출처
해결방안	1)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소수연 외, 2021
	2)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본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험하고 싶은 청소년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장여옥 외, 2020
마무리	1) 행복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지금, 어떤 생각(또는 감정)을 느끼나요?	장여옥 외, 2020

□ 지도자용 또한 청소년용과 비슷한 방향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질문은 인적사항, 청소년 현장 전문가의 삶,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결방안,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2-9〉 인터뷰 질문지(지도자)

질문 구분	내용	출처
인적사항	1) 간단한 자기소개,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장여옥 외, 2020
청소년 현장 전문가의 삶	1) 본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차례로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2) 본인의 삶에 대해 10점 만점 중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나요?	
	3) 어느 때(순간)에 자신이 청소년지도자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4)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가장 보람되고 성취감이 높았던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김강산, 2019
	5)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혹은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여옥 외, 2020
	6) 약 2년간의 장기적 코로나 상황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7) 현재의 시점에서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서 가장 걱정하시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8) 청소년 현장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질문 구분	내용	출처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1) 성남시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제 되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성남시 청소년이 언제, 누구,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나요? 3)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행복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가족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정아, 진영선, 2017 장여옥 외, 2020
청소년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1)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시면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적이 있나요? 2)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도움을 청소년이 요청했던 적이 있나요?	김강산, 2019
해결방안	1) 성남시 청소년들이 가장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청소년서비스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성남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 되어야 할 청소년서비스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남시에서 활용가능한 사회적 자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수연 외, 2021 장여옥 외, 2020
마무리	1)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지금,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또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2) 면담을 마치시면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없으신가요?	장여옥 외, 2020

4) 분석방법

-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텍스트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 가능한 문서 단위로 만들기 위해 재구분 과정을 거쳐 결합하였다. 상술한 구분은 인터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구분한 것이므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한 재구분이 요구된다. 재구분 과정은 연구회의 등을 통해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성남시 청소년의 일상,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기대감, 청소년서비스 경험의 의미, 성남시 청소년이 경험하는 행복, 스트레스 경험, 스트레스 극복 경험 순으로 구분되었다.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자의 삶,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기대감, 청소년지도자가 경험한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지도자가 경험한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 순이었다.
- 각 6개 영역은 서로 매칭되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어떤 단어를 주로 언급하는지 텍스트 간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10〉 분석을 위한 분석 영역 재구분

청소년		지도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성남시 청소년의 일상	1) 하루의 일과는 어떤가요? 2) 약 2년간의 장기적 코로나 상황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정상 등교 생활은 어떤가요? 3) 청소년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떤가요? 4)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나요? 가족구성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청소년 지도자의 삶	1) 어느 때(순간)에 자신이 청소년지도자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2)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가장 보람되고 성취감이 높았던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3)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혹은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지도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성남시 청소년이 말하는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 기대감	1) 본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차례로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2) 본인의 삶에 대해 10점 만점 중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나요? 3) 미래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청소년 지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 기대감	1) 본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차례로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2) 본인의 삶에 대해 10점 만점 중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나요?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서비스 경험의 의미	1) 자기 삶에서 청소년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2) 본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험하고 싶은 청소년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청소년 지도자가 바라보는 청소년 서비스	1) 성남시 청소년들이 가장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청소년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현재의 시점에서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서 가장 걱정하시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약 2년간의 장기적 코로나 상황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4) 청소년 현장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성남시 청소년이 경험하는 행복	1)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2) 언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3)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4)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5)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7) 지금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지도자가 경험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1) 성남시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성남시 청소년이 언제, 누구,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나요? 3)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행복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지도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5)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가족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이 경험한 스트레스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2) 집, 학교, 학원, 청소년 기관 등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나요?	청소년 지도자가 경험한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1)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적이 있나요? 2)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나요?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 경험	1) 스트레스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나요? 2) 스트레스를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3)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4)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지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	1) 성남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성남시 청소년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되어야 할 청소년서비스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지금,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또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 질적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수기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활용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담보할 수 있다(함승경, 최지명, 김영옥, 2019). 질적 인터뷰 데이터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방대하고 폭넓은 자료 분석이 용이해지고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분석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김민선, 손병덕,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다. 이에 대한 이후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터뷰 상에서 실제 언급한 내용을 주요 결과와 연결

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각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python 3.8.3버전이며, 자연어(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연구의 주요 기법에 근거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다. 명사, 형용사 등을 추출할 수 있도록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조사, 품사 등을 불용어로 등록하여 제거하였다.
- 상술한 전처리와 정제 과정을 거친 이후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 빈도 분석(Term Frequency)을 실시하고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영역에서 청소년과 지도자가 주요하게 언급하는 단어들을 파악하였다. 이후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중심성(Centrality)을 확인하고 각 단어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문서 속 말뭉치에서 주제들을 확률적으로 추출하는 토픽모델링 기법(Blei, Ng, & Jordan, 2003)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하는 행복한 삶에 관한 잠재된 주제를 도출했다.
- 토픽모델링 기법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 강점을 가지며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기반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단어의 수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문동지, 연다인, 김희웅, 2018). 토픽모델링의 적정 주제의 개수는 복잡성(Perplexity) 또는 응집성(Coherence)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복잡성의 경우 결과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김창훈, 이수정, 김정화, 2022; O'callaghan, Greene, Carthy & Cunningham, 2015)됨에 따라 응집성을 기반으로 적정 주제의 개수를 설정했다. 토픽모델링은 단어 사용의 통계적 규칙성을 기반으로 분석되나,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주제 즉 토픽 자체가 해석되어야 하는 새로운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토픽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도메인 지식 즉 맥락적 지식이 요구된다(강태경, 2022). 토픽 해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회의 등을 통해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설계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혼합한 연구방법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이 경험하는 행복과 사회적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구설계 흐름도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구설계 흐름도

연구
목적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삶에 관한 변화 추이, 재단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혼
합
연
구
방
법

양
적

1) 조사대상: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총 1,434명

2) 조사기간: 2022년 6월 28일 ~ 2022년 7월 20일

3) 조사방법: 미백서베이 조사를 활용

4) 조사내용: 활동/참여, 보호/복지, SDQ-kr, 배경변인 등

5) 분석방법: 기술통계 및 교차검증, 다중응답, t-test, ANOVA

6) 분석 및 시각화 도구: SPSS Statistics 23, Excel 2016

질
적

1) 조사대상: 청소년 13명, 지도자 13명(총 26명)

2) 조사기간: 2022년 5월 12일 ~ 2022년 6월 4일

3) 조사방법: 1:1 대면 인터뷰

4) 조사내용: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 기대감, 청소년 서비스 관련,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스트레스 경험 등

5) 분석방법: 단어빈도분석, 의미연결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질적분석

6) 분석 및 시각화 도구: python 3.8.3, Gephi 0.9

▼

논의 및
결과,
제언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견인하기 위한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서비스 정책적 방향과 실천적 과업 제시

III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도별 변화 추이

- 2020년 전면적 재구조화한 문항을 토대로 2022년에도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지수,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행복감, 주요변인별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부적응 측면에서 학교급별, 성별, 거주구별, 학교성적별, 가정경제사정별로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³⁾

1.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⁴⁾

-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022년 0.67점으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0.73점)에 비해서는 0.06점 감소하였다. 2020년, 2022년 모든 주요변인에서 중상 수준을 보였다.
- 각 주요변인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행복지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자보다 남자가 행복지수가 더 높은 양상도 유지되었다. 학교급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20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2020년과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거주구별로는 2020년에는 분당구 0.74점 > 중원구 0.72점 > 수정구 0.7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모든 거주구가 0.67점으로 나타나 지역별 행복지수의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20년 통계는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분석함. 따라서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통계와 상이함을 밝힘.

4) 고동완 외(2020)에 따르면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 문항 중 자기만족도, 자기장점인정, 주변과의 관계, 주관적건강, 안전감,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가 포함되었고, 스트레스 문항 중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문항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수치를 산정함.

- 한편,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에는 잘사는편 0.77점 > 보통 0.69점 > 부족한편 0.61점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부족한편 보통 0.67점 = 잘사는편 0.67점 > 0.65점으로 확인되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행복지수가 0.04점 올랐다. 보통, 잘사는편으로 인정한 청소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행복지수가 각각 0.02점, 0.1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편이 보통,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점은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 2020년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2020년에는 좋은편 0.78점 > 보통 0.69점 > 안좋은편 0.65점 순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안좋은편 0.69점 > 보통 0.68점 > 좋은편 0.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좋은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0.04점 행복지수가 증가하였으며, 보통은 0.01점, 좋은편은 0.12점 감소하여 좋은편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표 3-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단위: 점, 1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0.73	0.67
성별	남자	0.75	0.67
	여자	0.70	0.66
학교급	초등학교 ^a	0.79	0.75
	중학교 ^b	0.70	0.65
	고등학교 ^c	0.71	0.62
거주구	수정구 ^a	0.71	0.67
	중원구 ^b	0.72	0.67
	분당구 ^c	0.74	0.67
주관적 학교성적	안좋은편 ^a	0.65	0.69
	보통 ^b	0.69	0.68
	좋은편 ^c	0.78	0.66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부족한편 ^a	0.61	0.65
	보통 ^b	0.69	0.67
	잘사는편 ^c	0.77	0.67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행복지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2020년, 2022년 모두 행복지수가 낮았고, 거주구는 2020년에는 집단간 차이가 있었지만, 2022년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 2020년에는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반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인식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남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4.02점에서 2022년 3.99점으로 0.03점 감소하였고,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4.06점, 2022년 3.87점으로 0.19점 감소하여, 현재 주관적 행복감 보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감소폭이 더 컸다.
- 주요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는 현재 주관적 행복감은 2020년 4.13점, 2022년은 4.08점으로 나타났고, 미래 주관적 행복감은 2020년 4.12점, 2022년은 3.88점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현재 주관적 행복감은 2020년, 2022년 모두 3.90점이었으며,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4.00점, 2022년 3.86점으로 나타나 미래 주관적 행복감만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학교급의 경우 2020년에는 현재 주관적 행복감, 미래 주관적 행복감 모두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순이었고, 2022년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 모두 중,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2020년에 비하면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지만, 고등학교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은 모든 학교급이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거주구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에는 분당구 4.03점 > 중원구 4.01점 > 수정구 3.99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중원구 4.01점 > 분당구 3.99점 > 수정구 3.98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감소폭이 뚜렷했고 수정구 또는 중원구로 응답한 집단보다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이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안좋은편과 보통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의 현재 주관적 행복감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고,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현재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은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청소년만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0.11점 증가하였고,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22년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주관적 학교성적이 좋다고 응답할수록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한편,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에 따른 현재,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현재 주관적 행복감은 2020년에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2022년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부족한편, 보통, 잘사는편 모두 2020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미래 주관적 행복감을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하여서도 2020년, 2022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다. 현재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

년에는 거주구별, 주관적 학교성적별로 집단간 차이가 뚜렷했으나, 2022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또는 중원구 집단보다는 분당구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고,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 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는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현재 주관적 행복감				미래 주관적 행복감			
		2020		2022		2020		2022
전체		4.02		3.99		4.06		3.87
성별	남자	4.13	18.156***	4.08	13.055***	4.12	9.730***	3.88
	여자	3.90		3.90		4.00		3.86
학교급	초등학교 ^a	4.24	291.296*** (b<c<a)	4.25	410.391*** (c<b<a)	4.28	355.197*** (b<c<a)	4.17
	중학교 ^b	3.89		3.91		3.91		3.75
	고등학교 ^c	3.96		3.81		4.01		3.69
거주구	수정구 ^a	3.99	4.622* (a<c)	3.98	1.046	3.94	47.036*** (a,b<c)	3.74
	중원구 ^b	4.01		4.01		4.03		3.83
	분당구 ^c	4.03		3.99		4.10		3.92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74	540.340*** (a<b<c)	4.00	2.016	3.66	896.636*** (a<b<c)	3.77
	보통 ^b	3.86		3.97		3.91		3.89
	좋은편 ^c	4.22		4.00		4.30		3.9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65	436.648*** (a<b<c)	3.87	21.544*** (a<b<c)	3.75	434.303*** (a<b<c)	3.66
	보통 ^b	3.85		3.94		3.89		3.83
	잘사는편 ^c	4.19		4.02		4.22		3.90

주: * $p<.05$, ** $p<.01$, *** $p<.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3-3〉 연도와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른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현재 주관적 행복감				미래 주관적 행복감			
		2020	2022		2020	2022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	미경험군 ^a	3.99	3.89		4.01	3.82		
	1~5개							
	서비스	4.03	4.00		4.10	3.85		
	경험군 ^b	12.938***	116.525***		22.512***	117.534***		
		(a,b<c)	(a<b<c)		(a<c,b)	(a,b<c)		
	6~9개							
	서비스	4.11	4.35		4.09	4.30		
	경험군 ^c							

주: * $p<.05$, ** $p<.01$, *** $p<.001$

- 연도와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라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한 결과, 2020년과 2022년 모두 재단 제공 서비스를 미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한 집단이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에는 현재 주관적 행복감에 관하여 6~9개 경험군 4.11점 > 1~5개 서비스 경험군 4.03점 > 미경험군 3.99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2022년 역시 6~9개 서비스 경험군 4.35점 > 1~5개 서비스 경험군 4.00점 > 미경험군 3.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미경험군과 1~5개 서비스 경험군의 현재 주관적 행복감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6~9개 서비스군은 2020년 4.11점에서 2022년 4.35점으로 증가했다.
- 미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1~5개 서비스 경험군 4.10점 > 6~9개 서비스 경험군 4.09점 > 미경험군 4.01점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6~9개 서비스 경험군 4.30점 > 1~5개 서비스 경험군 3.85점 > 미경험군 3.82점으로 나타났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 또한 미경험군과 1~5개 서비스 경험군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6~9개 서비스 경험군의 경우 2020년 4.09점에서 2022년 4.30점으로 0.21점 증가하였다.

3.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와 참여기회충분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은 전 영역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삶의 만족도에 있어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기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만족도 영역은 주변과의관계, 안전감, 가정생활만족도(각각 4.25점)이었으며, 학교생활만족도 4.12점 >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 4.09점 > 참여기회충분도 4.01점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자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타인의 인정, 주변과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참여기회충분도 영역에서는 증가하였고, 다른 문항에서는 감소하였다. 2022년 응답 기준 참여기회충분도를 제외한 여타 삶의 만족도 문항에서 남자의 점수가 여자 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2020년과 같이 2022년에도 남자가 삶의 만족도 전 문항에서 여자보다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 학교급별로는 2022년 기준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삶의 만족도의 전 영역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교급의 응답자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기장점인정, 자기유용성, 타인의 인정, 주변과의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참여기회충분도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였고, 다른 영역은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만족도, 자기유용성, 주변과의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다른 영역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환경문제걱정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 모든 영역이 감소하였다.
- 거주구별로는 2022년 기준 모두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모든 삶

의 만족도 영역에서 분당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거주구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의 경우 자기만족도, 주변과의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참여기회충분도가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타 다른 영역은 감소하였다. 중원구의 경우 자기만족도, 자기유용성, 주변과의관계,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는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으나, 다른 영역은 감소하였다. 분당구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전 영역이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분당구가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지만,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여타 다른 문항에서 모두 감소 추세인 것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 한편,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는 안좋은편, 보통 대비 좋은편의 삶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서 더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면, 2022년에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영역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주관적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모든 삶의 만족도 영역이 2020년 대비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주관적건강,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모든 삶의 만족도 영역이 2020년 대비 증가하였다. 반면, 주관적학교성적이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모든 영역에서 2020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주관적가정경제사정과 삶의 만족도는 2020년, 2022년 모두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대체로 부족한편 보다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연도별로 각 응답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대비 자기장점인정,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증가양상을 보였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에도 안전감,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반면 잘사는 편인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모든 영역에 대해 2020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연도와 재단 제공 경험 개수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미경험군, 1~5개 서비스 경험군 보다 6~9개 서비스 경험군이 삶의 만족도 전 영역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미경험군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020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1~5개 서비스 경험군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와 참여기회충분도를 제외한 모든 삶의 만족도 영역이 2020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6~9개 서비스 경험군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환경문제걱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재단 제공 경험 개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하여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자기만족도, 자기장점인정, 자기유용성, 타인의 인정, 주변과의관계,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도, 안전감, 환경문제걱정,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전 영역에서 미경험군과 1~5개 서비스 경험군에 비해 6~9개 서비스 경험군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각 주요변인별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고, 초등학교 집단보다 중, 고등학교 집단이 삶의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 또는 중원구 응답한 집단보다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대체로 부족한편보다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인식했다. 한편,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학교 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면, 2022년도에는 학교 성적에 대해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영역들이 다수 있었다.

〈표 3-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1)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자기만족도			자기장점인정			자기유용성			타인의인정			주변과의관계			주관적건강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3.88	3.81		3.78	3.65		3.92	3.84		3.78	3.66		4.27	4.25		4.12	3.93								
성별	남자	4.03	22,441	3.92	16,366	3.91	18,668	3.70	6,281	4.01	13,156	3.86	3,416	3.89	16,901	3.65	-1,480	4.31	7,862	4.27	2,990	4.13	.810	3.98	3,848
	여자	3.72	***	3.69	***	3.64	***	3.60	***	3.82	***	3.81	**	3.66	***	3.67	***	4.22	***	4.23	**	4.12	***	3.90	***
학교급	초등학교 ^a	4.10	271,053	4.03	299,253	3.84	56,511	3.88	257,573	3.97	23,927	3.99	113,784	3.78	63,058	3.82	122,525	4.38	152,667	4.42	282,099	4.38	454,281	4.20	391,013
	중학교 ^b	3.72	***	3.78	***	3.67	***	3.58	***	3.85	***	3.76	***	3.69	***	3.57	***	4.14	***	4.20	***	4.01	***	3.79	***
			(b<c<a)		(c<b<a)		(b<c,a)		(c<b<a)		(b,c<a)		(b,c<a)		(b,c<a)		(b,c<a)		(b,c<a)		(c<b<a)		(c<b<a)		(b,c<a)
	고등학교 ^c	3.84		3.62		3.83		3.49		3.93		3.76		3.87		3.59		4.29		4.12		4.01		3.83	
거주구	수정구 ^a	3.72	87,734	3.79		3.57	189,740	3.56	31,251	3.72	164,851	3.66	83,439	3.62	167,064	3.59	23,335	4.21	120,186	4.22	15,361	4.10	7,098	3.86	90,260
	중원구 ^b	3.80	***	3.81	1,758	3.61	***	3.60	***	3.76	***	3.78	***	3.62	***	3.61	***	4.10	***	4.20	***	4.09	**	3.75	***
			(a<b<c)				(a,b<c)		(a,b<c)		(a,b<c)		(a,b<c)		(b,a<c)		(a,b<c)		(b,a<c)		(b,a<c)		(b,c)		(b,a<c)
	분당구 ^c	3.95		3.82		3.88		3.69		4.02		3.90		3.87		3.69		4.33		4.27		4.14		4.01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46	805,793	3.85		3.36	890,257	3.66		3.56	592,121	3.81	8,470	3.41	935,024	3.62	12,792	3.97	604,842	4.27		3.68		3.91	
	보통 ^b	3.70	***	3.81	2,882	3.56	***	3.65	.285	3.75	***	3.89	***	3.56	***	3.62	***	4.15	***	4.25	1,316	4.07	***	4.01	3,593
			(a<b<c)				(a<b<c)				(a<b<c)		(a,c<b)		(a<b<c)		(b,a<c)		(a<b<c)				(a<b<c)		(a<b)
	좋은편 ^c	4.14		3.80		4.06		3.65		4.15		3.83		4.05		3.69		4.45		4.24		4.32		3.92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45		3.80		3.47		3.45		3.50		3.76		3.40		3.55		3.80		3.94		3.75		3.91	
	보통 ^b	3.67	530,079	3.80	.356	3.49	718,773	3.64	18,612	3.73	408,420	3.80	8,305	3.53	726,500	3.67	6,600	4.11	618,635	4.23	79,939	4.01	256,752	3.84	
			(a<b<c)				(a<b<c)		(a<b,c)		(a<b<c)		(a,c)		(a<b<c)		(a<c,b)		(a<b<c)		(a<b,c)		(a<b<c)		(b<c)
	잘사는편 ^c	4.08		3.82		4.02		3.67		4.10		3.86		4.01		3.66		4.44		4.28		4.25		3.98	

주: * $p<.05$, ** $p<.01$, *** $p<.001$, 성별: 독립표본 t-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3-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2)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감				환경문제걱정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4.05		4.12		4.34		4.25		3.63		3.32		3.98		4.01		4.17		4.09		4.35		4.25	
성별	남자	4.14	14.196	4.17	7.147	4.41	14.048	4.32	8.361	3.60	-2.970	3.34	2.589	4.02	6.550	4.00	-2.823	4.24	12.637	4.12	4.453	4.35	4.26	.557	
	여자	3.96	***	4.08	***	4.27	***	4.20	***	3.65	**	3.29	*	3.94	***	4.03	**	4.09	***	4.06	***	4.35	.328	4.25	
학교급	초등학교 ^a	4.25	294.016	4.39	649.714	4.46	124.625	4.36	124.757	3.53	115.749	3.32		4.05	45.156	4.15	141.165	4.33	179.934	4.27	240.495	4.44	4.44	266.593	
	중학교 ^b	3.87	***	4.09	***	4.29	***	4.22	***	3.55	***	3.32	.024	3.91	***	3.98	***	4.07	***	4.08	***	4.28	***	4.18	***
	고등학교 ^c	4.05	(b,c(a)	3.88	(c,b(a)	4.29	(c,b(a)	4.19	(c,b(a)	3.78	(a,b(c)	3.31		3.99	(b,c(a)	3.90	(c,b(a)	4.12	(b,c(a)	3.92	(c,b(a)	4.34	(b,c(a)	4.13	(c,b(a)
거주구	수정구 ^a	4.01	40.567	4.02	47.662	4.26	7.145	4.16	108.076	3.45	91.476	3.33	8.419	3.83	211.098	3.90	43.553	4.09	45.107	4.03	15.915	4.21	133.052	4.15	48.420
	중원구 ^b	3.95	***	4.08	***	4.22	**	4.10	***	3.53	***	3.38	(c,b)	3.81	***	4.00	***	4.10	***	4.15	***	4.25	***	4.19	***
	분당구 ^c	4.09	(b,a(c)	4.16	(a,b(c)	4.40	(b,a(c)	4.33	(b,a(c)	3.70	(a,b(c)	3.29		4.07	(b,a(c)	4.05	(a,b(c)	4.21	(a,b(c)	4.09	(a,c(b)	4.42	(a,b(c)	4.29	(a,b(c)
주관적 학교	안좋은편 ^a	3.58	942.202	4.08	6.376	4.14	338.291	4.29	8.283	3.46	79.966	3.39	9.701	3.67	539.138	4.03		4.00	411.717	4.04	5.593	4.15	494.422	4.32	16.854
	보통 ^b	3.92	***	4.14	**	4.25	***	4.27	***	3.58	***	3.30	***	3.87	***	4.02	1.142	3.99	***	4.11	**	4.19	***	4.23	***
성적	좋은편 ^c	4.32	(a,b(c)	4.13	(a,c,b)	4.47	(a,b(c)	4.24	(c,b(a)	3.71	(a,b(c)	3.30	(c,b(a)	4.17	(a,b(c)	4.01		4.34	(b,a(c)	4.10	(a,c,b)	4.52	(a,b(c)	4.24	(b,c(a)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75		3.87		4.07		4.24		3.50		3.28		3.50		3.94		3.80		4.11		3.64		4.15	
	보통 ^b	3.87	403.146	4.14	29.247	4.20	368.457	4.19	11.138	3.51	102.339	3.40	19.817	3.86	367.224	3.98	10.626	4.04	313.789	4.04	9.908	4.16	1040.570	4.19	23.509
	잘사는편 ^c	4.22	(a,b(c)	4.14	(a,c,b)	4.47	(a,b(c)	4.28		3.73	(a,b(c)	3.29	(a,c(b)	4.12	(a,b(c)	4.03	(a,c)	4.31	(a,b(c)	4.11		4.57	(a,b(c)	4.28	(a,b(c)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독립표본 t-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3-6〉 연도와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자기만족도		자기장점인정		자기유용성		타인의인정		주변과의관계		주관적 건강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	미경험군 ^a	3.90	3.71	3.77	3.62	3.92	3.79	3.78	3.60	4.23	4.22	4.07	3.84
	1~5개												
	서비스	3.85	3.81	3.78	3.62	3.91	3.81	3.78	3.65	4.29	4.23	4.16	3.98
	경험군 ^b	15.041 ***	170.359 ***	.411	58.158 ***	5.840 **	118.960 ***	1.821	52.675 ***	16.042 ***	77.471 ***	25.232 ***	53.071 ***
	6~9개	(b,a<c)	(a<b<c)		(a,b<c)	(b,a<c)	(a,b<c)		(a,b<c)	(a<c,b)	(a,b<c)	(a,c<b)	(a<b<c)
서비스	3.98	4.24	3.80	3.98	3.99	4.24	3.82	3.93	4.29	4.48	4.08	4.07	
개수	경험군 ^c												

구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감		환경문제걱정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 개수	미경험군 ^a	3.94	4.01	4.34	4.22	3.64	3.32	3.96	3.93	4.16	4.01	4.31	4.21
	1~5개												
	서비스	4.13	4.15	4.35	4.24	3.60	3.27	4.00	4.02	4.17	4.10	4.37	4.25
	경험군 ^b	99.119 ***	153.812 ***	3.249 *	75.299 ***	13.793 ***	28.300 ***	7.123 **	77.304 ***	3.295 *	77.927 ***	16.183 ***	31.477 ***
	6~9개	(a<c<b)	(a<b<c)	(c<a,b)	(a,b<c)	(b,a<c)	(b,a<c)	(a<c)	(a,b<c)	(a,b<c)	(a<b<c)	(a<b,c)	(a,b<c)
서비스	4.07	4.46	4.30	4.48	3.73	3.55	4.02	4.25	4.22	4.38	4.40	4.42	
개수	경험군 ^c												

주: * $p<.05$, ** $p<.01$, *** $p<.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4.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 성남시 청소년의 전반적 스트레스는 2020년(2.44점)에 비해 2022년(2.63점)에 0.19점 상승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학업, 외모, 친구관계, 체중, 부모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퇴욕구, 자살욕구, 자살시도, 자해욕구, 자해경험 스트레스 점수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친구관계 스트레스(2020년 2.21점, 2022년 2.52점)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0.31점 상승하여 스트레스 영역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2020년 2.95점, 2022년 3.21점)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0.26점 상승하였고, 외모 스트레스의 경우(2020년 2.23점, 2022년 2.48점) 0.25점 상승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2020년 3.13점, 2022년 3.44점)와 상담심리치료 요구도(2020년 1.60점, 2022년 2.08점) 또한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전반적 스트레스, 학업, 외모, 친구관계, 체중, 부모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퇴욕구, 자살욕구, 자살시도, 자해욕구, 자해경험의 영역에서 2020년 대비 2022년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고, 진로 불확실, 자연재해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점수가 감소하였다.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와 상담심리치료 요구도는 남자, 여자 모두 점수가 증가했다. 2020년과 2022년 모두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학업 3.07점 > 자연재해 2.31점 > 친구관계 2.28점 순이었고, 여자는 학업 3.36점 > 체중 2.81점 > 외모, 친구관계 2.78점 순이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학업에 대해 가장 크게 스트레스로 인식하였다.

□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재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 점수가 모두 증가했다. 2020년에는 학업 2.48점 > 자연재해 2.26점 > 체중 2.12점 순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학업 2.94점 > 체중 2.36점 > 친구관계 2.26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전반적 스트레스와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에는 학업 3.22점 > 진로 불확실 2.74점 > 체중 2.52점 순으로, 2022년에는 학업 3.31점 > 진로 불확실 2.70점 > 외모 2.6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고등학교는 진로 불확실, 자연재해 스트레스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학업 3.11점 > 진로 불확실 2.92점 > 자연재해 2.61점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3.37점 > 진로 불확실 2.86점 > 친구관계 2.72점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 모두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불확실에 대해 초등학교에 비해 더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 상담심리치료 요구도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증가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반적 스트레스, 학업, 외모, 친구관계, 체중, 진로 불확실, 부모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자연재해,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살욕구, 자살시도의 영역에서 초등학교에 비해 중, 고등학교가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거주구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진로 불확실, 부모관계 가정환경, 자연재해 스트레스, 가출경험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였다. 상위 스트레스 영역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의 경우 스트레스 영역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학업 2.80점 > 진로 불확실 2.59점 > 체중 2.44점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학업 3.05점 > 체중 2.77점 > 외모 2.60점 순이었다. 중원구는 2020년에 학업 2.73점 > 자연재해 2.52점 > 체중 2.43점 순이었다면, 2022년에

는 학업 3.06점 > 체중 2.74점 > 외모 2.54점 순이었다. 분당구는 2020년에는 학업 3.05점 > 진로 불확실 2.58점 > 자연재해 2.44점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학업 3.29점 > 친구관계 2.53점 > 진로 불확실 2.49점 순이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모든 거주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수정구, 중원구는 체중스트레스가 분당구는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가 상위권으로 지속적으로 도출되었다. 각 지역별로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 분당구가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모,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가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와 상담심리치료 요구도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22년에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는 학업, 친구관계, 체중, 자살욕구, 자살 시도 영역에 대해 안좋은편, 보통, 좋은편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스트레스 점수가 상승했다. 한편, 안좋은편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 점수가 감소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모, 진로 불확실, 부모관계 가정환경,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퇴욕구, 자해욕구 등이 이에 해당했다. 상위 스트레스 영역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경우 2020년에 학업, 진로 불확실 3.12점 > 자연재해, 자퇴욕구 2.75점 > 친구관계 2.53점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학업 2.16점 > 진로 불확실 2.65점 > 친구관계 2.58점으로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2020년에는 학업 3.17점 > 진로 불확실 2.75점 > 자연재해 2.50점 순이었고, 2022년에는 학업 3.33점 > 체중 2.60점 > 친구관계 2.55점 순이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에 학업 2.76점 > 자연재해 2.32점 > 체중 2.22점이었던, 2022년에는 학업 3.18점 > 체중 2.53점 > 친구관계 2.49점 순이었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성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계 없이 2020년, 2022년 계속 가장 상위 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가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상위권으로 도출되고, 체중 스트레스의 경우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상위권 스트레스 영역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간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좋은편 보다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주관적 학교 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상담심리치료 요구도의 경우 성적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평균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에 따라 스트레스 상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에 학업 3.29점 > 경제적 여건 3.17점 > 진로 불확실 3.13점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학업 3.00점 > 체중 2.84점 > 진로 2.64점 순이었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은 3.06점 > 진로 불확실 2.71점 > 자연재해 2.49점 순이었으며, 2022년은 학업 3.27점 > 친구관계 2.60점 > 체중 2.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에 학업 2.83점 > 자연재해 2.40점 > 진로 불확실 2.36점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학업 3.20점 > 체중 2.51점 > 진로 불확실 2.50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의 경우에도 어떠한 집단에 속하더라도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주제였다. 한편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도의 경우 모든 집단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담심리치료 요구도는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2.0점에서 2022년 1.98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보통 또는 잘사는편의 경우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였다. 한편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스트레스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영역도 있었다. 학업, 외모, 친구관계, 진로 불확실, 부모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자연재해, 가출욕구, 가출경험 등이 이에 해당했다. 집단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20년과 비슷하게 2022년

에도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 대비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주요변인과 스트레스와 부적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인지하는 영역은 2020년, 2022년 모두 학업스트레스였다. 주요변인 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교급이 높을수록, 수정구 또는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주관적 학업성적이 좋은편 보다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의 경우 보통 또는 잘사는편보다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1)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전반적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체중 스트레스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2.44		2.63		2.95		3.21		2.23		2.48		2.21		2.52		2.32		2.54		2.54		2.50		
성별	남자	2.36	-9.638	2.58	-5.953	2.80	-17.519	3.07	-17.249	1.93	-39.599	2.20	-34.287	2.00	-27.101	2.28	-29.953	2.11	-25.383	2.30	-28.011	2.37	-20.758	1.94	-14.586
	여자	2.52	***	2.68	***	3.11	***	3.36	***	2.55	***	2.78	***	2.43	***	2.78	***	2.54	***	2.81	***	2.73	***	2.07	***
학교급	초등학교 ^a	2.09	445.479	2.46	136.429	2.48	697.303	2.94	235.531	1.80	753.545	2.10	509.748	1.84	558.341	2.26	254.335	2.12	178.712	2.36	100.142	1.90	1617.472	1.92	1244.120
	중학교 ^b	2.65	***	2.63	***	3.22	***	3.31	***	2.45	***	2.62	***	2.45	***	2.58	***	2.52	***	2.59	***	2.74	***	2.70	***
	고등학교 ^c	2.55	(a<c(b)	2.80	(a<b(c)	3.11	(a<c(b)	3.37	(a<b(c)	2.40	(a<c(b)	2.71	(a<b(c)	2.32	(a<c(b)	2.72	(a<b(c)	2.31	(a<c(b)	2.68	(a<b(c)	2.92	(a<b(c)	2.86	(a<b(c)
거주구	수정구 ^a	2.45	16.033	2.54	24.388	2.80	126.936	3.05	92.595	2.41	64.276	2.60	33.112	2.28	9.773	2.57	6.763	2.44	49.038	2.77	135.958	2.59	41.892	2.53	
	중원구 ^b	2.35	***	2.56	***	2.73	***	3.06	***	2.29	***	2.54	***	2.22	***	2.47	***	2.43	***	2.74	***	2.38	***	2.50	.913
	분당구 ^c	2.47	(b<a,c)	2.67	(a,b<c)	3.05	(b<a<c)	3.29	(a,b<c)	2.17	(c<b(a)	2.43	(c<b,a)	2.19	(c,b<a)	2.53	(b<a)	2.26	(c<b,a)	2.43	***	2.58	(b<c,a)	2.49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2.78	443.780	2.60		3.12	264.487	3.16	31.504	2.51	447.765	2.44	8.601	2.53	437.439	2.58	9.111	2.46	70.627	2.49	8.098	3.12	929.661	2.65	31.846
	보통 ^b	2.62	***	2.62	1.493	3.17	***	3.33	***	2.45	***	2.54	***	2.40	***	2.55	***	2.39	***	2.60	***	2.75	***	2.51	***
	좋은편 ^c	2.21	(c<b(a)	2.64		2.76	(c<a,b)	3.18	(a,c<b)	2.00	(c<b(a)	2.46	(a,c<b)	1.99	(c<b(a)	2.49	(c<b,a)	2.22	(c<b(a)	2.53	(a,c,b)	2.21	(c<b(a)	2.45	(c<b(a)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2.96		2.56		3.29		3.00		2.91		2.57		2.94		2.55		2.71		2.84		3.13		2.64	
	보통 ^b	2.57	262.811	2.62	2.096	3.06	122.230	3.27	22.280	2.46	588.834	2.50	4.235	2.38	489.720	2.60	17.127	2.48	218.815	2.59	32.735	2.71	339.178	2.49	5.457
	잘사는편 ^c		(c<b(a)	2.64		2.83	(c<b(a)	3.20	(a<c,b)	2.00	(c<b(a)	2.47	(c<a)	2.02	(c<b(a)	2.49	(c<b)	2.16	(c<b(a)	2.51	(c,b<a)	2.36	(c<b(a)	2.50	(b,c<a)

주: * $p<.05$, ** $p<.01$, *** $p<.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3-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2)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자연재해 스트레스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퇴욕구(초등제외)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1.80		2.00		1.92		2.10		2.45		2.26		1.99		2.23		1.31		1.40		2.14		2.27	
성별	남자	1.77	-4.309	1.94	-8.501	1.87	-6.314	2.08	-3.632	2.38	-8.804	2.31	5.512*	1.96	-3.521	2.23	-6.640	1.34	7.162	1.44	6.856*	1.96	-17.158	2.07	-17.401
	여자	1.83	***	2.07	***	1.96	***	2.13	***	2.53	***	2.21	**	2.02	***	2.24		1.27	***	1.35	**	2.34	***	2.47	***
학교급	초등학교 ^a	1.60	200.146	1.68	520.448	1.77	101.747	1.90	222.436	2.26	123.219	2.20	16.938	1.72	263.721	2.08	103.922	1.10	601.433	1.29	288.947		-29.486		-27.819
	중학교 ^b	1.89	***	2.06	***	2.00	***	2.12	***	2.46	***	2.27	***	2.11	***	2.21	***	1.35	***	1.28	***	1.81	***	1.95	***
	고등학교 ^c	1.88	(a(c,b)	2.26	(a(b,c)	1.97	(a(c,b)	2.29	(a(b,c)	2.61	(a(b,c)	2.32	(a(b,c)	2.11	(a(b,c)	2.41	(a(b,c)	1.44	(a(b,c)	1.61	(b,a(c)	2.43		2.58	
거주구	수정구 ^a	1.95	68.963	1.92	13.639	2.16	195.348	2.19	44.215	2.42	6.152	2.34	11.747	1.95		2.20	14.184	1.32	21.727	1.41	3.666	1.95	34.719	2.45	22.503
	중원구 ^b	1.86	***	1.99	***	2.06	***	2.22	***	2.52	**	2.30	***	1.99	2.461	2.14	***	1.38	***	1.36	*	2.12	***	2.23	***
	분당구 ^c	1.74	(c(b,a)	2.03	(a(b,c)	1.81	(c(b,a)	2.05	(c(a,b)	2.44	(a(c,b)	2.23	(c(a)	2.00		2.26	(b(c)	1.28	(c(a,b)	1.40	(b(a)	2.19	(a(b,c)	2.24	(b(a)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2.10	483.837	2.09	26.890	2.13	388.778	2.12	6.667	2.75	164.794	2.30	3.642	2.45	2.38	26.454	1.58	314.844	1.35	6.724	2.75	493.567	2.39	56.609	
	보통 ^b	1.96	***	1.90	***	2.12	***	2.15	**	2.50	***	2.23	*	1.97	386.110	2.21	***	1.34	***	1.41	**	1.95	***	2.07	***
성적	좋은편 ^c	1.60	(c(b,a)	2.04	(b(c,a)	1.72	(c(b,a)	2.08	(c(b)	2.32	(c(b,a)	2.26	(b(a)	1.83	(c(b,a)	2.20	(c,b(a)	1.19	(c(b,a)	1.40	(a(c,b)	1.91	(c,b(a)	2.32	(b(c,a)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부족한편 ^a	2.74	802.422	2.07	140.447	3.17	140.447	2.11	3.305	2.72	43.296	2.23	16.406	2.52	2.40	12.080	1.59	267.598	1.52	21.703	2.35	14.689	2.52	37.358	
	보통 ^b	1.98	***	1.99	1.815	2.15	***	2.11		2.49	***	2.34	***	2.10	***	2.27	***	1.42	***	1.45	***	2.15	***	2.12	***
사정	잘사는편 ^c	1.57	(c(b,a)	2.00		1.62	(c(b,a)	2.10		2.40	(c(b,a)	2.24	(a(c,b)	1.85	(c(b,a)	2.21	(c,b(a)	1.20	(c(b,a)	1.37	(c(b,a)	2.11	(c,b(a)	2.31	(b(c,a)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표 3-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적응(3)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자살욕구		자살시도		자해욕구(초등제외)		자해경험(초등제외)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1.60	1.84	1.22	1.32	1.58	1.71	1.38	1.47	3.13	3.44	1.60	2.08
성별	남자	1.55 -7.248	1.79 -6.108	1.22	1.28 -7.811	1.52 -7.430	1.61 -11.252	1.37	1.43 -4.825	3.06 -8.920	1.52 -12.935	1.95 -17.785
	여자	1.65 ***	1.89 ***	1.21 .654	1.37 ***	1.64 ***	1.82 ***	1.39 -1.469	1.51 ***	3.21 ***	1.69 ***	2.22 ***
학교급	초등학교 ^a	1.47 71.637	1.73 42.168	1.13 94.479	1.22 155.930	-2.173 *	1.67 -4.386	-2.799 **	1.40 -8.588	3.10 15.509	3.48 12.702	1.44 182.761
	중학교 ^b	1.63 ***	1.88 ***	1.27 ***	1.28 ***	1.56	1.36 ***	1.39	1.40 ***	3.20 ***	3.46 ***	1.60 ***
	고등학교 ^c	1.67 (a,b,c)	1.90 (a,b,c)	1.24 (a,b,c)	1.46 (a,b,c)	1.59	1.75	1.39	1.54	3.10 (a,c,b)	3.38 (c,b,a)	1.73 (a,b,c)
거주구	수정구 ^a	1.60	1.96 28.834	1.22 23.583	1.44 41.035	1.61 3.461	1.71 13.549	1.42 3.755	1.49 4.004	3.12 30.163	3.40	1.64 10.296
	중원구 ^b	1.60 .134	1.88 ***	1.29 ***	1.34 ***	1.54 *	1.82 ***	1.35 *	1.51 *	3.00 ***	3.44 2.197	1.55 ***
	분당구 ^c	1.59	1.80 (c,b,a)	1.20 (c,a,b)	1.29 (c,b,a)	1.58 (b,c,a)	1.69 (c,a,b)	1.37 (b,c,a)	1.45	3.18 (b,a,c)	3.45	1.61 (b,c,a)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1.90 209.449	2.01 62.518	1.35 152.173	1.40 27.273	1.87 233.975	1.55 58.492	1.56 254.638	1.55 29.377	3.11 78.083	3.43	1.84 257.391
	보통 ^b	1.60 ***	1.72 ***	1.26 ***	1.27 ***	1.56 ***	1.38 ***	1.43 ***	1.38 ***	2.99 ***	3.41 2.804	1.69 ***
	좋은편 ^c	1.48 (c,b,a)	1.84 (b,c,a)	1.14 (c,b,a)	1.32 (b,c,a)	1.40 (c,b,a)	1.49 (b,c,a)	1.21 (c,b,a)	1.49 (b,c,a)	3.23 (b,a,c)	3.46	1.46 (c,b,a)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2.05 255.996	2.05 17.118	1.44 194.337	1.52 21.442	1.79 137.406	2.16 42.568	1.58 168.006	1.72 23.025	3.04 88.434	3.35 15.048	2.00 130.613
	보통 ^b	1.72 ***	1.86 ***	1.30 ***	1.30 ***	1.70 ***	1.73 ***	1.49 ***	1.40 ***	3.01 ***	3.38 ***	1.66 ***
	잘사는편 ^c	1.46 (c,b,a)	1.82 (c,b,a)	1.14 (c,b,a)	1.32 (b,c,a)	1.45 (c,b,a)	1.68 (c,b,a)	1.26 (c,b,a)	1.48 (b,c,a)	3.24 (b,a,c)	3.47 (b,c,a)	1.51 (c,b,a)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 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5. 생활실태

1) 여가활동

- ☐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시간, 여가장소,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3점 이상으로 중상 수준을 보였다.
- ☐ 먼저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2020년 3.75점, 2022년 3.72점으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해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해 점수를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2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 학교급 기준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시간 충분도가 감소하였고, 중학교 집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2020년, 2022년 모두 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이 여가시간 충분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 거주구별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시간 충분도 점수가 감소하였다. 수정구 또는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여가시간 충분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 또한 유지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시간 충분도를 더 높은 점수로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 한편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결과값

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여가시간 충분도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면, 2020년에는 보통(3.60점)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고, 부족한편(3.78점), 잘사는편(3.77점)의 점수가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장소 충분도의 경우 2020년 3.78점, 2022년 3.83점으로 2020년 대비 점수가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장소 충분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2020년, 2022년 모두 여가장소 충분도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3.95점, 2022년 4.08점으로 응답하여 2020년 대비 여가장소 충분도가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2020년 3.73점에서 2022년 3.72점으로 하락하였다. 고등학교는 2020년, 2022년 모두 3.69점이었다. 집단 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중,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여가장소 충분도에 더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거주구별로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장소 충분도가 모두 상승하였고, 집단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증원구에 비해 분당구 집단이 여가장소 충분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장소 충분도 점수가 상승하였지만,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점수가 하락하였다. 한편, 집단 간 점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여가장소 충분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또는 보통

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장소 충분도가 증가하였지만,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 대비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마지막으로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의 경우 2020년 3.35점, 2022년 3.37점으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여자의 경우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프로그램 충분도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집단 모두 점수가 상승하였지만 고등학교는 감소했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 집단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거주구별로는 중원구와 분당구만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각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는 분당구가 더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점수가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증가한 반면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여가프로그램 충분도에 대해 잘사는편 3.46점 > 보통 3.27점 > 부족한편 2.87점으로 응답한 반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 3.46점 > 잘사는편 3.39점 > 보통 3.32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즉 2020년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여가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반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 주요변인과 여가활동 관련 문항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가시간 충분도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집단이, 분당구보다는 수정구 또는 중원구가, 주관적 학교성적이 좋은편보다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인식한 집단이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기준으로는 2020년과 2022년에 집단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가정경제사정과 관련하여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여가시간 충분도 점수를 높게 응답했다면, 2022년에는 잘사는편(3.86점) > 부족한편(3.80점) > 보통(3.73점)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여가장소 충분도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중,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 분당구 집단이,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여가장소 충분도에 대해 더 높은 점수로 보고하였다.
- 여가프로그램 충분도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중, 고등학교 집단보다 초등학교가, 수정구 또는 중원구보다 분당구가,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여가프로그램 충분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잘

사는편으로 응답할수록 여가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활동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장소 충분도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3.75		3.72			3.78		3.83		3.35		3.37
성별	남자	3.83	10.387	3.81	12.261	3.85	9.140	3.86	4.254	3.41	8.719	3.40	4.232
	여자	3.67	***	3.63	***	3.71	***	3.79	***	3.28	***	3.34	***
학교급	초등학교 ^a	4.05	376.884	3.78	224.618	3.95	117.948	4.08	311.586	3.52	118.358	3.61	350.249
	중학교 ^b	3.65	***	3.88	***	3.73	***	3.72	***	3.31	***	3.40	***
	고등학교 ^c	3.59	(c<b<a)	3.51	(c<a<b)	3.69	(c<b<a)	3.69	(c,b<a)	3.23	(c<b<a)	3.12	(c<b<a)
거주구	수정구 ^a	3.85	46.307	3.81	23.980	3.66	65.259	3.67	80.343	3.28	29.895	3.28	18.491
	중원구 ^b	3.84	***	3.78	***	3.68	***	3.74	***	3.27	***	3.35	***
	분당구 ^c	3.70	(c<b,a)	3.69	(c<b,a)	3.85	(a,b<c)	3.89	(a<b<c)	3.39	(b,a<c)	3.40	(a<b<c)
주관적 학교 성적	인좋은편 ^a	3.60	228.691	3.65	20.134	3.59	189.543	3.80	8.457	3.16	260.573	3.35	16.620
	보통 ^b	3.57	***	3.69	***	3.66	***	3.78	***	3.18	***	3.31	***
	좋은편 ^c	3.91	(b,a<c)	3.76	(b<c)	3.93	(a<b<c)	3.85	(b<c)	3.52	(a,b<c)	3.41	(b,a<c)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30		3.78		3.32		3.80		2.87		3.46	
	보통 ^b	3.67	158.968	3.60	51.221	3.68	192.183	3.73	30.021	3.27	185.178	3.32	10.459
	잘사는편 ^c	3.86	(a<b<c)	3.77	(b<c,a)	3.91	(a<b<c)	3.86	(b<c)	3.46	(a<b<c)	3.39	(b<a)

주: * $p<.05$, ** $p<.01$, *** $p<.001$, 성별·독립표본 t -검증, 학교급·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2) 참여의식

□ 참여의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와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의 경우 2020년 3.24점에서 2022년 3.04점으로 0.20점 감소하였다.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의 경우 2020년 4.30점, 2022년 4.46점으로 0.16점이 상승하였고, 투표 연령 도달시 투표 의지는 2020년 4.14점, 2022년 4.23점으로 0.09점 상승하였다. 즉 사회적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는 감소했으나,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와 투표 연령 도달시 투표 의지는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

- 먼저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의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 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에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면, 2022년에는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20년 대비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가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집단이 더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2022년에 수정구는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가 증가하였지만 중원구, 분당구는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는 분당구 집단이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는 안좋은편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증가했다면 보통,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에는 학교 성적을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일수록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 대비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기준으로는 2020년에 대비 2022년에 부족한편,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가 감소하였고,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로 응답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다른 양

상을 보였는데 보통 3.15점 > 잘사는편 3.01점 > 부족한편 2.8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의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상승하였다.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증가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의 경우 중학교 집단의 점수가 2020년, 2022년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거주구의 인지도 점수가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또는 중원구로 응답한 집단 대비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이 더 인지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안좋은편과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인지도가 상승했지만,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감소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좋은편으로 인식할수록 인지도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좀 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부족한편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편, 보통, 잘사는 편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지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2022년에는 부족한편 4.49점 > 잘사는편 4.48점 > 보통 4.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족한편 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인지

도가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투표 연령 도달시 투표 의지에 관해서는 성별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점수가 증가했다.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투표 의지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투표 연령 도달시 투표 의지에 대해서 중학교는 점수가 증가했지만,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2020년, 2022년 모두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의 점수가 2020년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간 차이는 2020년, 2022년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수정구 또는 중원구로 응답한 집단보다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2년에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2020년도 대비 상승하였지만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는 감소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학교성적에 대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투표 의지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오히려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점수가 증가했지만,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감소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응답할수록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면, 2022년에는 보통 4.28점 > 잘사는편 4.22점 > 부족한편 4.16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족한편과 보통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변인과 참여의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의 경우 2020년에는 여자가, 2022년에는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2022년 모두 중학교 집단보다 고등학교 집단이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거주구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의 관심도가 더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에는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사정이 잘사는 편으로 인식할수록 관심도가 더 높았다면 2022년에는 성적이 안 좋은편 혹은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기도 했다.
-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가,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는 분당구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학교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주관적 경제사정이 좋을수록 인지도가 더 높았다면 2022년에는 학교성적이 안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기도 했고,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낮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는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 분당구로 응답한 집단이 더 점수가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성적이 좋은편으로 응답할수록 투표 의지가 높았지만 2022년에는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의지가 더 높았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할수록 투표 의지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가장 투표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참여의식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초등제외)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초등제외)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초등제외)				
	2020		2022		2020		2022		2020		2022		
	전체		3.24		3.04		4.30		4.46		4.14		4.23
성별	남자	3.21	-3.024	3.18	18.100	4.27	-3.137	4.42	-5.376	4.12	-3.525	4.21	-1.978
	여자	3.27	**	2.88	***	4.32	**	4.49	***	4.17	***	4.25	***
학교급	중학교	3.21	-2.691	2.97	-7.795	4.31	2.253	4.56	17.731	4.16	2.341	4.32	15.525
	고등학교	3.27	**	3.13	***	4.28	*	4.32	***	4.13	*	4.06	***
거주구	수정구 ^a	2.69	204.264	2.92	62.660	4.17	41.226	4.39	44.583	3.99	67.919	4.14	120.100
	중원구 ^b	2.99	***	2.89	***	4.24	***	4.36	***	4.03	***	4.04	***
	분당구 ^c	3.38	(a,b<c)	3.10	(b,a<c)	4.34	(a<b<c)	4.50	(b<a<c)	4.21	(a,b<c)	4.31	(a<b<c)
주관적	안좋은편 ^a	2.85	358.426	3.11	8.949	4.03	310.204	4.48	27.117	3.85	238.003	4.36	52.280
학교	보통 ^b	3.25	***	3.03	***	4.27	***	4.37	***	4.16	***	4.17	***
성적	좋은편 ^c	3.50	(a<b<c)	3.02	(c,b<a)	4.49	(a<b<c)	4.48	(b<c,a)	4.32	(a<b<c)	4.22	(b,c<a)
주관적	부족한편 ^a	3.02		2.82		4.04		4.49		3.76		4.16	
가정	보통 ^b	3.05	194.830	3.15	46.740	4.19	147.714	4.38	23.880	4.08	114.725	4.28	13.025
경제			(a,b<c)		(a<c<b)		(a<b<c)		(b<a,c)		(a<b<c)		(a<b)
사정	잘사는편 ^c	3.42		3.01		4.41		4.48		4.25		4.22	

주: * $p<.05$, ** $p<.01$, *** $p<.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2022년에는 참여의식과 관련하여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하였다. 주요변인에 따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3.42점, 여자는 3.46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학교급 기준으로는 중학교 3.45점, 고등학교 3.46점으로 고등학교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분당구 3.54점 > 중원구 3.34점 > 수정구 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별로 살펴본 결과 좋은편(3.40점)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안좋은편(3.47점) 또는 보통(3.51점)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는 보통 3.49점 > 잘사는편 3.44점 > 부족한편 3.09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살펴본 결과 잘사는편 또는 보통 집단에 비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점수가 낮았다.

〈표 3-12〉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초등제외)	
전체		3.44	
성별	남자	3.42	-1.978*
	여자	3.46	
학교급	중학교	3.45	-.599
	고등학교	3.46	
거주구	수정구 ^a	3.16	123.488*** (a<b<c)
	중원구 ^b	3.34	
	분당구 ^c	3.54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47	14.044*** (c<a,b)
	보통 ^b	3.51	
	좋은편 ^c	3.4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09	25.828*** (a<c,b)
	보통 ^b	3.49	
	잘사는편 ^c	3.44	

주: * $p<.05$, ** $p<.01$, *** $p<.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3) 아르바이트 및 노동, 인권교육 경험

- 연도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있음 8.8%, 2022년은 14.7%로 나타나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도와 아르바이트 경험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변인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비율에 대해 남자는 14.9%, 여자는 14.5%로 집계되어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0.4%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비율이 올라갔다. 2022년 기준 중학교 3.0%, 고등학교 26.4%였으며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연관성이 있었다.
- 거주구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아르바이트 있음 비율이 중원구, 분당구는 증가했고 수정구는 감소했다. 2022년 기준 중원구 21.2% > 분당구 13.8% > 수정구 11.6% 순으로 나타나 중원구의 아르바이트 있음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거주구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또한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이 2020년 대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상승하였다. 2022년 기준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비율은 학교 성적 좋은편 16.0% > 안좋은편 13.7% > 보통 12.6%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은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2020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보통 또는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잘사는편 16.4% > 보통 12.0% > 부족한편 9.1%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학교성적,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모두 이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3-1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2020			2022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전체	8.8	91.2	100.0	14.7	85.3	100.0
	268.862***					
성별	남자	8.5	91.5	100.0	14.9	85.1
	여자	9.2	90.8	100.0	14.5	85.5
학교급	중학교	2.2	97.8	100.0	3.0	97.0
	고등학교	14.6	85.4	100.0	26.4	73.6
거주구	수정구	19.1	80.9	100.0	11.6	88.4
	중원구	17.2	82.8	100.0	21.2	78.8
	분당구	4.0	96.0	100.0	13.8	86.2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9.9	90.1	100.0	13.7	86.3
	보통	9.8	90.2	100.0	12.6	87.4
	좋은편	7.2	92.8	100.0	16.0	84.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27.8	72.2	100.0	9.1	90.9
	보통	11.4	88.6	100.0	12.0	88.0
	잘사는편	4.2	95.8	100.0	16.4	83.9

주: * $p<.05$, ** $p<.01$, *** $p<.001$, 교차분석

□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이 3시간 이하 27.1%였다면 2022년에는 6~10시간 30.7%로 나타나 성남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은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과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연도와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은 연관성이 있었다.

□ 주요변인과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 기준에서 남자는 2020년에 3시간 이하와 11~15시간이 25.8%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2022년에는 11~15시간이 29.7%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여자는 2020년에 3시간 이하가

28.4%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2022년에는 6~10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37.3%이었다.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과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2020년에 3시간 이하가 86.7%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22년에도 역시 3시간 이하가 77.5%가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 6~10시간과 11~15시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과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거주구별로 확인한 결과 2020년의 경우 수정구는 3~5시간(26.7%)을, 중원구는 11~15시간(29.9%)을, 분당구는 3시간 이하(49.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022년의 경우 수정구는 6~10시간(30.5%), 중원구는 6~10시간(34.5%), 분당구는 11~15시간(37.0%)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거주구별로도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구와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의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2020년의 경우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16시간(26.0%)으로 가장 응답을 많이했고, 보통 집단은 3시간 이하(34.0%),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6~10시간(35.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2년의 경우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11~15시간(32.2%),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6~10시간(45.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11~15시간(30.8%)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아르바이트 활동시간을 교차분석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활동 시간

(단위: %)

구분		2020						2022							
		3시간 이하	3~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6시간 이상	합계	3시간 이하	3~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6시간 이상	합계		
전체		27.1	19.1	23.2	20.2	10.3	100.0		12.6	14.7	30.8	28.9	13.0	100.0	
		159.314***													
성별	남자	25.8	15.9	18.1	25.8	14.4	100.0	69.356	15.6	13.1	25.1	29.7	16.5	100.0	73.240
	여자	28.4	22.3	28.3	14.6	6.4	100.0	***	9.2	16.7	37.3	28.0	8.9	100.0	***
학교급	중학교	86.7	9.7	3.6	0.0	0.0	100.0	340.974	77.5	0.0	15.0	7.5	0.0	100.0	724.011
	고등학교	19.4	20.3	25.8	22.8	11.6	100.0	***	7.0	16.0	32.2	30.8	14.1	100.0	***
거주구	수정구	12.2	26.7	25.0	23.6	12.6	100.0		24.8	13.8	30.5	13.8	17.0	100.0	
	중원구	22.7	8.6	26.0	29.9	12.9	100.0	277.642	14.0	17.1	34.5	17.1	17.4	100.0	150.643
	분당구	49.7	22.6	18.0	4.8	4.8	100.0	***	9.4	14.0	29.3	37.0	10.3	100.0	***
주관적 학교	안좋은편	23.4	19.9	16.3	14.4	26.0	100.0		8.5	21.3	19.9	32.2	18.1	100.0	
	보통	34.0	20.4	18.6	21.8	5.1	100.0	241.475	8.0	17.6	45.5	21.8	7.2	100.0	125.617
성적	좋은편	22.2	16.8	35.1	23.7	2.4	100.0	***	15.5%	11.9	28.1	30.8	13.7	100.0	***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28.7	9.0	13.6	44.1	4.6	100.0		0.0	16.0	26.0	34.0	24.0	100.0	
	보통	20.1	27.1	26.9	16.0	9.9	100.0	263.280	15.5	8.3	25.0	32.4	18.8	100.0	53.562

	잘사는편	40.9	10.9	24.1	7.6	16.5	100.0		12.2	16.3	32.4	27.9	11.2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아르바이트 경험 유 응답자만 분석

- 연도에 따른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에 대해 2020년에는 근로계약 미작성 45.9% > 초과근무계약 외 업무지시 14.9%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14.3%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28.8% > 초과근무계약 외 업무지시 27.8% >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21.4%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2020년에 비해 17.1% 감소했지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는 12.9% 증가하였고,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역시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의 경우에도 2020년과 대비하여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41.1%)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2022년에는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28.0%)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4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22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35.2%)이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먼저 중학교의 경우 2020년에 부당해고(45.7%)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30.9%)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50.2%)을, 2022년에는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28.6%)를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41.5%)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45.8%)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중원구의 경우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53.5%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도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5.8%로 가장 높았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에 가장 높게 응답한 부정적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41.7%)이었으며, 2022년에는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가

(30.9%)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65.4%)을 2022년에는 초과근무 계약외 업무지시(42.3%)를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했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에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29.1%), 2022년에 초과근무계약 외 업무지시(42.3%)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 마지막으로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62.4%)을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하였고, 2022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38.1%)을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하고 있었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45.6%)을, 2022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38.1%)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34.1%)을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했으며, 2022년에는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25.5%)를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했다.

〈표 3-1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

(단위: %)

구분	2020						2022						
	임금채불 최저시급 미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	근로계약 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합계	임금채불 최저시급 미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	근로계약 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합계	
전체	14.3	14.9	45.9	11.4	13.5	100.0	19.5	27.8	28.8	2.5	21.4	100.0	
성별	남자	25.0	15.2	41.1	15.0	3.6	100.0	28.0	27.8	20.3	1.6	22.3	100.0
	여자	6.8	14.7	49.2	8.9	20.4	100.0	13.1	27.9	35.2	3.1	20.8	100.0
학교급	중학교	25.0	22.8	6.5	45.7	0.0	100.0	30.9	21.0	36.0	0.0	12.1	100.0
	고등학교	13.1	14.0	50.2	7.7	15.0	100.0	18.2	28.6	27.9	2.8	22.5	100.0
거주구	수정구	20.0	12.2	41.5	9.2	17.1	100.0	6.5	45.8	21.0	6.5	20.2	100.0
	중원구	9.8	18.4	53.5	11.5	6.9	100.0	31.9	18.1	43.5	6.6	0.0	100.0
	분당구	13.8	13.6	41.7	13.4	17.4	100.0	16.5	28.9	23.7	0.0	30.9	100.0
주관적	안좋은편	9.3	6.3	65.4	9.5	9.5	100.0	9.0	42.3	30.2	12.9	5.7	100.0
학교	보통	29.1	24.5	16.1	15.3	15.0	100.0	34.4	40.8	24.8	0.0	0.0	100.0
성적	좋은편	7.8	12.8	55.1	10.0	14.3	100.0	19.1	23.6	29.1	1.2	27.1	100.0
주관적	부족한편	0.0	5.6	62.4	11.5	20.5	100.0	0.0	30.9	38.1	17.2	13.7	100.0
가정	보통	16.4	14.7	45.6	18.6	4.6	100.0	8.2	41.7	50.1	0.0	0.0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21.5	22.0	34.1	0.0	22.4	100.0	22.7	25.3	24.6	2.0	25.5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아르바이트 경험 유 응답자만 분석

- 노동, 인권교육 경험 있음 비율은 2020년 70.1%, 2022년 67.4%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의 경우 노동, 인권교육 경험 있음 비율에 2020년 기준 남자 67.0%, 여자 73.3%로, 2022년에는 남자 62.0%, 여자 73.2%로 집계되었다.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의 교육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있음 비율이 2020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성별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 기준 2020년 65.3%, 2022년 64.7%로 노동, 인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고등학교는 2020년 74.2%, 2022년 70.0%가 노동, 인권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학교급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노동, 인권 경험 있음 비율에 수정구는 2020년 68.7%, 2022년 66.9%, 중원구는 2020년 74.1%, 2022년 57.4%, 분당구는 2020년 69.3%, 2022년 70.1%로 응답하였다. 수정구는 2020년 대비 1.8% 감소하였고, 중원구는 16.4% 감소한 반면, 분당구는 0.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당구의 비율이 수정구 또는 중원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의 경우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노동, 인권교육 경험 있음 비율은 2020년 61.3%, 2022년 73.7%로 2020년

대비 상승하였고,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72.9%, 2022년 72.8%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73.4%, 2022년 63.3%으로 2020년 대비 2022년에 노동, 인권교육 경험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교차분석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노동, 인권교육 경험의 있음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72.7%, 2022년 73.2%로 나타났고,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있음 73.3%, 2022년 75.1%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67.1%, 2022년 64.2로 나타났다. 부족한편과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대비 노동, 인권교육 경험의 비율이 상승했지만,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노동, 인권교육 경험 유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1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노동, 인권교육 경험

(단위: %)

구분	2020			2022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전체	70.1	29.9	100.0	67.4	32.6	100.0
	25.811***					
성별	남자	67.0	33.0	100.0	77.604	209.441
	여자	73.3	26.7	100.0	***	***
학교급	중학교	65.3	34.7	100.0	154.820	46.954
	고등학교	74.2	25.8	100.0	***	***
거주구	수정구	68.7	31.3	100.0	66.9	33.1
	중원구	74.1	25.9	100.0	28.770	146.555
	분당구	69.3	30.7	100.0	***	***

구분		2020				2022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주관적 학교 성적	인종은편	61.3	38.7	100.0	212.290 ***	73.7	26.3	100.0	159.910 ***
	보통	72.9	27.1	100.0		72.8	27.2	100.0	
	좋은편	73.4	26.6	100.0		63.3	36.7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72.7	27.3	100.0	73.176 ***	73.2	26.8	100.0	158.095 ***
	보통	73.3	26.7	100.0		75.1	24.9	100.0	
	잘사는편	67.1	32.9	100.0		64.2	35.8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4) 스마트폰 사용 실태

- 스마트폰 사용 실태의 경우 과의존 정도, 자기조절 정도, 계획 차질 정도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경우 2020년은 그렇지않은편 42.0% > 보통 29.2% > 그런편 28.8% 순, 2022년에는 그렇지않은편 41.7% > 보통 30.0% > 그런편 28.2%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 2022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2020년 26.8%, 2022년 25.5%, 여자는 2020년 31.0%, 2022년 31.1%로 나타나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2022년 비슷하게 응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2020년, 2022년 모두 그런 양상을 보였다. 성별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도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는 초등학교 15.3%, 중학교 35.6%, 고등학교 34.2%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초등학교 20.0%, 중학교 30.5%, 고등학교 34.5%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4.7% 그런편의 비율이 증가했고, 중학교의 경우 5.1%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2020년, 2022년 비율이 유사했다. 학교급별로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의존 정도의 그런편 응답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거주구와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 응답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의 경우 2020년 28.6%, 2022년 29.0%였고, 중원구는 2020년 32.1%, 2022년 25.8%, 분당구는 2020년 27.9%, 2022년 28.7%로 집계되었다. 수정구와 분당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그런편 응답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원구의 경우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중원구 32.1% > 수정구 28.6% > 분당구 27.9%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수정구 29.0% > 분당구 28.7% > 중원구 25.8% 순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 응답을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2020년에는 안좋은편 35.8% > 보통 39.6% > 좋은편 25.8% 순, 2022년에는 안좋은편 31.4% > 보통 28.2% > 좋은편 27.2%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안좋은편과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그런편 응답이 감소하였지만, 좋은편 집단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기조는 2020년, 2022년 모두 유지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른 그런편 응답을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2020년에는 부족한편 45.6% > 보통 31.5% > 잘사는편 25.1% 순으로 보고되었고, 2022년에는 부족한편 29.8% > 잘사는편 28.4% > 보통 27.6% 순으로 집계되었다.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크게 감소(15.8%)했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도 2020년 대비 3.9% 감소하였다. 그러나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대비 3.3% 증가하여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 2022년 모두 보통 또는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런편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3-1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42.0	29.2	28.8	100.0		41.7	30.0	28.2	100.0				
4.401													
성별	남자	45.0	28.2	26.8	100.0	100.520	42.3	32.2	25.5	100.0	101.482		
	여자	38.8	30.2	31.0	100.0	***	41.1	27.8	31.1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57.9	26.8	15.3	100.0	1338.915	53.5	26.5	20.0	100.0	724.244		
	중학교	35.1	29.2	35.6	100.0		***	38.1	31.4	30.5		100.0	***
	고등학교	34.7	31.1	34.2	100.0		33.5	32.2	34.3	100.0			
거주구	수정구	37.6	33.8	28.6	100.0	96.040	38.3	32.7	29.0	100.0	59.063		
	중원구	39.2	28.6	32.1	100.0		***	41.0	33.2	25.8		100.0	***
	분당구	43.9	28.1	27.9	100.0		42.9	28.5	28.7	100.0			
주관적	안좋은편	33.1	31.1	35.8	100.0	668.127	40.2	28.3	31.4	100.0	27.910		
학교	보통	34.5	35.8	29.6	100.0		***	41.7	30.1	28.2		100.0	***
성적	좋은편	49.6	24.6	25.8	100.0		42.3	30.5	27.2	100.0			
주관적	부족한편	25.9	28.5	45.6	100.0	616.800	48.5	21.7	29.8	100.0	78.779		
가정	보통	35.3	33.2	31.5	100.0		***	38.7	33.6	27.6		100.0	***
경제 사정	잘사는편	48.6	26.3	25.1	100.0		42.4	29.2	28.4	100.0			

주: * $p<.05$, ** $p<.01$, *** $p<.001$, 교차분석

-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 그런편 47.1% > 보통 35.5% > 그렇지않은편 17.4% 순, 2022년 그런편 56.4% > 보통 30.3% > 그렇지않은편 13.3%로 보고되어 그런편의 비율이 9.3%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와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별로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남자 47.5%, 여자 46.7%, 2022년에는 남자 59.9%, 여자 52.7%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남자, 여자 모두 자기조절 정도의 그런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스마트폰 자기조절 그런편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는 연관성이 있었다.
- 학교급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중학교 51.0% > 초등학교 50.4% > 고등학교 41.0% 순, 2022년에는 초등학교 60.4% > 고등학교 55.7% > 중학교 53.1% 순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모두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스마트폰 자기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학교급이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대해 그런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거주구와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의 그런편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분당구 50.2% > 수정구 42.7% > 수정구 40.4 순이었고, 2022년에는 분당구 58.0% > 수정구 56.3% > 중원구 50.3%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거주구가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그런편 비율이 증가하였다. 거주구 중에서 2020년, 2022년 그런편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분당구였고, 거주구와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

에 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의 그런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좋은편 55.1% > 보통 40.8% > 안좋은편 35.4%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안좋은편 58.9% > 좋은편 56.8% > 보통 53.6%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안좋은편의 응답한 비율이 23.5%가 상승하여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잘사는편 52.4% > 보통 41.5% > 부족한편 35.7% 순이었고, 2022년에는 부족한편 56.9% > 보통 56.6% > 잘사는편 56.3%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부족한편으로 응답할수록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작았다면, 2022년에는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그런편에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집계되어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모든 집단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스마트폰 자기조절정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17.4	35.5	47.1	100.0	13.3	30.3	56.4	100.0
413.001***								

구분		2020				합계	2022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성별	남자	16.6	35.9	47.5	100.0	11.588	12.9	27.2	59.9	100.0	130.379
	여자	18.3	35.0	46.7	100.0	***	13.6	33.6	52.7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15.4	34.2	50.4	100.0	219.534	13.9	25.7	60.4	100.0	128.801
	중학교	16.9	32.1	51.0	100.0		13.8	33.1	53.1	100.0	
	고등학교	19.5	39.5	41.0	100.0		12.0	32.2	55.7	100.0	
거주구	수정구	19.5	40.1	40.4	100.0	192.785	11.7	32.0	56.3	100.0	94.815
	중원구	16.9	40.7	42.4	100.0		16.6	33.1	50.3	100.0	
	분당구	17.0	32.8	50.2	100.0		12.8	29.1	58.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9.1	45.5	35.4	100.0	696.764	12.5	28.5	58.9	100.0	33.453
학교	보통	20.0	39.2	40.8	100.0		14.7	31.7	53.6	100.0	
성적	좋은편	15.3	29.6	55.1	100.0		12.9	30.3	56.8	100.0	
주관적	부족한편	28.8	35.4	35.7	100.0	406.294	11.1	32.0	56.9	100.0	11.164*
가정	보통	19.4	39.1	41.5	100.0		12.5	30.9	56.6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4.8	32.8	52.4	100.0		13.7	30.0	56.3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대해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그렇지않은편 47.9% > 보통 29.4% > 그런편 22.7% 순, 2022년에는 그렇지않은편 48.7% > 보통 30.0% > 그런편 21.3%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와 연도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스마트폰 계획 차질에 그렇지않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고,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우 2020년에는 여자 26.7%, 남자 19.0%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여자 24.8%, 남자 17.9%로 집계되어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여자가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2020년에 이에 2022년에도 지속되었다. 성별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20년 고등학교 30.1% > 중학교 25.9% > 초등학교 10.5% 순, 2022년 고등학교 26.9% > 중학교 24.1% > 초등학교 12.8% 순으로 나타나 2020년, 2022년 모두 고등학교의 그런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교급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는 수정구 25.0% > 중원구 23.4% > 분당구 21.9%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중원구 25.4% > 분당구 21.7% > 수정구 15.4% 순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2020년 대비 9.4% 그런편 응답 비율이 감소했고, 중원구는 2.0% 증가하였고, 분당구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거주구와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의 그런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안좋은편 34.0% > 보통 25.4% > 좋은편 17.0%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안좋은편 22.9% > 보통 22.7% > 좋은편 20.1%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할수록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의 그런편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동일했다. 그러나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11% 가까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여 2022년에 스마트폰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비율이 상당히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학교성적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주관적 경제사정의 경우 2020년에는 부족한편 34.6% > 보통 23.8% > 잘사는편 20.7% 순, 2022년에는 보통 23.4% > 부족한편 23.1% > 잘사는편 2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율을 비교하면 주관적 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의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0년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그런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47.9	29.4	22.7	100.0	48.7	30.0	21.3	100.0			
14.120**											
성별	남자	52.5	28.5	19.0	100.0	273.517	51.7	30.4	17.9	100.0	167.226
	여자	43.0	30.3	26.7	100.0	***	45.6	29.6	24.8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71.4	18.1	10.5	100.0	2488.174	64.6	22.5	12.8	100.0	1211.808
	중학교	41.6	32.5	25.9	100.0	***	43.3	32.6	24.1	100.0	***
	고등학교	33.8	36.1	30.1	100.0		38.1	35.0	26.9	100.0	
거주구	수정구	41.3	33.7	25.0	100.0	104.150	49.4	35.2	15.4	100.0	231.918
	중원구	46.6	30.0	23.4	100.0	***	41.0	33.6	25.4	100.0	***
	분당구	50.0	28.1	21.9	100.0		50.6	27.7	21.7	100.0	
주관적	안좋은편	29.2	36.8	34.0	100.0	1898.130	49.6	27.5	22.9	100.0	71.474
학교	보통	37.0	37.7	25.4	100.0	***	50.4	27.0	22.7	100.0	***
성적	좋은편	61.2	21.8	17.0	100.0		47.7	32.2	20.1	100.0	
주관적	부족한편	26.6	38.8	34.6	100.0		44.9	32.0	23.1	100.0	
가정	보통	41.8	34.4	23.8	100.0	649.270	51.5	25.1	23.4	100.0	97.541
경제					***						***
사정	잘사는편	54.6	24.7	20.7	100.0		47.9	31.7	20.4	100.0	

주: * $p<.05$, ** $p<.01$, *** $p<.001$, 교차분석

-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과 유사하게 여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주관적 학교 성적에 대해 안좋은 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주관적 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여전히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하여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스마트폰 자기조절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자기조절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주요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교 학교급보다 초등학교, 지역구 중에서는 분당구 지역이 2020년, 2022년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그런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주관적 학교 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20년과 2022년의 결과에서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 성적과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의 그런편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 2022년에는 성적과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이 오히려 자기조절 정도에 대해 그런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비율이 집계되기도 하였다.
-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의 경우 2020년 대비 그렇지않은편 또는 보통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스마트폰 계획 차질에 대해 보다 호전된 양상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요변인 기준으로는 여자, 고등학교,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보다는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스마트폰 계획 차질 정도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 2022년 모두 동일했다. 한편,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2020년과 대비했을 때 2022년에는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10% 정도 감소하는 양상도 관찰되기도 하였다.

5) 체험활동

- 연도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도에 관해서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해본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참여해본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참여해본 경우,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를 문항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체험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도별 증감비율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건활동은 2020년에 대비하여 2022년에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9.9% 증가했고,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없다는 경우 2020년과 2022년이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 과학정보의 경우 2020년과 대비했을 때 있다(온라인)의 비율은 약 3.0%,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은 1.4% 정도 증가했고, 있다(오프라인)비율, 없다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류의 경우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2020년 대비 각각 0.8%, 1.4%, 3.1% 증가했다. 한편 없다는에 대한 응답은 2020년 대비 5.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험개척 또한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문항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 모두 0.7% 가량 증가했고,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1.7%가 증가했다. 한편, 없다는 경우 2020년 대비 3.2% 응답 비율이 감소했다.
- 문화·예술의 경우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 응답에 대해 2020년 대비 각각 3.0%, 6.4% 감소한 반면,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과 2022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 봉사의 경우 2020년 대비 있다(온라인)에 대한 문항이 0.7% 증가하고,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문항이 1.4% 증가했지만, 있다(오프라인) 문항이 11.8% 감소하여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없다 문항의 경우에도 타 체험활동 영역 대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직업체험은 2020년 대비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은 각각 2.1%,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 문항은 2020년 대비 2.3% 감소했다.
- 환경보존의 경우 2020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문항은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였으며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오프라인)은 2020년과 2022년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없다의 비율은 2020년 대비 7.8% 감소하여 환경보존 관련 체험활동 참여도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자기(인성)개발의 경우 2020년 대비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7.4% 증가했고, 있다(온라인)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의 비율은 2020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 영역별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험 형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보건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높아 하이브리드 형태의 체험 방식이 주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의 경우 여전히 있다(오프라인) 체험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방식의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없다의 비율의 경우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 영역에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환경보존의 경우 여타 다른 영역보다 있다 관련 문항의 증가 비율이 높았으며, 봉사활동 영역의 경우 없다의 비율이 큰 폭의 증가해 봉사활동 참여의 감소세를 체감할 수 있었다.

〈표 3-20〉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건강·보건	20.4	33.1	38.1	8.5	100.0	15.3	28.1	48.0	8.5	100.0
과학정보	11.8	34.3	14.8	39.2	100.0	14.0	31.8	20.9	33.2	100.0
교류	15.8	19.4	13.8	50.9	100.0	16.6	20.8	16.9	45.8	100.0
모험개척	8.1	17.6	6.5	67.8	100.0	8.8	18.3	8.2	64.6	100.0
문화·예술	13.8	35.8	27.9	22.5	100.0	10.8	29.4	37.1	22.7	100.0
봉사	11.5	41.0	14.6	32.8	100.0	12.2	29.2	16.0	42.6	100.0
직업체험	16.3	39.7	27.9	16.1	100.0	14.2	34.9	37.2	13.8	100.0
환경보존	12.5	32.2	11.4	43.9	100.0	11.7	32.6	19.6	36.1	100.0
자기(인성)개발	13.3	31.9	15.7	39.0	100.0	14.5	27.4	23.1	35.0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1) 건강·보건활동

- 각 세부 체험활동 영역에 대해 없다는 비율, 가장 높은 비율에 대해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건강·보건활동과 성별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2022년에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형식이 가장 높은 참여 형태로 보고되었다. 없다 비율의 경우 남자는 2020년 11.6%, 2022년 10.2%로, 여자는 2020년 5.2%, 2022년 6.7%로 집계되어 남자의 없다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든 학교급에서 건강·보건활동 참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형태였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대비 있다(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의 비율이 2022년에 큰폭으로 증가했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2020년 8.0%, 2022년 8.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학교의 경우 2020년 9.1%, 2022년 8.4%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의 경우 없다 비율이 2020년 12.9%, 2022년 10.9%로 2.0% 감소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7.7%, 2022년 8.3%, 분당구는 2020년 7.6%, 2022년 8.0%로 집계되어 없다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높았다.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은 2020년 대비 전 거주구에서 감소한 반면,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는 전 거주구에서 증가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건강·보건활동에 대해 있다(오프라인)으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있다(온라인),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증가하였다. 각 집단별로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은 2020년 9.5%, 2022년은 7.6%, 보통은 2020년 9.8%, 없다 7.0%로 보고되었고, 좋은편은 2020년 7.4%, 2022년 9.5%로 보고되어 안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없아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좋은편의 없다 비율은 증가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있다(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통,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 모두 있다(온,오프라인 모두)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2년에는 모든 집단이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모든 집단 역시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2020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없다 비율의 증감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7.5%, 2022년 7.7%,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8.1%, 2022년 9.1%로 나타나 부족한편,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없다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없아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표 3-2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건강·보건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20.4	33.1	38.1	8.5	100.0	15.3	28.1	48.0	8.5	100.0	
성별	남자	21.9	31.8	34.7	11.6	100.0	17.5	30.4	41.9	10.2	100.0
	여자	18.7	34.4	41.7	5.2	100.0	13.0	25.7	54.5	6.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3.3	27.7	41.0	8.0	100.0	12.7	39.6	39.0	8.7	100.0
	중학교	18.5	35.4	37.0	9.1	100.0	11.4	23.9	56.2	8.4	100.0
	고등학교	19.6	35.5	36.5	8.4	100.0	21.8	21.2	48.5	8.4	100.0
거주구	수정구	20.5	38.7	27.9	12.9	100.0	17.7	31.6	39.8	10.9	100.0
	중원구	17.8	35.8	38.7	7.7	100.0	17.7	28.2	45.8	8.3	100.0
	분당구	21.0	30.8	40.6	7.6	100.0	14.1	27.2	50.7	8.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5.8	39.7	35.0	9.5	100.0	13.7	31.6	47.1	7.6	100.0
학교	보통	22.4	36.8	31.0	9.8	100.0	16.7	25.5	50.8	7.0	100.0
성적	좋은편	20.8	28.4	43.3	7.4	100.0	15.3	28.2	47.0	9.5	100.0
주관적	부족한편	22.2	42.6	27.8	7.5	100.0	15.1	26.2	51.0	7.7	100.0
가정	보통	19.1	33.5	38.3	9.1	100.0	12.5	27.6	52.8	7.2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21.1	31.8	39.0	8.1	100.0	16.4	28.4	46.1	9.1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2) 과학정보활동

- 과학정보활동 참여도와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주요변인의 집단에서 있다(오프라인)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비율의 경우 남자는 2020년 37.5%, 2022년 30.9%, 여자는 2020년 40.9%, 2022년 35.7%로 나타나 남자, 여자 모두 없다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즉 남자, 여자 모두 과학 정보활동 참여도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있다(온라인)의 방식은 2020년 대비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급별 연도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대비 있다(오프라인)의 2022년 비율이 6.1% 상승하여 오프라인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대비 13.0%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 비율은 초등학교 2020년 39.7%, 2022년 27.4%, 중학교 2020년 36.6%, 2022년 2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2020년 41.1%, 2022년 43.5%로 나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참여 비율이 2020년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거주구 기준으로 과학정보활동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거주구에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가장 높았다. 없다는 비율은 수정구는 2020년 49.7%, 2022년 33.9%, 중원구는 2020년 40.8%, 2022년 30.1%, 분당구는 2020년 36.0%, 2022년 33.9%로 모든 지역에서 없다는 비율이 2022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정보활동 참여도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 또한 전 지역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과 과학정보활동 참여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집

단이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비율은 주관적 학교성적이 안좋은편 2020년 48.7%, 2022년 34.4%, 보통 2020년 42.5%, 2022년 31.5%로 나타나 없다는 비율이 2020년에 대비하여 2022년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좋은편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의 없다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방식은 전 집단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과학정보활동 참여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부족한편 2020년 50.7%, 2022년 18.2%, 보통 2020년 43.8%, 2022년 30.9%로 응답하여 없다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사느년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의 비율이 유사했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모든 집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1.8	34.3	14.8	39.2	100.0	14.0	31.8	20.9	33.2	100.0
성별	남자	13.7	32.1	16.7	37.5	16.9	31.8	20.5	30.9	100.0
	여자	9.8	36.5	12.7	40.9	11.0	31.9	21.4	35.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2.4	30.7	17.2	39.7	16.3	36.8	19.4	27.4	100.0
	중학교	13.6	33.7	16.1	36.6	12.0	34.1	25.3	28.7	100.0
	고등학교	9.7	37.7	11.5	41.1	13.8	24.7	18.0	43.5	100.0
거주구	수정구	11.4	29.0	10.0	49.7	14.4	35.9	15.9	33.9	100.0
	중원구	9.2	38.5	11.5	40.8	16.9	31.0	22.0	30.1	100.0
	분당구	12.6	34.5	16.9	36.0	13.2	31.0	21.9	33.9	100.0
주관적	안좋은편	8.1	30.8	12.4	48.7	14.6	30.1	20.9	34.4	100.0
학교	보통	10.5	35.1	11.9	42.5	11.7	35.2	21.6	31.5	100.0
성적	좋은편	13.9	35.0	17.3	33.8	14.9	30.9	20.7	33.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5.9	32.7	10.7	50.7	15.0	53.9	12.9	18.2	100.0
가정	보통	12.6	30.7	12.9	43.8	12.1	32.2	24.8	30.9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1.8	37.1	16.5	34.6	14.7	30.3	20.0	35.0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3) 교류활동

- 주요변인과 교류활동의 참여 형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22년에도 지속되었다. 교류활동에 대해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 2020년 52.9%, 2022년 45.7%, 여자 2020년 48.9%, 2022년 45.9%로 나타나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없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자, 여자 모두 교류활동 참여 비율이 2020년 대비 증가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 교류활동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39.6%, 2022년 41.1%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없다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 고등학교의 경우의 없다는 비율이 감소하여 교류활동이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활동 참여의 방식은 2020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있다(온라인) 방식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면 2022년에는 있다(오프라인) 방식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있다(오프라인) 방식을 2020년, 2022년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고등학교의 2020년 있다(오프라인) 방식에서 2022년 있다(온라인) 방식을 가장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교류활동 참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2020년 대비 없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형태의 경우 2020년 대비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도 있었다. 수정구의 경우 있다(오프라인) 응답이 2020년, 2022년 모두 다른 문항에 비해 높았다. 한편, 중원구의 경우 2020년에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는 2020년에는 있다(온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교류활동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없다는 비율은 안좋은편 2020년 55.8%, 2022년 46.4%, 보

통 2020년 55.6%, 2022년 42.5%로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좋은편 집단의 경우 2020년 46.4%, 2022년 47.0%로 나타나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류활동 참여도 있다가의 응답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는 문항은 안좋은편, 보통의 경우 있다(오프라인)으로 일관되고 보고되어졌으나 좋은편의 경우 2020년 있다(온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2년에는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없다 응답 비율은 부족한편 2020년 60.1%, 2022년 37.3%, 보통 2020년 52.9%, 2022년 42.1%으로 응답하여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경우 2020년과 2022년의 없다 응답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형식의 경우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 2020년에는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2년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교류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5.8	19.4	13.8	50.9	100.0	16.6	20.8	16.9	45.8	100.0	
성별	남자	16.5	16.9	13.7	52.9	100.0	16.5	21.9	15.8	45.7	100.0
	여자	15.1	22.1	14.0	48.9	100.0	16.6	19.5	18.0	45.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0.8	19.9	19.6	39.6	100.0	17.7	24.4	16.9	41.1	100.0
	중학교	14.1	22.6	11.5	51.8	100.0	13.7	21.5	17.1	47.6	100.0
	고등학교	13.1	16.2	11.1	59.6	100.0	18.4	16.4	16.6	48.6	100.0
거주구	수정구	10.5	22.5	12.2	54.8	100.0	18.5	28.4	8.7	44.4	100.0
	중원구	13.1	23.4	11.8	51.6	100.0	13.8	18.6	21.2	46.5	100.0
	분당구	18.0	17.5	14.8	49.7	100.0	16.8	19.4	17.8	46.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0.9	22.3	11.0	55.8	100.0	12.3	22.1	19.3	46.4	100.0
학교	보통	12.4	20.2	11.7	55.6	100.0	15.7	23.4	18.4	42.5	100.0
성적	좋은편	19.6	17.9	16.1	46.4	100.0	18.3	19.2	15.4	47.0	100.0
주관적	부족한편	11.0	19.5	9.4	60.1	100.0	21.4	32.2	9.1	37.3	100.0
가정	보통	15.4	17.7	14.0	52.9	100.0	14.6	20.7	22.6	42.1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6.6	20.7	14.2	48.5	100.0	17.0	20.0	15.2	47.7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4) 모험개척활동

- 모험개척활동 참여도에 관하여 주요변인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구, 주관적 학교성적,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험개척활동 없다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자 2020년 65.3%, 2022년 63.5%, 여자 2020년 70.3%, 2022년 65.9%로 없다 비율이 2020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모험개척활동 참여도가 증가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모험개척활동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57.3%, 2022년 58.6%로 없다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학교의 경우 2020년 71.0%, 2022년 65.8%, 고등학교 2020년 73.7%, 2022년 69.4%로 집계되어 2020년에 비해 없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의 없다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2022년 동일했다.
- 거주구 기준으로 모험개척활동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71.0%, 2022년 67.4%, 중원구 2020년 66.0%, 2022년 60.0%, 분당구 2020년 67.4%, 2022년 65.1%로 나타나 모든 지역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없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로 없과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의 없다 비율이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 높았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없다 비율의 경우 안좋은편 2020년 74.4%, 2022년 66.8%로 나타났고, 보통은 2020년 72.2%, 2022년 64.8%으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없다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좋은편의 경우 2020년 62.7%, 2022년 63.9%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없다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보통, 좋은편 보다 안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모험 개척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없다 응답 비율이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76.3%, 2022년 62.7%로 나타났고 보통은 2020년 70.8%, 2022년 66.3%, 잘사는편 2020년 64.6%, 2022년 64.1%로 나타나 없다 응답 비율이 2020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다른 집단보다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각 집단별로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없다 비율이 부족한편 76.3% > 보통 70.8% > 잘사는편 64.6%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잘사는편 64.1% > 보통 66.3% > 부족한편 6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모험개척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8.1	17.6	6.5	67.8	100.0	8.8	18.3	8.2	64.6	100.0	
성별	남자	10.5	17.0	7.2	65.3	100.0	9.7	19.6	7.2	63.5	100.0
	여자	5.6	18.3	5.7	70.3	100.0	7.9	17.0	9.2	65.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7	26.1	8.9	57.3	100.0	8.6	23.5	9.2	58.6	100.0
	중학교	8.7	15.0	5.4	71.0	100.0	6.4	21.5	6.3	65.8	100.0
	고등학교	8.0	12.9	5.4	73.7	100.0	11.5	10.1	9.1	69.4	100.0
거주구	수정구	6.6	15.5	6.9	71.0	100.0	7.9	17.5	7.1	67.4	100.0
	중원구	9.3	16.9	7.8	66.0	100.0	9.4	21.3	9.3	60.0	100.0
	분당구	8.2	18.4	6.0	67.4	100.0	8.9	17.7	8.2	65.1	100.0
주관적	안좋은편	8.1	13.2	4.3	74.4	100.0	6.8	17.1	9.3	66.8	100.0
학교	보통	6.1	15.9	5.8	72.2	100.0	7.2	21.1	6.9	64.8	100.0
성적	좋은편	9.4	20.2	7.7	62.7	100.0	10.2	17.5	8.4	63.9	100.0
주관적	부족한편	5.6	14.0	4.0	76.3	100.0	6.1	27.0	4.1	62.7	100.0
가정	보통	8.1	15.2	5.9	70.8	100.0	7.7	18.9	7.1	66.3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8.4	19.8	7.2	64.6	100.0	9.4	17.5	8.9	64.1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5)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주요변인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은 남자가 2020년 28.7%, 2022년 27.7%로 나타났고,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020년 16.0%, 2022년 17.4%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없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있다 관련 응답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있다(오프라인) 문항이 2020년, 2022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문화·예술 참여와 관련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2020년 19.2%, 2022년 16.8%로 나타나 2020년 대비 감소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2020년과 2022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26.5%, 2022년 30.1%로 집계되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없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이 높을수록 없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2022년 모두 해당했다. 문화·예술활동 경험 있다는 방식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였으며, 중,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에 있다(오프라인) 방식이 가장 비율이 높은 반면, 2022년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방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거주구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 예술 참여에 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정구 2020년 27.0%, 2022년 22.7%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고, 중원구는 2020년 20.6%, 2022년 21.3%, 분당구는 2020년 21.8%, 2022년 23.1%로 나타나 증가 추세였다. 참여 방식의 경우 수정구는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 형식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원구의 경우 2020년에는 있다

(오프라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2년에는 있다(오프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에는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해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의 경우 2020년 28.3%, 2022년 25.5%, 보통의 경우 2020년 28.3%, 2022년 23.0%로 없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좋은편과 보통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문화·예술활동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없다 문항에 대해 2020년 17.0%, 2022년 21.7%의 비율을 보여 없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구별로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안좋은편, 보통으로 인식한 집단의 없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방식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모든 집단이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28.5%, 2022년 13.6%로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단의 경우 2020년, 2022년 비율이 유사하였고, 잘사는 편인 경우 2020년 20.5%, 2022년 22.8%로 나타나 오히려 없다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의 경우 부족한편, 보통 집단의 없다 비율이 잘사는 편보다 높았다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 집단보다 보통 또는 잘사는편 집단이 없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방식은 2022년 기준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3.8	35.8	27.9	22.5	100.0	10.8	29.4	37.1	22.7	100.0	
성별	남자	15.7	31.6	24.0	28.7	100.0	12.8	28.9	30.6	27.7	100.0
	여자	11.7	40.1	32.2	16.0	100.0	8.6	30.0	44.0	17.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2.6	33.9	34.3	19.2	100.0	10.0	33.8	39.4	16.8	100.0
	중학교	15.9	38.7	24.4	21.0	100.0	9.2	33.4	36.3	21.1	100.0
	고등학교	13.0	34.8	25.7	26.5	100.0	13.1	21.2	35.6	30.1	100.0
거주구	수정구	13.0	33.9	26.0	27.0	100.0	18.3	31.3	27.7	22.7	100.0
	중원구	13.1	41.0	25.2	20.6	100.0	12.1	33.3	33.3	21.3	100.0
	분당구	14.2	34.8	29.2	21.8	100.0	8.5	27.9	40.5	23.1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0.7	36.8	24.3	28.3	100.0	7.0	30.0	37.5	25.5	100.0
학교	보통	12.4	34.2	25.1	28.3	100.0	8.8	33.6	34.7	23.0	100.0
성적	좋은편	15.7	36.3	31.0	17.0	100.0	12.8	27.4	38.0	21.7	100.0
주관적	부족한편	11.1	29.3	31.2	28.5	100.0	10.9	28.3	47.2	13.6	100.0
가정	보통	15.0	34.5	26.1	24.4	100.0	7.5	31.7	36.8	24.0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3.2	37.3	29.0	20.5	100.0	12.0	28.7	36.6	22.8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6) 봉사활동

- 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하여 주요변인별로 확인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2020년 대비 봉사활동 참여 관련 문항 중 없다 비율이 상승하였고, 있다 문항 중 있다(오프라인) 문항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년, 2022년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있다(온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모든 변인에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체적으로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은 남자 2020년 35.8%, 2022년 43.6%, 여자 2020년 29.6%, 2022년 41.4%였다. 2020년 대비 남자는 7.8%, 여자는 11.8% 없다 비율이 증가하여 여자의 봉사활동 참여 감소가 더 높았다. 2020년에 비해 남자, 여자 모두 없다는 비율이 상승하여 봉사활동 참여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 보다 남자의 없다 비율이 더 높았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은 초등학교 2020년 48.0%, 2022년 52.5%, 중학교 2020년 24.6%, 2022년 42.4%, 고등학교 2020년 27.3%, 2022년 32.9%였다. 2020년 대비 2022년 없다 비율의 증가는 초등학교 4.5%, 중학교 17.8%, 고등학교 5.6%로 중학교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있다 문항 중에서는 모든 학교급이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높았지만, 2020년 대비 2022년의 감소폭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17.5%, 고등학교 14.2%로 중, 고등학교의 있다(오프라인)의 감소가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대비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중, 고등학교 모두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있다(온라인)의 경우 고등학교만 소폭 증가하였다.
- 거주구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36.1%, 2022년 46.3%, 중원구 2020년 31.7%, 2022년 37.1%, 분당구 2020년 32.3%, 2022년 43.0%로 나타

났다. 2020년 대비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이 수정구 10.2%, 중원구 5.4%, 분당구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 분당구의 없다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있다 관련 문항의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거주구에서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과 2022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정구 2020년 42.4%, 2022년 27.5%, 중원구 2020년 48.1%, 2022년 32.5%, 분당구 2020년 38.7%, 2022년 28.8%로 나타나, 2020년 대비 2022년에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수정구 14.9%, 중원구 15.6%, 분당구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관련 다른 문항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중원구의 경우 있다(온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을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당구의 경우 증가하지 않았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 보았다. 안좋은편 2020년 36.1%, 2022년 48.0%, 보통 2020년 29.3%, 2022년 44.4%, 좋은편 2020년 33.7%, 2022년 40.1%로 2020년 대비 2022년에 안좋은편 11.9%, 보통 15.1%, 좋은편 6.4%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에 관하여 안좋은편, 보통으로 인식한 집단의 없다 비율의 증가 폭이 좋은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있다(오프라인) 문항의 경우 안좋은편 2020년 41.5%, 2022년 29.6%, 보통 2020년 43.9%, 2022년 27.8%, 좋은편 2020년 33.7%, 2022년 40.1%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안좋은편 11.9%, 보통 15.1%, 좋은편 6.4% 감소하였다. 있다(온, 오프라인)의 경우 2020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고, 있다(온라인)의 경우 보통,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만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 2020년 32.8%, 2022년 43.3%, 보통 2020년 33.0%, 2022년 42.8%, 잘사는편 2020년 32.7%, 2022년 42.4%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의 없다 비율 증가폭은 부족한편 10.5%, 보통 9.8%, 잘사는편 9.7%로 나타났

다. 있다 관련 문항 중 2020년, 2022년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인 문항은 있다(오프라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집단별 있다(오프라인)의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47.2%, 2022년 35.4%, 보통 2020년 42.8%, 2022년 31.1%, 잘사는편 2020년 39.1%, 2022년 28.2%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부족한편 11.8%, 보통 11.7%, 잘사는편 10.9%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있다(온라인)의 경우에는 부족한편,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그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에서만 2020년 대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1.5	41.0	14.6	32.8	100.0	12.2	29.2	16.0	42.6	100.0	
성별	남자	13.7	35.5	14.9	35.8	100.0	12.6	28.2	15.5	43.6	100.0
	여자	9.2	46.8	14.4	29.6	100.0	11.8	30.3	16.5	41.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7	30.9	10.5	48.0	100.0	10.1	28.1	9.2	52.5	100.0
	중학교	12.7	47.3	15.3	24.6	100.0	10.6	29.8	17.1	42.4	100.0
	고등학교	11.3	43.9	17.5	27.3	100.0	15.8	29.7	21.5	32.9	100.0
거주구	수정구	11.6	42.4	9.9	36.1	100.0	14.8	27.5	11.5	46.3	100.0
	중원구	8.7	48.1	11.5	31.7	100.0	11.7	32.5	18.7	37.1	100.0
	분당구	12.3	38.7	16.8	32.3	100.0	11.7	28.8	16.4	43.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1.2	41.5	11.2	36.1	100.0	6.7	29.6	15.7	48.0	100.0
학교	보통	10.9	43.9	15.9	29.3	100.0	11.5	27.8	16.3	44.4	100.0
성적	좋은편	12.1	39.1	15.1	33.7	100.0	14.2	29.7	16.0	40.1	100.0
주관적	부족한편	8.8	47.2	11.2	32.8	100.0	11.8	35.4	9.5	43.3	100.0
가정	보통	11.8	42.8	12.5	33.0	100.0	9.9	31.1	16.2	42.8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1.7	39.1	16.6	32.7	100.0	13.1	28.2	16.3	42.4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7) 직업체험활동

- 직업체험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은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2020년 19.8%, 2022년 15.7%, 여자는 2020년 12.2%, 2022년 11.8%로 없다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있다 관련 응답을 살펴본 결과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2020년에 남자, 여자 모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지만, 2022년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은 남자, 여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직업체험활동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14.1%, 2022년 18.0%, 중학교 2020년 10.9%, 2022년 7.0%, 고등학교 2020년 22.3%, 2022년 16.4%로, 2020년 대비 2022년에 없다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소폭 증가한 반면, 중, 고등학교의 비율은 감소하여 초등학교의 직업체험활동은 2020년 대비 감소하였고, 중, 고등학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있다 관련 문항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202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2022년에 고등학교에서는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학교 학교급의 경우에는 여전히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2022년에도 가장 높았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020년 26.5%, 2022년 27.5%, 중학교 2020년 31.9%, 2022년 41.9%, 고등학교 2020년 25.5%, 2022년 41.9%였다. 2020년 대비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초등학교 1.0%, 중학교 10.0%, 고등학교 16.4%로 증가하여 중,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직업체험활동 없다 비율은 수정구 2020년 17.8%, 2022년 13.6%, 중원구 2020년 12.7%, 2022년 18.3%,

분당구 2020년 16.6%, 2022년 12.7%였다. 2020년 대비 수정구, 분당구는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중원구는 없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관련 문항 중 있다(오프라인) 문항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44.0%, 2022년 42.3%, 중원구 2020년 52.3%, 2022년 39.2%, 분당구 2020년 35.0%, 2022년 31.8%로 모든 거주구에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특히 중원구의 감소폭이 13.1%로 두드러졌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은 모든 거주구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구 2020년 23.0%, 2022년 24.8%. 중원구 2020년 21.6%, 2022년 31.1%, 분당구 2020년 31.0%, 2022년 41.9%로 2020년 대비 수정구 1.8%, 중원구 9.5%, 분당구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에 비해 중원구, 분당구가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 분당구의 경우 있다(오프라인) 보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없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24.1%, 2022년 17.4%, 보통 2020년 16.7%, 2022년 11.5%, 좋은편 2020년 12.8%, 2022년 13.6%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안좋은편, 보통의 경우 없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좋은편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관련 문항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면 2022년은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27.1%, 2022년 37.4%, 보통 2020년 24.6%, 2022년 39.1%, 좋은편 2020년 30.1%, 2022년 36.3%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안좋은편 10.3%, 보통 14.5%, 좋은편 6.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직업체험활동 참여의 없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18.2%, 2022년 13.4%, 보통 15.7%, 2022년 13.7%, 잘사는편 2020년 16.2%, 없다는 13.8%로 모든 집단에서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관련 문항을 살펴본 결과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부족한편

2020년 42.8%, 2022년 41.8%, 보통 2020년 40.7%, 2022년 35.4%, 잘사는편 2020년 38.6%, 2022년 34.2%로 2020년 대비 부족한편 1.0%, 보통 5.3%, 잘사는편 4.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족한편 2020년 27.0%, 2022년 32.0%, 보통 2020년 25.5%, 2022년 39.7%, 잘사는편 2020년 29.8%, 2022년 36.6%로 2020년 대비 부족한편 5.0%, 보통 14.2%, 잘사는편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통,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있다 관련 문항 중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2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직업체험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6.3	39.7	27.9	16.1	100.0	14.2	34.9	37.2	13.8	100.0	
성별	남자	17.7	36.0	26.6	19.8	100.0	16.6	34.8	32.9	15.7	100.0
	여자	14.9	43.6	29.3	12.2	100.0	11.6	34.9	41.7	11.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6.4	42.9	26.5	14.1	100.0	14.0	40.6	27.5	18.0	100.0
	중학교	16.0	41.1	31.9	10.9	100.0	11.3	39.7	41.9	7.0	100.0
	고등학교	16.5	35.7	25.5	22.3	100.0	17.2	24.5	41.9	16.4	100.0
거주구	수정구	15.2	44.0	23.0	17.8	100.0	19.2	42.3	24.8	13.6	100.0
	중원구	13.4	52.3	21.6	12.7	100.0	11.4	39.2	31.1	18.3	100.0
	분당구	17.4	35.0	31.0	16.6	100.0	13.6	31.8	41.9	12.7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4.5	34.3	27.1	24.1	100.0	11.5	33.7	37.4	17.4	100.0
학교	보통	16.6	42.1	24.6	16.7	100.0	12.4	37.0	39.1	11.5	100.0
성적	좋은편	16.8	40.2	30.1	12.8	100.0	15.8	34.3	36.3	13.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12.0	42.8	27.0	18.2	100.0	12.8	41.8	32.0	13.4	100.0
가정	보통	18.1	40.7	25.5	15.7	100.0	11.2	35.4	39.7	13.7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5.4	38.6	29.8	16.2	100.0	15.4	34.2	36.6	13.8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8) 환경보존활동

- 환경보존활동의 없다 비율의 경우 남자 2020년 44.4%, 2022년 38.0%, 여자 2020년 43.4%, 2022년 34.1%로 2020년 대비 남자 6.4%, 여자 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환경보존활동 경험 비율이 상승하였다. 환경보존활동 있다 관련 문항을 성별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남자 2020년 27.8%, 2022년 31.5%, 여자 2020년 36.9%, 2022년 33.8%였으며 2020년 대비 남자는 3.7% 상승한 반면, 여자는 3.1% 감소하였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2020년 대비 12.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학교급 기준으로 환경보존활동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32.4%, 2022년 32.2%, 중학교 2020년 41.7%, 2022년 33.0%, 고등학교 2020년 55.3%, 2022년 43.0%로 2020년 대비 초등학교 0.2%, 중학교 8.7%, 고등학교 1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없다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은 2020년, 2022년 모두 동일했다. 2020년 대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보존활동의 경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있다 관련 문항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있다(오프라인)의 경우 초등학교 2020년 44.3%, 2022년 40.5%, 중학교 2020년 32.0%, 2022년 37.9%, 고등학교 2020년 22.3%, 2022년 19.5%로 2020년 대비 초등학교는 3.8%, 고등학교는 2.8%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2020년 13.1%, 2022년 17.2%, 중학교 2020년 12.1%, 2022년 21.4%, 고등학교 2020년 9.5%, 2022년

20.0%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초등학교 4.1%, 중학교 9.3%, 고등학교 10.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있다(온라인) 비율이 2020년 12.9%, 2022년 17.5%로 2020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있다(온라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거주구 기준으로 환경보존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45.0%, 2022년 35.9%, 중원구 2020년 41.8%, 2022년 47.5%, 분당구 2020년 44.2%, 2022년 33.2%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수정구 9.1%, 분당구 11.0% 감소하였고, 중원구는 5.7% 증가하였다. 즉 환경보존활동 참여에 대해 2020년 대비 2022년에 수정구, 분당구는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관련 문항 비율의 경우 모든 집단이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했으나 2020년 대비 증감의 양상은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수정구, 중원구의 경우 2020년 대비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분당구는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있다(온라인)의 경우에도 수정구, 중원구는 증가한 반면, 분당구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모든 거주구에서 2020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10.4%, 2022년 15.5%, 중원구 2020년 12.9%, 2022년 18.0%, 분당구 2020년 11.3%, 2022년 21.0%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비율이 수정구 5.1%, 중원구 5.1%, 분당구 9.7%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으로 기준으로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52.9%, 2022년 38.9%, 보통 2020년 48.7%, 2022년 33.3%, 좋은편 2020년 37.8%, 2022년 36.8%로 집계되었다. 보통,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없다 비율이 더 높은 양상은 2020년, 2022년 모두 동일했다. 2020년 대비 증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14.0%, 보통 15.4%, 좋은편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좋은편, 보통의 없다 비율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있다 관련 문항의 경

우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전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증감을 살펴본 결과 안 좋은편, 보통의 경우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증가했지만, 좋은편의 경우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환경보존활동 참여 없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60.8%, 2022년 29.6%, 보통 2020년 42.8%, 2022년 36.6%, 잘사는편 2020년 43.0%, 2022년 36.3%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할수록 없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2022년에는 보통, 잘사는편 보다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없다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없다 비율 증감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대비 부족한편 31.2%, 보통 6.2%, 잘사는편 6.7%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환경보존활동 참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큰 폭으로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있다 관련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이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있다(오프라인)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22.6%, 2022년 40.6%, 보통 2020년 33.3%, 2022년 33.8%, 잘사는편 2020년 32.4%, 2022년 31.6%로 나타나 2020년 대비 부족한편 18.0%, 보통 0.5% 증가했고, 잘사는 편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편의 환경보존활동 참여의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활동에 대한 체감을 더 높게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의 비율이 2020년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환경보존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2.5	32.2	11.4	43.9	100.0	11.7	32.6	19.6	36.1	100.0	
성별	남자	14.8	27.8	13.0	44.4	100.0	13.4	31.5	17.1	38.0	100.0
	여자	10.0	36.9	9.8	43.4	100.0	9.9	33.8	22.2	34.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2	44.3	13.1	32.4	100.0	10.0	40.5	17.2	32.2	100.0
	중학교	14.2	32.0	12.1	41.7	100.0	7.6	37.9	21.4	33.0	100.0
	고등학교	12.9	22.3	9.5	55.3	100.0	17.5	19.5	20.0	43.0	100.0
거주구	수정구	7.9	36.6	10.4	45.0	100.0	14.4	34.2	15.5	35.9	100.0
	중원구	9.4	35.9	12.9	41.8	100.0	10.7	23.8	18.0	47.5	100.0
	분당구	14.5	30.0	11.3	44.2	100.0	11.3	34.5	21.0	33.2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0.7	26.7	9.8	52.9	100.0	6.0	35.8	19.3	38.9	100.0
학교	보통	11.6	29.3	10.4	48.7	100.0	13.0	33.9	19.8	33.3	100.0
성적	좋은편	13.6	35.9	12.7	37.8	100.0	13.0	31.0	19.6	36.5	100.0
주관적	부족한편	9.8	22.6	6.8	60.8	100.0	11.8	40.6	18.0	29.6	100.0
가정	보통	13.0	33.3	10.9	42.8	100.0	9.9	33.8	19.7	36.6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2.4	32.4	12.3	43.0	100.0	12.4	31.6	19.6	36.3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9) 자기(인성)개발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주요변인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자기(인성)개발활동에 대해 없다 비율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남자 2020년 41.8%, 2022년 38.0%, 여자 2020년 36.1%, 2022년 31.8%로 2020년 대비 남자는 3.8%, 여자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가 남자, 여자 모두 감소하였다. 있다 관련 응답을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있다(오프라인) 비율이 2020년, 2022년 모두 높았지만 2020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있다(온라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는 2020년 대비 증가 양상을 보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자기(인성)개발활동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43.9%, 2022년 39.7%, 중학교 2020년 34.8%, 2022년 30.1%, 고등학교 2020년 38.7%, 2022년 35.4%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의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가 타 학교급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초등학교 4.2%, 중학교 4.7%, 고등학교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학교급이 2020년 대비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있다 관련 문항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 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증감을 확인한 결과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은 초등학교 2020년 28.3%, 2022년 28.7%, 중학교 2020년 33.6%, 2022년 33.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33.4%, 2022년 20.3%로 2020년 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모든 집단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020년 14.7%, 2022년 17.9%, 중학교 2020년 17.4%, 2022년 23.3%, 고등학교 2020년 15.2%, 2022년 28.0%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2%, 중학교 5.9%, 고등학교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있다(온, 오프라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거주구 기준으로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43.5%, 2022년 37.1%, 중원구 2020년 44.0%, 2022년 32.2%, 분당구 2020년 36.5%, 2022년 35.2%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의 없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의 증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6.4%, 중원구 11.8%, 분당구 1.3% 감소하여 모든 거주구에서 자기(인성)개발활동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원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있다 관련 문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거주구에서 2020년, 2022년에 있다(오프라인)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37.0%, 2022년 28.2%, 중원구 2020년 29.3%, 2022년 33.0%, 분당구 2020년 31.3%, 2022년 25.7%로 집계되었고, 2020년 대비 수정구 8.8%, 분당구 5.6% 감소한 반면, 중원구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모든 거주구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정구 2020년 10.9%, 2022년 18.6%, 중원구 2020년 12.7%, 2022년 20.6%, 분당구 2020년 17.9%, 2022년 24.9%로 2020년 대비 수정구 7.7%, 중원구 7.9%, 분당구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의 없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42.8%, 2022년 33.9%, 보통 2020년 43.6%, 2022년 40.3%, 좋은편 2020년 35.0%, 2022년 33.1%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없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020년 대비 안좋은편 8.9%, 보통 5.0%, 잘사는편 2.5% 없다 비율이 감소하여, 안좋은편의 자기(인성) 개발활동 참여도가 가장 많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관련 응답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2020년, 2022년 모두 있다(오프라인)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30.6%, 2022년 33.2%, 보통 2020년 31.8%, 2022년 24.9%, 좋은편 2020년 32.4%, 2022년 26.6%로 나타나 2020년 대비 안좋은편

은 2.6% 증가했고, 보통은 6.9%, 좋은편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이 2020년 대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에 대해 안좋은편 2020년 15.2%, 2022년 24.3%, 보통 2020년 11.7%, 2022년 23.1%, 좋은편 2020년 18.3%, 2022년 22.7%로 응답하여 2020년 대비 각각 안좋은편 9.1%, 보통 11.4%, 좋은편 4.4% 증가하였다. 좋은편에 비해 안좋은편,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더 증가폭이 넓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 없다 비율은 부족한편 2020년 39.8%, 2022년 36.1%, 보통 2020년 42.3%, 2022년 37.3%, 잘사는편 2020년 36.6%, 2022년 34.1%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모든 집단의 없다 비율이 감소하였고 구체적으로 부족한편 3.7%, 보통 5.0%, 잘사는편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의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있다 관련 응답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있다(오프라인)의 비율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있다(오프라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28.9%, 2022년 35.7%, 보통 2020년 32.0%, 2022년 28.8%, 잘사는편 2020년 32.1%, 2022년 26.3%로 응답하였다. 있다(오프라인)에 대해 2020년 대비 부족한편의 경우 6.8% 증가하였고, 보통은 3.2%, 잘사는편은 5.8% 감소하였다. 한편,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 부족한편 2020년 16.0%, 2022년 23.2%, 보통 2020년 12.0%, 2022년 24.2%, 잘사는편 2020년 18.5%, 2022년 22.7%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부족한편 7.2%, 보통 12.2%, 잘사는편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온, 오프라인 모두)의 응답 비율에 대해 잘사는편 보다 부족한편, 보통 집단의 증가 폭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자기(인성)개발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있다 (온라인)	있다 (오프라인)	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없다	합계	
전체	13.3	31.9	15.7	39.0	100.0	14.5	27.4	23.1	35.0	100.0	
성별	남자	15.7	26.6	15.9	41.8	100.0	16.3	25.6	20.1	38.0	100.0
	여자	10.8	37.5	15.6	36.1	100.0	12.7	29.2	26.2	31.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3.1	28.3	14.7	43.9	100.0	13.7	28.7	17.9	39.7	100.0
	중학교	14.2	33.6	17.4	34.8	100.0	13.6	33.0	23.3	30.1	100.0
	고등학교	12.8	33.4	15.2	38.7	100.0	16.3	20.3	28.0	35.4	100.0
거주구	수정구	8.7	37.0	10.9	43.5	100.0	16.2	28.2	18.6	37.1	100.0
	중원구	14.0	29.3	12.7	44.0	100.0	14.3	33.0	20.6	32.2	100.0
	분당구	14.4	31.3	17.9	36.5	100.0	14.2	25.7	24.9	35.2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1.4	30.6	15.2	42.8	100.0	8.6	33.2	24.3	33.9	100.0
학교	보통	13.0	31.8	11.7	43.6	100.0	11.8	24.9	23.1	40.3	100.0
성적	좋은편	14.2	32.4	18.3	35.0	100.0	17.6	26.6	22.7	33.1	100.0
주관적	부족한편	15.3	28.9	16.0	39.8	100.0	5.1	35.7	23.2	36.1	100.0
가정	보통	13.7	32.0	12.0	42.3	100.0	9.8	28.8	24.2	37.3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2.8	32.1	18.5	36.6	100.0	16.9	26.3	22.7	34.1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라 각 체험활동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확인하였다. 2020년은 직업체험 25.6% > 문화·예술 20.8% > 자기(인성)개발 17.4% > 과학정보 12.6% > 봉사 7.7%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은 직업체험 27.2% > 문화·예술 24.4% > 과학정보 11.9% > 건강·보건 10.2% > 자기(인성)개발 8.3%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직업체험과 문화·예술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각 연도별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2020년에 직업체험 21.7% > 자기(인성)개발 21.5% > 과학정보 19.0% 순이었고, 2022년에는 직업체험 24.9% > 과학정보 19.3% > 문화·예술 13.6%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2020년 문화·예술 31.0% > 직업체험 29.8% > 자기(인성)개발 13.1% 순, 2022년에는 문화·예술 35.8% > 직업체험 29.6% > 자기(인성)개발 8.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도와 관계없이 직업체험활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위권으로 집계되었다. 남자의 경우 과학정보를, 여자의 경우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높은 순위로 응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35.7% > 문화·예술 16.3% > 과학정보 13.3% 순이었고, 2022년은 직업체험 28.7% > 문화·예술 22.3% > 과학정보 14.9%로 나타나, 연도와 무관하게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활동에 높은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8.2% > 문화·예술 23.2% > 자기(인성)개발 17.0%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직업체험 32.8% > 문화·예술 24.4% > 과학정보 12.1%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꾸준히 높은 만족감을 느꼈으나, 2022년 들어 자기(인성)개발 보다는 과학정보 체험활동에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자기(인성)개발 24.4% > 문화·예술 22.5% > 직업체험 15.0%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문화·예술 26.6% > 직업체험 20.0% > 건강·보건 12.7%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직업체험활동이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수정구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7.9% > 문화·예술 24.2% > 자기(인성)개발 14.9% 순, 2022년 직업체험 31.7% > 문화·예술 23.1% > 과학정보 1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원구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35.2% > 문화·예술 16.5% > 자기(인성)개발 11.0% 순으로 응답했고, 2022년에는 직업체험 26.6% = 문화·예술 26.6% > 건강·보건 11.3% = 봉사 11.3% > 과학정보 8.6% 순으로 응답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2.3% > 문화·예술 21.2% > 자기(인성)개발 19.8% 순, 2022년 직업체험 26.2% > 문화·예술 24.2% > 과학정보 12.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에 모든 거주구에서 직업체험과 문화·예술은 지속해서 상위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안중은편의 경우 2020년 자기(인성)개발 24.2% > 문화·예술 22.1% > 직업체험 21.4%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 직업체험 26.4% > 문화·예술 25.8% > 과학정보 12.9%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5.5% > 문화·예술 20.8% > 자기(인성)개발 19.1% 순, 2022년 직업체험 31.0% > 문화·예술 22.7% > 건강·보건 1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7.2% > 문화·예술 20.4% > 과학정보 16.1% 순, 2022년에는 직업체험 25.8% > 문화·예술 24.7% > 과학정보 11.8% 순으로 보고되었다. 연도별, 학교성적과 무관하게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꾸준히 만족에 있어 높은 순위로 보고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자기(인성)개발의 만족 비율이 높은 반면, 2022년에는 과학정보 또는 건강·보건 체험활동의 만족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 22.0% > 문화·예술 21.0% > 자기(인성)개발 19.8% 순, 2022년에는 문화·예술 31.9% > 직업체험 20.9% > 과학정보 20.8%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020년 직업체험 28.0% > 문화·예술 19.2% > 자기(인성)개발 17.4% 순, 2022년 직업체험 31.3% > 문화·예술 25.4% > 과학정보 11.5%

순으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직업체험(24.2%) > 문화·예술 22.0% > 자기(인성)개발 17.1% 순, 2022년 직업체험 26.1% > 문화·예술 23.6% > 과학정보 11.5% 순으로 보고되었다.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경우 꾸준히 만족도에 있어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자기(인성)개발, 2022년에는 과학정보 체험활동이 높은 만족도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3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체험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 (인성) 개발	합계	
2020	6.2	12.6	2.4	4.8	20.8	7.7	25.6	2.4	17.4	100.0	
성별	남자	7.4	19.0	2.2	6.4	11.3	7.5	21.7	3.0	21.5	100.0
	여자	4.9	5.9	2.6	3.2	31.0	7.9	29.8	1.8	13.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7	13.3	5.3	5.9	16.3	4.6	35.7	2.0	9.3	100.0
	중학교	4.8	9.9	1.0	6.0	23.2	7.2	28.2	2.7	17.0	100.0
	고등학교	6.2	14.5	1.2	3.0	22.5	10.8	15.0	2.4	24.4	100.0
거주구	수정구	8.5	7.9	1.4	4.8	24.2	7.5	27.9	3.0	14.9	100.0
	중원구	10.2	9.1	1.2	4.6	16.5	10.3	35.2	1.9	11.0	100.0
	분당구	4.4	14.9	3.0	4.9	21.2	7.0	22.3	2.4	19.8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6.4	9.5	1.5	6.8	22.1	7.2	21.4	1.1	24.2	100.0
	보통	6.4	8.8	1.9%	3.9	20.8	10.8	25.5	2.9	19.1	100.0
	좋은편	6.0	16.1	3.1	4.7	20.4	6.1	27.2	2.6	13.9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10.0	6.4	2.4	5.9	21.0	12.0	22.0	0.5	19.8	100.0
	보통	7.0	9.8	2.1	4.3	19.2	9.3	28.0	2.9	17.4	100.0
	잘사는편	5.2	15.4	2.7	5.2	22.0	6.1	24.2	2.2	17.1	100.0

구분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 (인성) 개발	합계	
2022	10.2	11.9	1.9	5.0	24.4	8.2	27.2	3.0	8.3	100.0	
성별	남자	12.5	19.3	2.0	6.4	13.6	9.4	24.9	3.3	8.4	100.0
	여자	7.8	4.2	1.7	3.4	35.8	6.8	29.6	2.6	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2.1	14.9	2.5	5.8	22.3	5.8	28.7	2.5	5.4	100.0
	중학교	5.9	12.1	1.8	4.8	24.4	7.5	32.8	2.5	8.1	100.0
	고등학교	12.7	8.8	1.3	4.4	26.6	11.2	20.0	3.8	11.2	100.0
거주구	수정구	7.9	12.3	2.2	2.7	23.1	7.2	31.7	2.9	10.0	100.0
	중원구	11.3	8.6	1.5	5.5	26.6	11.3	26.6	2.2	6.4	100.0
	분당구	10.5	12.7	1.9	5.4	24.2	7.6	26.2	3.2	8.3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9.8	12.9	1.7	3.2	25.8	6.9	26.4	0.5	12.8	100.0
	보통	11.6	11.5	1.3	4.2	22.7	7.0	31.0	3.0	7.7	100.0
	좋은편	9.8	11.8	2.2	5.9	24.7	9.1	25.8	3.7	7.1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8.1	20.8	-	2.0	31.9	2.9	20.9	-	13.4	100.0
	보통	7.9	11.5	2.3	1.5	25.4	7.9	31.3	2.9	9.2	100.0
	잘사는편	11.2	11.5	1.8	6.5	23.6	8.6	26.1	3.2	7.6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의 경우 2020년 연구에서는 단순히 1순위, 2순위 정도로만 조사를 했을 뿐 주요변인별 욕구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2년 연구에서는 다중응답으로 응답방식을 변경하여 주요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활동 선호도를 확인했다.
- 2022년에는 온라인 체험활동과 오프라인 체험활동에 대해 어떤활동을 더 선호하는지 확인한 결과, 먼저 온라인 체험활동의 경우 직업·체험 17.5% > 문화·예술 17.4% > 자기(인성)·개발 12.5% > 과학·정보 12.1% > 건강·보건 10.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직업체험 16.9% > 과학정보 16.1% > 문화·예술 14.0%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문화·예술 20.9% > 직업체험 18.0% > 자기(인성)개발 14.7% 순으로 집계되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직업체험 16.5% > 문화·예술 15.4% > 과학정보 15.2% 순, 중학교 직업체험 17.7% > 문화·예술 17.5% > 자기(인성)개발 12.5% 순, 고등학교는 문화·예술 19.5% > 직업체험 18.2% > 자기(인성)개발 14.3% 순으로 집계되었다. 문화·예술, 직업체험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한편 과학정보의 경우 중, 고등학교 대비 초등학교 학교급에서 높은 순위로 응답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인성)개발의 경우 초등학교보다는 중, 고등학교 학교급에서 높은 순위로 응답하였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 문화·예술 18.3% > 직업체험 17.6% > 자기(인성)개발 12.8% 순, 중원구 직업체험 20.4% > 문화·예술 16.6% > 과학정보 12.4% 순, 분당구 문화·예술 17.4% > 직업체험 16.6% > 자기(인성)개발 12.7% 순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거주구에서 직업체험, 문화·예술의 온라인 체험활동 선호도가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직업체험 18.9% > 문화·예술 17.3% > 과학정보 12.5% 순, 보통 문화·예술 17.8% > 직업체험 17.6% > 자기(인성)개발 13.3% 순, 좋은편 문화·예술 17.3% > 직업체험 16.9% > 자기(인성)개발 12.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문화·예술과 직업체험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온라인 체험활동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 직업체험 20.4% > 문화·예술 17.1% > 과학정보 14.0% 순, 보통 직업체험 17.7% > 문화·예술 16.3% > 자기(인성)개발 12.2% 순, 잘사는편 문화·예술 17.9% > 직업체험 17.2% > 자기(인성)개발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단위: %)

구분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 (인성) 개발	합계	
전체	10.5	12.1	7.7	10.0	17.4	7.1	17.5	5.2	12.5	100.0	
성별	남자	10.6	16.1	7.8	12.5	14.0	6.9	16.9	4.7	10.4	100.0
	여자	10.5	7.9	7.5	7.4	20.9	7.4	18.0	5.7	14.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4	15.2	7.6	10.8	15.4	6.3	16.5	6.9	10.9	100.0
	중학교	10.1	11.7	8.2	10.7	17.5	6.8	17.7	4.7	12.5	100.0
	고등학교	11.1	9.2	7.2	8.4	19.5	8.3	18.2	3.9	14.3	100.0
거주구	수정구	10.0	10.5	6.5	11.5	18.3	8.4	17.6	4.6	12.8	100.0
	중원구	11.3	12.4	7.6	8.3	16.6	7.6	20.4	3.9	11.8	100.0
	분당구	10.5	12.4	8.0	10.0	17.4	6.7	16.6	5.7	12.7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9.9	12.5	5.8	11.7	17.3	5.9	18.9	5.8	12.0	100.0
	보통	11.0	12.0	8.7	8.6	17.8	6.2	17.6	4.8	13.3	100.0
	좋은편	10.5	11.9	7.8	10.0	17.3	7.9	16.9	5.2	12.4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7.3	14.0	9.4	9.2	17.1	5.9	20.4	5.5	11.2	100.0
	보통	11.7	11.6	9.7	8.9	16.3	6.5	17.7	5.5	12.2	100.0
	잘사는편	10.3	12.1	6.8	10.4	17.9	7.5	17.2	5.1	12.8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 오프라인 체험활동은 직업체험 19.4% > 문화·예술 17.1% > 모험개척 14.5% > 봉사 10.6% > 과학정보 9.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직업체험 17.7% > 모험개척 16.7% > 과학정보 13.8%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직업체험 21.2% > 문화·예술 20.9% > 모험개척 12.3% = 봉사 12.3%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여자 모두 직업체험, 문화·예술활동을 오프라인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직업체험 20.5% > 문화·예술 15.7% > 모험개척 14.9% 순, 중학교는 직업체험 19.9% > 문화·예술 18.5% > 모험개척 15.4% 순, 고등학교는 직업체험 17.8% > 문화·예술 17.0% > 모험개척 13.3% 순으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오프라인 체험활동에 대해 직업체험, 문화·예술, 모험개척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 기준으로 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수정구 직업체험 20.8% > 문화·예술 16.0% > 모험개척 14.1% 순, 중원구 직업체험 20.2% > 문화·예술 18.8% > 모험개척 13.4% 순, 분당구 직업체험 18.9% > 문화·예술 16.9% > 모험개척 14.9% 순으로 집계되었고 모든 거주구에서 직업체험, 문화·예술, 모험개척활동 순으로 오프라인 체험활동이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의 경우 직업체험 20.0% > 문화·예술 18.1% > 모험개척 14.8% 순, 보통의 경우 직업체험 20.7% > 문화·예술 17.9% > 모험개척 14.8% 순, 좋은편 직업체험 18.7% > 문화·예술 16.4% > 모험개척 14.3% 순으로 나타나, 전 집단에서 직업체험, 문화·예술, 모험개척활동이 우선순위로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기준으로도 부족한편 직업체험 19.7% > 문화·예술 15.8% > 모험개척 12.8% 순, 보통 직업체험 20.2% > 문화·예술 17.3% > 모험개척 14.4% 순, 잘사는편 직업체험 19.1% > 문화·예술 17.1% > 모험개척 14.7%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모든 집단에서 직업체험, 문화·예술, 모험개척활동 순으로 오프라인 체험활동이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다고 응답할수록 자기(인성)개발 체험활동의 오프라인 형식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2〉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

(단위: %)

구분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 (인성) 개발	합계
	전체	7.2	9.8	7.2	14.5	17.1	10.6	19.4	5.8	8.3	100.0
성별	남자	7.8	13.8	7.1	16.7	13.4	8.9	17.7	6.4	8.3	100.0
	여자	6.6	5.8	7.3	12.3	20.9	12.3	21.2	5.3	8.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4	11.7	5.5	14.9	15.7	10.9	20.5	7.1	6.3	100.0
	중학교	5.4	10.2	7.2	15.4	18.5	9.8	19.9	5.2	8.4	100.0
	고등학교	8.8	7.6	8.9	13.3	17.0	11.0	17.8	5.2	10.3	100.0
가주구	수정구	6.8	11.0	5.0	14.1	16.0	11.0	20.8	5.0	10.4	100.0
	중원구	8.1	9.2	7.6	13.4	18.8	10.4	20.2	4.8	7.5	100.0
	분당구	7.1	9.7	7.7	14.9	16.9	10.5	18.9	6.3	8.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6.9	11.1	7.2	14.8	18.1	8.7	20.0	4.6	8.6	100.0
학교 성적	보통	6.9	8.8	6.3	14.8	17.9	9.5	20.7	4.7	10.2	100.0
	좋은편	7.4	9.8	7.6	14.3	16.4	11.6	18.7	6.8	7.4	100.0
주관적	부족한편	6.0	10.7	7.9	12.8	15.8	11.0	19.7	6.0	10.1	100.0
가정 경제 사정	보통	6.7	9.0	7.4	14.4	17.3	10.7	20.2	5.3	8.9	100.0
	잘사는편	7.4	10.1	7.1	14.7	17.1	10.5	19.1	6.1	8.0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6) 독서활동

- 성남시 청소년의 연간 독서량은 2020년 23.3권, 2022년 22.3권으로 2020년 대비 1.0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연간독서량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2020년 25.21권, 2022년 22.17권으로 3.04권 감소했고, 여자는 2020년 21.38권, 2022년 22.45권으로 1.07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여자(21.38권) 보다 남자(25.21권)의 연간독서량이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2022년에는 남자(22.17권)와 여자(22.45권)가 비슷한 연간독서량을 보였다.
- 학교급 기준으로 연간독서량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43.06권, 2022년 43.50권으로 비슷한 독서량을 보였고, 중학교는 2022년 17.12권, 2022년 19.76권으로 2020년 대비 2.64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13.12권, 2022년 5.90권으로 2020년 대비 7.22권 감소하여 큰 폭으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 연간독서량을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연간독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 기준으로 연간독서량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는 2020년 18.21권, 2022년 21.06권으로 2020년 대비 2.85권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14.74권, 2022년 16.45권으로 2020년 대비 1.71권 증가하였다. 한편 분당구는 2020년 27.20권, 2022년 24.17권으로 3.03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순으로 독서량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연간독서량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10.96권, 2022년 20.96권으로 2020년 대비 10.0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단의 경우 2020년 14.63권, 2022년 22.95권으로 8.32권 증가하였다, 한편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

었는데 2020년 33.41권, 2022년 22.44권으로 11.01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연간독서량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연간독서량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연간독서량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15.30권, 2022년 17.19권으로 1.89권 증가했고, 보통의 경우 2020년 14.54권, 2022년 20.52권으로 5.98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잘사는편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30.78권, 2022년 23.31권으로 7.47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연간독서량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3-3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연간독서량

(단위: 권)

구분			2020	2022	
전체			23.3	22.3	
성별	남자	25.21	5.173***	22.17	-.678
	여자	21.38		22.45	
학교급	초등학교 ^a	43.06	555.020*** (c<b<a)	43.50	3698.876*** (c<b<a)
	중학교 ^b	17.12		19.76	
	고등학교 ^c	13.12		5.90	
거주구	수정구 ^a	18.21	187.693*** (b<a<c)	21.06	135.046*** (b<a<c)
	중원구 ^b	14.74		16.45	
	분당구 ^c	27.20		24.17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10.96	447.359*** (a<b<c)	20.96	5.359** (a<c,b)
	보통 ^b	14.63		22.95	
	좋은편 ^c	33.41		22.44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15.30	285.274*** (b,a<c)	17.19	47.799*** (a<b<c)
	보통 ^b	14.54		20.52	
	잘사는편 ^c	30.78		23.31	

주: * $p<.05$, ** $p<.01$, *** $p<.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연도별 독서량 충분도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그렇지 않은편 39.6% > 그런편 34.4% > 보통 25.9%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은 그런편 38.6% > 그렇지 않은편 32.3% > 보통 29.1%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독서량 충분도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4.2% 증가하였다. 연도와 독서량 충분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도와 독서량 충분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과 관련하여서는 그런편 응답률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독서량 충분도에 대해 그런편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남자는 2020년 36.5%, 2022년 40.5%, 여자는 2020년 32.3%, 2022년 36.6%로 나타나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4.0% 이상 그런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과 독서량 충분도와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45.4%, 2022년 55.8%로 나타나 그런편 응답 비율이 10.4%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020년 34.7%, 2022년 36.3%로 나타나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25.0%, 2022년 24.1%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충분도에 대해 초등학교 집단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런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과 독서량 충분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24.6%, 2022년 30.7%로 집계되어 6.1%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25.8%, 2022년 34.4%로 2020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분당구는 2020년 39.5%, 2022년 41.7%로 집계되어 2020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거주구

의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분당구 39.5% > 중원구 25.8% > 수정구 24.6% 순, 2022년 분당구 41.7% > 중원구 34.4% > 수정구 30.7% 순으로 집계되었고, 분당구의 독서량의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이 타 거주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독서량 충분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거주구와 독서량 충분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른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16.8%, 2022년 37.9%로 나타나 2020년 대비 21.1% 증가하였고, 보통 2020년 19.9%, 2022년 39.2%로 집계되어 2020년 대비 19.3% 증가했다. 한편 좋은편의 경우 2020년 49.4%, 2022년 38.6%로 2020년 대비 10.8%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별 그런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좋은편 49.4% > 보통 19.9% > 안좋은편 16.8% 순, 2022년 보통 39.2% > 좋은편 38.6% > 안좋은편 37.9% 순으로 나타나 안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좋은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이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독서량 충분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20.7%, 2022년 38.0%로 17.3%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24.6%, 2022년 37.8%로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43.1%, 2022년 39.0%로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단별 독서량 충분도에 대한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잘사는편 43.1% > 보통 24.6% > 부족한편 20.7% 순, 2022년 잘사는편 39.0% > 부족한편 38.0% > 보통 37.8%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보통 또는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잘사는 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독서량 충분도의 그런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독서량 충분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독서량 충분도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39.6	25.9	34.4	100.0		32.3	29.1	38.6	100.0			
272.782***												
성별	남자	36.1	27.5	36.5	100.0	134.863	31.5	28.0	40.5	100.0	38.163	
	여자	43.4	24.3	32.3	100.0	***	33.2	30.2	36.6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24.0	30.6	45.4	100.0	1318.958	15.8	28.4	55.8	100.0	2236.092	
	중학교	41.6	23.6	34.7	100.0		33.0	30.7	36.3	100.0		***
	고등학교	51.0	24.0	25.0	100.0		47.8	28.1	24.1	100.0		
거주구	수정구	52.3	23.1	24.6	100.0	758.896	32.6	36.6	30.7	100.0	329.737	
	중원구	49.6	24.6	25.8	100.0		30.1	35.5	34.4	100.0		***
	분당구	33.5	27.0	39.5	100.0		32.8	25.4	41.7	100.0		
주관적	안좋은편	56.0	27.2	16.8	100.0	2759.602	38.7	23.4	37.9	100.0	120.545	
학교	보통	51.7	28.5	19.9	100.0		30.9	29.9	39.2	100.0		***
성적	좋은편	26.6	23.9	49.4	100.0		31.0	30.5	38.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60.0	19.3	20.7	100.0	1262.365	35.9	26.1	38.0	100.0	10.604	
가정	보통	49.1	26.3	24.6	100.0		32.3	30.0	37.8	100.0		*
경제 사정	잘사는편	30.6	26.3	43.1	100.0		32.1	28.9	39.0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연도별 독서 선호도의 경우 2020년 그런편 42.4% > 그렇지 않은편 29.6% > 보통 28.0% 순, 2022년 그런편 45.3% > 그렇지 않은편 28.2% > 보통 26.5%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의 비율이 2.9% 증가하였다. 연도와 독서 선호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별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2020년 38.8%, 2022년 42.9%로 4.1% 증가했고, 여자는 2020년 46.3%, 2022년 47.9%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여자 46.3% > 남자 38.8%, 2022년 여자 47.9% > 남자 42.9%로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독서 선호도에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

율이 높았다. 성별과 독서 선호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40.9%, 2022년 53.5%로 12.6% 증가했다. 한편, 중학교는 2020년 45.4%, 2022년 44.3%로 1.1%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2020년 41.2%, 2022년 38.2%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초등학교는 독서 선호도가 상승했지만 중, 고등학교는 독서 선호도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중학교 45.4% > 고등학교 41.2% > 초등학교 40.9% 순, 2022년 초등학교 53.5% > 중학교 44.3% > 고등학교 38.2%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거주구별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28.8%, 2022년 43.5%로 14.7% 상승하였고, 중원구 2020년 30.9%, 2022년 33.4%로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당구의 경우 2020년 49.3%, 2022년 48.9%로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거주구별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분당구 49.3% > 중원구 30.9% > 수정구 28.8% 순, 2022년 분당구 48.9% > 수정구 43.5% > 중원구 33.4%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또는 중원구 보다 분당구가 독서 선호도 그런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구와 독서 선호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독서 선호도의 그런편을 분석한 결과 안좋은편 2020년 26.4%, 2022년 45.5%로 19.1%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33.0%, 2022년 49.0%로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편의 경우 2020년 53.9%, 2022년 43.6%로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독서 선호도 그런편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좋은편 53.9% > 보통 33.0% > 안좋은편 26.4%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 보통 49.0% > 안좋은편 45.5% > 좋은편 43.6%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독서 선호도 그런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29.5%, 2022년 53.0%로 23.5% 증가하였고, 보통의 경우 2020년 33.2%, 2022년 43.1%로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50.6%, 2022년 45.6%로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독서 선호도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잘사는편 50.6% > 보통 33.2% > 부족한편 29.5% 순, 2022년에는 부족한편 53.0% > 잘사는편 45.6% > 보통 43.1% 순으로 나타나 2020년에는 잘사는편의 독서 선호도 그런편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의 독서 선호도 그런편 비율이 더 높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독서 선호도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29.6	28.0	42.4	100.0	28.2	26.5	45.3	100.0		
38.503***										
성별	남자	33.3	27.9	38.8	100.0	28.2	28.9	42.9	100.0	85.901
	여자	25.6	28.1	46.3	100.0	28.2	23.9	47.9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29.5	29.6	40.9	100.0	23.9	22.6	53.5	100.0	378.576
	중학교	28.3	26.3	45.4	100.0	27.7	28.0	44.3	100.0	
	고등학교	30.7	28.1	41.2	100.0	33.0	28.8	38.2	100.0	
	수정구	40.3	30.8	28.8	100.0	27.0	29.5	43.5	100.0	
거주구	중원구	37.5	31.6	30.9	100.0	32.7	33.9	33.4	100.0	340.842
	분당구	24.5	26.2	49.3	100.0	27.3	23.8	48.9	100.0	**
	안중은편	46.3	27.3	26.4	100.0	34.0	20.5	45.5	100.0	178.277
학교	보통	34.2	32.9	33.0	100.0	25.9	25.1	49.0	100.0	
성적	좋은편	20.7	25.4	53.9	100.0	27.4	29.0	43.6	100.0	***
주관적	부족한편	50.8	19.7	29.5	100.0	28.1	19.0	53.0	100.0	126.322
가정	보통	34.9	31.8	33.2	100.0	25.5	31.4	43.1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23.4	26.0	50.6	100.0	29.2	25.2	45.6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7) 온라인활동

- 연도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의 온라인활동 실태를 확인하였다. 많이 하는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커뮤니케이션/소통의 경우 2020년 52.9%, 2022년 57.6%로 2020년 대비 4.7% 증가했다. 자료 및 정보 탐색은 2020년 44.5%, 2022년 52.1%로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가활동은 2020년 74.7%, 2022년 80.8%로 6.1% 증가하였고, 크리에이터 활동의 경우도 2020년 19.1%, 2022년 23.9%로 2020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한편 교육/학습의 경우 2020년 51.0%, 2022년 48.4%로 2020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종합해보면 커뮤니케이션/소통, 자료 및 정보 탐색, 여가활동, 크리에이터 활동은 2020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교육/학습의 경우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온라인활동 실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활동이 연도와 온라인활동 실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6〉 연도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

(단위: %)

구분	2020				2022			
	하지 않은편	보통	많이 하는편	합계	하지 않은편	보통	많이 하는편	합계
커뮤니케이션/소통	22.3	24.8	52.9	100.0	22.3	20.1	57.6	100.0
	163.265***							
자료 및 정보 탐색	25.5	30.0	44.5	100.0	20.0	27.9	52.1	100.0
	316.055***							
여가활동	7.1	18.3	74.7	100.0	4.5	14.6	80.8	100.0
	283.611***							
교육/학습	17.9	31.1	51.0	100.0	23.2	28.4	48.4	100.0
	207.486***							
크리에이터 활동	64.6	16.3	19.1	100.0	60.9	15.3	23.9	100.0
	160.692***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각 활동별로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를 확인하였다. 주요변인 간의 온라인활동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 기반으로 각 집단의 평균 점수를 구했다.
- 먼저 커뮤니케이션/소통의 경우 2020년 3.43점, 2022년 3.55점으로 2020년 대비 0.1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 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2020년 3.24점, 2022년 3.34점으로 0.10점 증가했고, 여자 2020년 3.64점, 2022년 3.77점으로 0.13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커뮤니케이션/소통 온라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온라인활동 실태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 보다 여자의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별로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2.87점, 2022년 2.93점이었고, 중학교는 2020년 3.55점, 2022년 3.75점, 고등학교는 2020년 3.80점, 2022년 3.95점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학교급이 2020년 대비 2022년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별로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는 2020년 3.72점, 2022년 3.75점, 중원구 2020년 3.52점, 2022년 3.71점, 분당구 2020년 3.33점, 2022년 3.48점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거주구가 2020년 대비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 세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에는 수정구 3.72점 > 중원구 3.52점 > 분당구 3.33점이었고, 2022년에는 중원구 3.71점 > 수정구 3.64점 > 분당구 3.48점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분당구의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가 타 거주구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 평균 차이는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거주구 간 서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 점수를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 2020년 3.90점, 2022년 3.58점으로 0.32점 감소했고, 보통 2020년 3.50점, 2022년 3.47점으로 0.03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3.22점 2022년 3.57점으로 0.3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 성적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 활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보통 집단보다 안좋은편의 커뮤니케이션/소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 점수를 살펴 본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3.97점, 2022년 3.42점으로 0.55점 감소했고, 보통은 2020년 3.51점, 2022년 3.64점으로 0.13점 증가했다. 한편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3.32점, 2022년 3.52점으로 0.2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2020년에는 부족한편 3.97점 > 보통 3.51점 > 잘사는편 3.32점 이었고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2022년은 2020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보통 3.64점 > 잘사는편 3.52점 > 부족한편 3.42점 순으로 나타나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소통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3-37〉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커뮤니케이션/소통)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3.43	3.55
성별	남자	3.24	-23.594***	3.34
	여자	3.64		3.77
학교급	초등학교 ^a	2.87	1025.185*** (a<b<c)	2.93
	중학교 ^b	3.55		3.75
	고등학교 ^c	3.80		3.95
거주구	수정구 ^a	3.72	172.190*** (c<b<a)	3.64
	중원구 ^b	3.52		3.71
	분당구 ^c	3.33		3.48

구분		2020	2022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90	3.58
	보통 ^b	3.50	3.47
	좋은편 ^c	3.22	3.57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97	3.42
	보통 ^b	3.51	3.64
	잘사는편 ^c	3.32	3.52

주: * $p<.05$, ** $p<.01$, *** $p<.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자료 및 정보탐색 활동은 2020년 3.22점, 2022년 3.44점으로 2020년 대비 0.22점 증가하였다.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라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 기준으로 남자는 2020년 3.14점, 2022년 3.47점으로 0.33점 증가하였고, 여자는 2020년 3.31년, 2022년 3.42점으로 0.1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2년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2020년에는 여자 3.31점 > 남자 3.14점으로 여자의 점수가 높았다면, 2022년에는 남자 3.47점 > 여자 3.42점으로 남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 학교급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2.68점, 2022년 3.05점으로 0.37점 상승하였고, 중학교는 2020년 3.42점, 2022년 3.61점으로 0.19점 상승하였다. 고등학교는 2020년 3.51점, 2022년 3.67점으로 0.16점 상승하였다. 모든 학교급이 2020년 대비 자료 및 정보탐색 결과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급별로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고등학교 3.51점 > 중학교 3.42점 > 초등학교 2.68점 순이었다. 2022년 고등학교 3.67점 > 중학교 3.61점 > 초등학교 3.05점 순이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거주구를 기준으로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는 2020년 3.22점, 2022년 3.49점으로 0.27점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3.10점, 2022년 3.47점, 0.37점 증가하였다. 분당구는 2020년 3.26점, 2022년 3.44점으로 0.18점 증가

했다.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에 대해 모든 거주구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별로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분당구 3.26점 > 수정구 3.22점 > 중원구 3.10점 순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중원구와 수정구, 분당구 간의 점수가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수정구 3.47점 > 중원구 3.44점 = 분당구 3.44점으로 나타나 수정구의 자료 및 정보탐색의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은 2020년 3.26점, 2022년 3.49점으로 0.23점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3.18점, 2022년 3.43점으로 2020년 대비 0.25점 증가했다. 좋은편은 2020년 3.24점, 2022년 3.43점으로 0.19점 했다. 모든 집단이 2020년 대비 자료 및 정보탐색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점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안좋은편 3.26점 > 좋은편 3.24점 > 보통 3.18점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 안좋은편 3.49점 > 보통 3.43점 = 좋은편 3.43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안좋은편의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의 연도별 자료 및 정보 탐색 점수는 부족한편 2020년 3.51점, 2022년 3.48점으로 0.03점 감소했고, 보통은 2020년 3.14점, 2022년 3.53점으로 2020년 대비 0.39점 증가했다. 잘사는편은 2020년 3.26점, 2022년 3.41점으로 0.15점 증가했다. 따라서 2020년 대비 보통, 잘사는편의 자료 및 정보 탐색 점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에는 부족한편 3.51점 > 잘사는편 3.26점 > 보통 3.14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점수 양상이 달랐는데, 보통 3.53점 > 부족한편 3.48점 > 잘사는편 3.41점 순으로 보고되어 잘사는편보다 보통 집단의 자료 및 정보 탐색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3-38〉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자료 및 정보탐색)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3.22	3.44
성별	남자	3.14	3.47
	여자	3.31	3.42
학교급	초등학교 ^a	2.68	3.05
	중학교 ^b	3.42	3.61
	고등학교 ^c	3.51	3.67
거주구	수정구 ^a	3.22	3.47
	중원구 ^b	3.10	3.44
	분당구 ^c	3.26	3.44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26	3.49
	보통 ^b	3.18	3.43
	좋은편 ^c	3.24	3.43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51	3.48
	보통 ^b	3.14	3.53
	잘사는편 ^c	3.26	3.41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온라인활동 실태 중 여가활동의 경우 2020년 4.02점, 2022년 4.19점으로 2020년 대비 0.1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점수를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는 2020년 4.07점, 2022년 4.16점으로 0.09점 증가했고, 여자는 2020년 3.96점, 2022년 4.23점으로 0.27점 증가하여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여가활동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간의 차이는 2020년은 남자 4.07점, 여자 3.96점으로 남자가 더 높았다면 2022년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 4.16점, 여자 4.23점으로 여자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집단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온라인활동 실태 중 여가활동 점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3.94점, 2022년 4.04점으로 0.1점 상승했고, 중학교 2020년 4.00점, 2022년 4.29점으로 0.29점 증가했

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4.09점, 2022년 4.24점으로 0.15점 증가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은 고등학교 4.09점 > 중학교 4.00점 > 초등학교 3.94점 순, 2022년은 중학교 4.29점 > 고등학교 4.24점 > 초등학교 4.04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초등학교 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의 여가활동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는 2020년 4.21점, 2022년 4.31점으로 0.10점 상승했고, 증원구는 2020년 4.15점, 2022년 4.20점으로 0.05점 상승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3.93점, 2022년 4.16점으로 0.2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분당구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수정구 4.21점 > 증원구 4.15점 > 분당구 3.93점 순, 2022년 수정구 4.31점 > 증원구 4.20점 > 분당구 4.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증원구 또는 분당구 보다는 수정구의 여가활동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 성적 기준으로는 안좋은편은 2020년, 2022년 모두 4.25점으로 점수에 변화가 없었고, 보통의 경우 2020년 3.89점, 2022년 4.23점으로 0.34점 증가하였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4.00점, 2022년 4.16점으로 0.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안좋은편 4.25점 > 좋은편 4.00점 > 보통 3.89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한편 2022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안좋은편 4.25점 > 보통 4.23점 > 좋은편 4.16점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좋은편 보다 보통, 안좋은편의 여가활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 2020년 4.38점, 2022년 4.28점으로 0.10점 감소했고, 보통은 2020년 4.02점, 2022년 4.17점으로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3.98점, 2022년 4.19점으로 0.21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부족한편 4.38점 > 보통 4.02점 > 잘사는편 3.98점 순, 2022년 부족한편 4.28점 > 잘사는편 4.19점 > 보통 4.17점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2020년, 2022년 모두 보통 또는 잘사는편 보다 부족한편의 여가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표 3-3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여가활동)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4.02	4.19
성별	남자	4.07	4.16
	여자	3.96	4.23
학교급	초등학교 ^a	3.94	4.04
	중학교 ^b	4.00	4.29
	고등학교 ^c	4.09	4.24
거주구	수정구 ^a	4.21	4.31
	중원구 ^b	4.15	4.20
	분당구 ^c	3.93	4.16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4.25	4.25
	보통 ^b	3.89	4.23
	좋은편 ^c	4.00	4.16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4.38	4.28
	보통 ^b	4.02	4.17
	잘사는편 ^c	3.98	4.19

주: * $p<.05$, ** $p<.01$, *** $p<.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온라인활동 실태 중 교육/학습 점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3.50 점, 2022년 3.34점으로 2020년 대비 0.1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는 2020년 3.44점, 2022년 3.28점으로 0.16점 감소하였고, 여자는 2020년 3.58점, 2022년 3.48점으로 0.18점 감소했다.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여자 3.58점 > 남자 3.44점, 2022년 여자 3.40점 > 남자 3.28점으로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3.58점, 2022년 3.08점으로 0.50점 감소했고, 중학교는 2020년, 2022년 모두 3.45점으로 집계되었다. 고등학교는 2020년 3.49점, 2022년 3.48점으로 0.01점 감소했다. 집단간 점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2020년의 경우 초등학교 3.58점 > 고등학교 3.49점 > 중학교 3.45점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2022년에는 고등학교 3.48점 > 중학교 3.45점 > 초등학교 3.08점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 중심으로는 수정구 2020년 3.25점, 2022년 3.23점으로 0.02점 감소했고, 중원구는 2020년 3.37점, 2022년 3.32점으로 0.05점 감소했다. 분당구는 2020년 3.61점, 2022년 3.37점으로 0.24점 감소했다. 모든 거주구 집단에서 감소 양상을 보였고, 분당구가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집단간 점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분당구 3.61점 > 중원구 3.37점 > 수정구 3.25점 순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 분당구 3.37점 > 중원구 3.32점 > 수정구 3.23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모두 수정구 보다 중원구, 분당구의 교육/학습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 2020년 3.18점, 2022년 3.24점으로 0.06점 상승했고, 보통 2020년 3.42점, 2022년 3.35점으로 0.07점 감소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3.67점, 2022년 3.36점으로 0.31점 감소했다. 집단간 점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좋은편 3.67점 > 보통 3.42점 > 안좋은편 3.18점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좋은편 3.36점 > 보통 3.35점 > 안좋은편 3.24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교육/학습 점수에 대해서는 안좋은편 보다 보통 또는 좋은편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3.20점, 2022년 3.18점으로 0.02점 감소했고, 보통은 2020년 3.35점, 2022년 3.36점으로 0.01점 증가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3.65점, 2022년 3.34점으로 0.31점 감소했다. 잘사는편의 교육/학습 점수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점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잘사는편 3.65점 > 보통 3.35점 > 부족한편 3.20점 순, 2022년 보통 3.36점 > 잘사는편 3.34점 > 부족한편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부족한편 보다는 보통 또는 잘사는편의 교육/학습 점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표 3-4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교육/학습)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3.50	3.34
성별	남자	3.44	3.28
	여자	3.58	3.40
학교급	초등학교 ^a	3.58	3.08
	중학교 ^b	3.45	3.45
	고등학교 ^c	3.49	3.48
거주구	수정구 ^a	3.25	3.23
	중원구 ^b	3.37	3.32
	분당구 ^c	3.61	3.37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3.18	3.24
	보통 ^b	3.42	3.35
	좋은편 ^c	3.67	3.36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a	3.20	3.18
	보통 ^b	3.35	3.36
	잘사는편 ^c	3.65	3.34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온라인활동 실태 중 크리에이터 활동 점수의 경우 2020년 2.10점, 2022년 2.29점으로 2020년 대비 0.19점 상승했다. 주요변인 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2020년 2.16점, 2022년 2.22점으로

0.06점 상승했고 여자는 2020년 2.04점, 2022년 2.37점으로 0.33점 증가했다. 각 집단의 점수 비교한 결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2020년 남자 2.16점 > 여자 2.04점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2년에는 여자 2.37점 > 남자 2.22점으로 여자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1.88점, 2022년 2.06점으로 0.18점 상승했고, 중학교는 2020년 2.16점, 2022년 2.21점으로 0.05점 상승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2.24점, 2022년 2.61점으로 0.37점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크리에이터 활동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20년 고등학교 2.24점 > 중학교 2.16점 > 초등학교 1.88점 순, 2022년 고등학교 2.61점 > 중학교 2.21점 > 초등학교 2.0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 2022년 모두 타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의 크리에이터 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2.24점, 2022년 2.33점으로 0.09점 증가했고, 중원구 2020년 2.17점, 2022년 2.32점으로 0.15점 증가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2.05점, 2022년 2.28점으로 0.23점 증가했다. 모든 거주구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고, 분당구의 점수가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집단간 비교를 위해 점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수정구 2.24점 > 중원구 2.17점 > 분당구 2.05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2022년에는 수정구 2.33점 > 중원구 2.32점 > 분당구 2.28점 순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 2020년 2.32점, 2022년 2.26점으로 0.06점 감소했고, 보통 2020년 2.20점, 2022년 2.24점으로 0.04점 증가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1.97점, 2022년 2.32점으로 0.35점 증가했다. 주관적 학교성적에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폭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안좋은편 2.32점 > 보통 2.20점 > 좋은편 1.97점 순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안좋은편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22년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좋은편 2.32점 > 안좋은편 2.26점 > 보통 2.24점 순으로 집계되어 좋은편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2.34점, 2022년 2.42점으로 0.08점 증가했고, 보통 2020년 2.09점, 2022년 2.32점으로 0.23점 증가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2.09점, 2022년 2.28점으로 0.1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부족한편 2.34점 > 보통 2.09점 = 잘사는편 2.09점 순으로 보통 또는 잘사는편보다 부족한편의 점수가 더 높았다. 2022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부족한편 2.42점 > 보통 2.32점 > 잘사는편 2.28점 순으로 부족한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2020년, 2022년 모두 부족한편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3-4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활동 실태(크리에이터 활동)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20	2022
전체			2.10	2.29
성별	남자	2.16	7.046***	2.22
	여자	2.04		2.37
학교급	초등학교 ^a	1.88	155.153*** (a<b<c)	2.06
	중학교 ^b	2.16		2.21
	고등학교 ^c	2.24		2.61
거주구	수정구 ^a	2.24	36.456*** (c<b<a)	2.33
	중원구 ^b	2.17		2.32
	분당구 ^c	2.05		2.28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a	2.32	125.312 (c<b<a)	2.26
	보통 ^b	2.20		2.24
	좋은편 ^c	1.97		2.32

구분			2020	2022
주관적 가정	부족한편 ^a	2.34	17.233*** (c,b<a)	2.42
	보통 ^b	2.09		2.32
경제				5.721**
사정	잘사는편 ^c	2.09		2.28
				(c,b<a)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학교급 독립표본 t -검증, 거주구·주관적 학교성적·주관적 가정경제사정: 일원배치분산분석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이용 서비스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에는 유튜브 35.8% > 네이버 13.9% > 카카오톡 13.1% > 구글 9.8% > 페이스북 5.8%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유튜브 28.7% > 카카오톡 16.6% > 네이버 13.6% > 구글 9.4% > 인스타그램 9.0% 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높은 분포율을 보인 반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2020년 보다 3.4% 상승하여 페이스북의 이용 서비스 분포율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대체로 유튜브 이용 비율은 2020년 30%대에서 20%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SNS와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2020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 2020년부터 온라인 이용 서비스에 관해 주요변인별 비교한 결과 남자는 유튜브 39.4% > 구글 13.4% > 네이버 12.5% > 카카오톡 10.4% > 페이스북 6.9% 순, 여자는 유튜브 32.2% > 카카오톡 15.8% > 네이버 15.4% > 인스타그램 9.0% > 구글 6.1%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유튜브,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이 주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었고, SNS는 남자는 페이스북, 여자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남자 유튜브 31.2% > 카카오톡 16.4% > 네이버 12.7% > 구글 12.4% > 인스타그램 6.7% 순, 여자는 유튜브 26.1% > 카카오톡 16.8% > 네이버 14.5% > 인스타그램 11.4% > 구글 6.2% = 인스타그램 DM 6.2% 순으로 나타나 2022년에는 남자, 여자 모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의 사용도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 온라인 이용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2020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유튜브 35.6% > 카카오톡 18.2% > 네이버 17.7%

> 구글 9.7% > 넷플릭스 4.8% 순, 중학교는 유튜브 33.1% > 네이버 12.5% > 카카오톡 12.1% > 구글 10.1% > 페이스북 8.7% 순이었다. 고등학교는 유튜브 38.3% > 네이버 12.2% > 인스타그램 10.2% > 카카오톡 10.1%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초등학교 유튜브 29.6% > 네이버 19.0% > 카카오톡 17.1% > 구글 12.4% > 넷플릭스 7.4% 순, 중학교 유튜브 27.7% > 카카오톡 18.9% > 인스타그램 11.0% > 네이버 10.5% > 구글 9.2%, 고등학교 유튜브 28.9% > 카카오톡 13.7% > 인스타그램 12.7% > 네이버 11.7% > 인스타그램DM 9.3%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은 지속해서 높은 사용 비율이 집계되었다. 한편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사용 비율이 높고, 틱톡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용 비율이 높은 것 또한 2020년, 2022년 모두 유사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급에서 지속해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별로 온라인 이용 서비스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수정구 유튜브 32.6% > 카카오톡 15.6% > 네이버 11.3% > 페이스북 8.8% > 틱톡 6.4% 순, 중원구 유튜브 38.0% > 카카오톡 14.0% > 네이버 13.3% > 페이스북 7.2% > 구글 5.0% 순, 분당구 유튜브 36.1% > 네이버 14.8% > 구글 12.3% > 카카오톡 12.2% > 인스타그램 6.1% 순이었다. 2022년에는 수정구 유튜브 29.8% > 카카오톡 17.4% > 구글 9.8% > 네이버 9.6% 인스타그램 7.9% 순, 중원구 유튜브 28.9% > 카카오톡 16.8% > 네이버 13.5% > 인스타그램 8.1% > 틱톡 6.6% 순, 분당구 유튜브 28.4% > 카카오톡 16.3% > 네이버 14.6% > 구글 10.2% > 인스타그램 9.6%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든 거주구에서 유튜브, 카카오톡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온라인 이용서비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안좋은편 유튜브 37.6% > 네이버 11.2% = 구글 11.2% > 카카오톡 10.5% > 인스타그램 5.3% > 페이스북 메신저 4.2% 순, 보통 유튜브 34.6% > 네이버 13.7% > 카카오톡 12.0% > 구글 9.1% > 인스타그램 7.1% 순, 좋은편 유튜브

35.9% > 네이버 15.1% > 카카오톡 14.7% > 구글 9.6% > 인스타그램 4.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는 안좋은편 유튜브 28.7% > 카카오톡 19.9% > 네이버 13.6% > 구글 10.3% > 인스타그램 순, 보통 유튜브 29.0% > 카카오톡 17.0% > 네이버 13.8% > 구글 9.7% > 인스타그램 9.2% 순, 좋은편 유튜브 28.6% > 카카오톡 15.3% > 네이버 13.6% > 인스타그램 9.5% > 구글 9.0% 순으로 보고되었다. 유튜브, 구글, 카카오톡, 네이버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서비스로 집계되었다. 한편 페이스북의 경우 2022년에 들어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인스타그램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인스타그램 사용 비율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성적이 안좋을수록 사용 비율이 높았다면, 2022년에는 성적이 좋을수록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이와 반대로 2020년에는 성적이 높을수록 사용비율이 높았는데, 2022년에는 성적이 낮을수록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마지막으로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 이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부족한편 유튜브 36.6% > 카카오톡 16.3% > 페이스북 8.0% > 구글 7.6% > 네이버 7.5% 순, 보통 유튜브 36.7% > 카카오톡 13.3% > 네이버 12.2% > 구글 8.8% > 페이스북 7.0% 순, 잘사는편 유튜브 35.1% > 네이버 15.8% > 카카오톡 12.6% > 구글 10.7% > 인스타그램 6.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는 부족한편 유튜브 26.7% > 카카오톡 20.0% > 네이버 14.0% > 구글 10.8% > 인스타그램 7.7% 순, 보통 유튜브 30.4% > 카카오톡 18.1% > 네이버 13.4% > 구글 9.1% > 인스타그램 8.4% 순, 잘사는 편은 유튜브 28.2% > 카카오톡 15.8% > 네이버 13.6% > 구글 9.4% > 인스타그램 9.3% 순으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도 연도와 관계없이 대체로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사용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페이스북 이용비율은 2020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2020년, 2022년 모두 부족한편 보다는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집단의 이용률이 소폭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이용 서비스

(단위: %)

구분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	네이버 TV	V 라이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틱톡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 그램 DM	합계	
2020	13.9	9.8	0.2	35.8	0.3	0.6	2.0	0.4	3.0	5.8	5.6	1.8	2.3	0.7	13.1	3.6	0.8	100.0	
성별	남자	12.5	13.4	0.4	39.4	0.4	0.3	3.6	0.7	2.9	6.9	2.3	0.3	1.1	0.9	10.4	3.8	0.7	100.0
	여자	15.4	6.1	0.1	32.2	0.3	0.9	0.3	0.1	3.2	4.7	9.0	3.4	3.5	0.5	15.8	3.5	1.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7.7	9.7	0.5	35.6	0.9	1.0	1.2	0.1	4.8	2.3	1.4	0.3	4.3	0.7	18.2	1.2	0.2	100.0
	중학교	12.5	10.1	0.2	33.1	0.1	0.7	2.6	0.4	2.4	8.7	4.0	1.9	2.8	1.4	12.1	6.2	0.7	100.0
	고등학교	12.2	9.6	0.1	38.3	0.1	0.3	2.1	0.6	2.2	6.0	10.2	2.9	0.4	0.0	10.1	3.4	1.4	100.0
거주구	수정구	11.3	5.4	0.0	32.6	0.8	0.4	2.6	0.1	1.9	8.8	4.9	1.8	6.4	2.2	15.6	5.1	0.1	100.0
	중원구	13.3	5.0	0.2	38.0	0.7	0.3	2.3	1.4	2.3	7.2	4.8	1.4	3.1	0.4	14.0	4.2	1.4	100.0
	분당구	14.8	12.3	0.3	36.1	0.1	0.8	1.7	0.2	3.6	4.6	6.1	2.0	1.0	0.4	12.2	3.1	0.9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1.2	11.2	0.2	37.6	0.2	0.3	2.4	1.0	3.0	7.8	5.3	1.7	1.2	0.5	10.5	4.2	1.7	100.0
	보통	13.7	9.1	0.0	34.6	0.4	0.5	2.4	0.2	2.2	6.7	7.1	2.5	3.3	0.5	12.0	4.4	0.6	100.0
	좋은편	15.1	9.6	0.4	35.9	0.4	0.8	1.6	0.3	3.6	4.5	4.9	1.5	2.2	0.9	14.7	3.0	0.7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7.5	7.6	0.0	36.6	0.0	0.3	2.6	1.1	1.3	8.0	6.0	6.0	0.9	0.0	16.3	4.6	1.0	100.0
	보통	12.2	8.8	0.1	36.7	0.4	0.9	2.6	0.2	2.6	7.0	4.0	1.6	3.1	1.0	13.3	4.5	0.9	100.0
	잘사는편	15.8	10.7	0.4	35.1	0.3	0.5	1.4	0.4	3.6	4.7	6.8	1.6	1.9	0.5	12.6	2.9	0.8	100.0

구분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	네이버 TV	V 라이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틱톡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 그램 DM	합계	
2022	13.6	9.4	0.4	28.7	0.4	0.3	1.8	0.4	5.0	2.1	9.0	1.8	3.6	1.1	16.6	0.6	5.1	100.0	
성별	남자	12.7	12.4	0.4	31.2	0.6	0.2	3.0	0.7	4.0	2.8	6.7	0.7	2.4	1.2	16.4	0.3	4.1	100.0
	여자	14.5	6.2	0.5	26.1	0.2	0.4	0.4	0.0	6.0	1.4	11.4	2.9	4.8	1.1	16.8	1.0	6.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9.0	12.4	0.8	29.6	0.3	0.0	1.0	0.5	7.4	0.5	2.9	0.4	4.8	2.7	17.1	0.2	0.4	100.0
	중학교	10.5	9.2	0.3	27.7	0.2	0.6	1.9	0.3	3.4	3.8	11.0	1.8	3.4	0.6	18.9	1.0	5.4	100.0
	고등학교	11.7	6.7	0.3	28.9	0.7	0.3	2.3	0.3	4.4	1.9	12.7	3.2	2.8	0.3	13.7	0.7	9.3	100.0
거주구	수정구	9.6	9.8	0.4	29.8	0.1	0.0	3.0	1.0	4.2	3.4	7.9	2.5	5.6	0.5	17.4	0.5	4.3	100.0
	중원구	13.5	6.1	0.3	28.9	0.8	0.6	2.2	0.4	4.2	4.0	8.1	2.1	6.6	0.8	16.8	1.8	2.8	100.0
	분당구	14.6	10.2	0.5	28.4	0.4	0.3	1.3	0.2	5.4	1.3	9.6	1.6	2.3	1.4	16.3	0.4	6.0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3.6	10.3	0.1	28.7	0.3	0.1	0.8	0.3	4.9	3.3	7.1	1.4	3.0	0.4	19.9	0.5	5.3	100.0
	보통	13.8	9.7	0.4	29.0	0.2	0.2	2.2	0.0	4.6	1.3	9.2	1.6	3.4	0.9	17.0	0.5	6.0	100.0
	좋은편	13.6	9.0	0.6	28.6	0.5	0.4	1.9	0.5	5.2	2.1	9.5	2.0	3.9	1.5	15.3	0.7	4.7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14.0	10.8	0.0	26.7	0.0	0.0	2.8	0.9	4.1	0.9	7.7	2.4	3.2	1.4	20.0	1.1	3.9	100.0
	보통	13.4	9.1	0.4	30.4	0.2	0.2	1.5	0.1	4.9	2.6	8.4	1.5	2.2	1.4	18.1	0.4	5.2	100.0
	잘사는편	13.6	9.4	0.5	28.2	0.5	0.3	1.8	0.4	5.1	2.0	9.3	1.9	4.1	1.0	15.8	0.7	5.2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 주요변인간의 온라인 부정적 경험 실태를 비교하였다. 온라인 부정적 경험실태는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 영역을 나누어 조사했다.
- 먼저 온라인 부정적 경험 실태 중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의 경우 2020년 보통 7.8%, 그런편 5.0%였고, 2022년에는 보통 11.4%, 그런편 6.3%로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에 대해 그런편의 비율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온라인 부정적 경험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체적으로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폈다. 그 결과 남자는 2020년 6.5%, 2022년 6.2%로 0.3% 소폭 하락한 반면, 여자는 2020년 3.4%, 2022년 6.4%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남자의 응답 비율이, 2022년에는 여자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별과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실태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학교급 기준으로 그런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2.7%, 2022년 2.6%로 2020년과 2022년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중학교의 경우 2020년 5.6%, 2022년 6.9%로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6.4%, 2022년 9.2%로 2.8% 증가했다.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의 비율이 더 높았고,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는 비율 또한 더 높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과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 중심으로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5.4%, 2022년 7.4%로 2020년 대비 2.0% 증가했고, 중원구는 2020년 5.0%, 2022년 6.4%로 1.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4.9%, 2022년 6.0%로 2020년 대

비 1.1% 증가했다. 거주구간 그런편의 연도별 비율은 수정구 5.4% > 중원구 5.0% > 분당구 4.9% 순, 2022년 그런편 7.4% > 중원구 6.4% > 분당구 6.0% 순으로 보고되어 수정구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거주구와 온라인 부정적 경험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실태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8.7%, 2022년 4.9%로 3.8% 감소했으나, 보통과 좋은편의 경우 2020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통은 2020년 4.7%, 2022년 6.4%로 1.7% 증가했고, 좋은편은 2020년 3.8%, 2022년 6.6%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주관적 학교성적간의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20년은 안좋은편 8.7% > 보통 4.7% > 좋은편 3.8%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좋은편 6.6% > 보통 6.4% > 안좋은편 4.9%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 2022년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020년, 2022년 모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 2020년 15.2%, 2022년 8.0%로 7.2% 감소했고, 보통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4.8%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4.1%, 2022년 6.7%로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간의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15.2% > 보통 4.8% > 잘사는편 4.1%순, 2022년 부족한편 8.0% > 잘사는편 6.7% > 보통 4.8% 순으로 나타나 보통 또는 잘사는편 보다 부족한편의 그런편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 집단과 온라인 부정적 경험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실태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타인비방, 사생활 유출)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87.3	7.8	5.0	100.0		82.3	11.4	6.3	100.0			
234.172***												
성별	남자	84.9	8.6	6.5	100.0	154.722	81.9	11.9	6.2	100.0	6.504	
	여자	89.8	6.8	3.4	100.0	***	82.8	10.9	6.4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94.1	3.2	2.7	100.0	525.209	90.7	6.7	2.6	100.0	708.496	
	중학교	86.4	8.0	5.6	100.0		82.0	11.2	6.9	100.0		***
	고등학교	82.3	11.3	6.4	100.0		74.4	16.4	9.2	100.0		
거주구	수정구	84.7	9.9	5.4	100.0	44.318	79.8	12.8	7.4	100.0	23.203	
	중원구	86.5	8.5	5.0	100.0		82.9	10.7	6.4	100.0		***
	분당구	88.1	7.0	4.9	100.0		82.8	11.3	6.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80.2	11.1	8.7	100.0	393.715	84.6	10.5	4.9	100.0	38.226	
학교	보통	85.6	9.7	4.7	100.0		80.6	13.0	6.4	100.0		***
성적	좋은편	90.8	5.4	3.8	100.0		82.3	11.0	6.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62.5	22.3	15.2	100.0		81.4	10.6	8.0	100.0		
가정	보통	85.4	9.8	4.8	100.0	979.681	82.7	12.5	4.8	100.0	36.299	
경제 사정						***					***	
	잘사는편	91.1	4.7	4.1	100.0		82.2	11.1	6.7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연도에 따라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실태를 확인하였다. 2020년에는 그렇지않은편 86.9% > 보통 6.9% > 그런편 6.2% 순, 2022년 그렇지않은편 82.4% > 보통 9.1% > 그런편 8.5% 순으로 나타나 2020년 대비 보통은 2.2%, 그런편은 2.3% 증가하였다. 연도와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실태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변인 기준으로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에 대해 그런편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 2020년 5.8%, 2022년 7.9%로 2.1% 증가했고, 여자 2020년 6.6%, 2022년 9.1%로 2.5% 증가했다.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2022년에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이 증가했다고 인지했다. 성별간 그런편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20년은 여자 6.6% > 남자 5.8% 순이

었고, 2022년은 여자 9.1% > 남자 7.9%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에 대해 더 그런편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실태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학교급 기준으로 연도별 그런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2.6%, 2022년 5.2%로 2.6% 증가했고, 중학교 2020년 7.8%, 2022년 8.6%로 0.8%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2020년 7.8%, 2022년 11.6%로 3.8% 증가하여 고등학교 학교급의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학교급간 그런편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중학교 7.8% = 고등학교 7.8% > 초등학교 2.6% 순이었고, 2022년에는 고등학교 11.6% > 중학교 8.6% > 초등학교 5.2%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교급에 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의 그런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과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실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6.8%, 2022년 6.7%로 0.1% 하락하였으나, 중원구 2020년 4.4%, 2022년 10.3%로 5.9% 증가하였고, 분당구는 2020년 6.5%, 2022년 8.5%로 2.0% 증가하였다. 중원구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거주구간의 그런편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20년은 수정구 6.8% > 분당구 6.5% > 중원구 4.4%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중원구 10.3% > 분당구 8.5% > 수정구 6.7% 순으로 집계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은 2020년 9.5%, 2022년 5.5%로 4.0% 감소했지만, 보통과 좋은편 집단은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통은 2020년 4.8%, 2022년 7.0%로 2.2% 증가했고, 좋은편은 2020년 5.7%, 2022년 10.0%로 4.3% 증가했다. 집단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안좋은편 9.5% > 좋은편 5.7% > 보통 4.8% 순이었다면, 2022년에는 좋은

편 10.0% > 보통 7.0% > 안좋은편 5.5%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주관적 학교성적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22년에는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그런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그런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18.5%, 2022년 7.2%로 11.3% 감소하였고, 보통 2020년 4.2%, 2022년 9.2%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6.3%, 2022년 8.3%로 2.0% 증가했다.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그런편 비율은 감소했지만 보통, 잘사는편 집단의 비율은 증가양상을 보였다. 한편 집단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20년은 부족한편 18.5% > 잘사는편 6.3% > 보통 4.2% 순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은 보통 9.2% > 잘사는편 8.3% > 부족한편 7.2% 순으로 집계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집단간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3-4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단위: %)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전체	86.9	6.9	6.2	100.0	82.4	9.1	8.5	100.0		
186.041***										
성별	남자	86.7	7.5	5.8	100.0	82.8	9.2	7.9	100.0	9.398
	여자	87.2	6.3	6.6	100.0	81.9	9.0	9.1	100.0	**
19.834***										
학교급	초등학교	94.0	3.5	2.6	100.0	90.1	4.7	5.2	100.0	651.268***
	중학교	85.1	7.2	7.8	100.0	82.7	8.7	8.6	100.0	
	고등학교	82.6	9.6	7.8	100.0	74.6	13.9	11.6	100.0	
509.065***										
거주구	수정구	84.8	8.4	6.8	100.0	81.0	12.3	6.7	100.0	85.863***
	중원구	86.3	9.2	4.4	100.0	80.8	9.0	10.3	100.0	
	분당구	87.7	5.9	6.5	100.0	83.2	8.3	8.5	100.0	
99.748***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80.1	10.4	9.5	100.0	86.6	7.8	5.5	100.0	132.543***
	보통	85.0	10.1	4.8	100.0	84.6	8.4	7.0	100.0	
	좋은편	90.5	3.8	5.7	100.0	80.1	9.8	10.0	100.0	
511.956***										

구분		2020				2022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그렇지 않은편	보통	그런편	합계
주관적	부족한편	65.8	15.7	18.5	100.0	85.0	7.8	7.2	100.0
가정	보통	86.3	9.5	4.2	100.0	83.1	7.6	9.2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89.5	4.2	6.3	100.0	82.0	9.7	8.3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온라인 부정적 경험 중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의 경우 2020년 신뢰하지않는편 57.8% > 보통 26.1% > 신뢰하는편 16.1% 순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은 신뢰하지않는편 58.3% > 보통 28.8% > 신뢰하는편 12.9%로 보고되었다. 2020년 대비 신뢰하지않는편과 보통의 비율이 증가하고 신뢰하는편의 비율은 하락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의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감의 하향 추세를 유추할 수 있다. 연도와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 실태와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에 대해 신뢰하는편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 중 남자의 경우 2020년 17.1%, 2022년 14.8%로 2.3% 감소했고, 여자는 2020년 14.9%, 2022년 11.0%로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신뢰감의 하향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간 신뢰하는편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남자 17.1% > 여자 14.9%, 2022년 남자 14.8% > 여자 11.0%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온라인상의 정보를 신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과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 기준으로 신뢰하는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2020년 26.4%, 2022년 21.1%로 5.3% 감소했고, 중학교는 2020년 14.7%, 2022년 8.5%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는 2020년 8.6%, 2022년 9.5%로 0.9%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의 신뢰하는편 응답률의 감소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간 신뢰하는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초등학교 26.4% > 중학교 14.7% > 고등학교

교 8.6% 순, 2022년 초등학교 21.1% > 고등학교 9.5% > 중학교 8.5% 순으로 타 학교급 대비 초등학교의 신뢰하는편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과 온라인상의 정보 신뢰와 관련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학교급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온라인 부정적 경험(온라인상의 정보 신뢰)

(단위: %)

구분	2020					2022							
	신뢰 하는편	보통	신뢰하지 않는편	합계		신뢰 하는편	보통	신뢰하지 않는편	합계				
전체	16.1	26.1	57.8	100.0		12.9	28.8	58.3	100.0				
109.113***													
성별	남자	17.1	24.5	58.4	100.0	47.029	14.8	26.4	58.8	100.0	114.478		
	여자	14.9	27.9	57.1	100.0	***	11.0	31.3	57.7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26.4	31.5	42.1	100.0	1481.693	21.1	33.7	45.2	100.0	1053.935		
	중학교	14.7	26.3	59.0	100.0		***	8.5	24.1	67.4		100.0	***
	고등학교	8.6	21.6	69.8	100.0		***	9.5	28.6	61.9		100.0	***
거주구	수정구	19.6	27.7	52.6	100.0	331.732	11.7	31.4	56.9	100.0	79.779		
	중원구	19.1	32.8	48.1	100.0		***	9.7	27.8	62.5		100.0	***
	분당구	14.3	23.8	61.9	100.0		***	14.1	28.4	57.5		100.0	***
주관적	안좋은편	8.5	26.3	65.2	100.0	357.578	11.4	34.3	54.4	100.0	93.936		
학교	보통	14.3	26.4	59.3	100.0		***	12.0	29.3	58.6		100.0	***
성적	좋은편	19.9	25.9	54.2	100.0		***	13.8	26.8	59.3		100.0	***
주관적	부족한편	10.6	31.8	57.5	100.0	202.179	18.6	30.7	50.7	100.0	45.638		
가정	보통	17.0	29.7	53.3	100.0		***	12.3	27.6	60.1		100.0	***
경제 사정	잘사는편	16.0	22.9	61.1	100.0		***	12.8	29.1	58.1		100.0	***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8) 코로나19와 학교생활

- 코로나19와 학교생활과 관련한 문항은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 등교 시 힘든 점, 등교 시 좋은 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20년은 매일 등교 34.1%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29.5% > 의견없음 16.0% > 원격수업만 16.0% > 홈스쿨링대안학교 4.2% 순으로 보고되었고, 2022년은 매일 등교 55.7%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18.9% > 의견없음 18.8% > 원격수업만 4.3% > 홈스쿨링대안학교 4.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등교의 경우 2020년 대비 21.6% 증가하여 매일 등교에 대한 선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면 등교가 시행되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8.9%로 10명 중 1.8명이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에 대한 선호를 유지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2020년 매일 등교 34.9%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26.6% > 원격수업만 15.4% > 홈스쿨링 대안학교 4.7% 순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매일 등교 52.7%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21.1% > 원격수업만 4.7% > 홈스쿨링대안학교 2.1%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매일 등교 17.8% 상승했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과 원격수업만은 각각 5.5%,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만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여자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3.2%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2.7% > 원격수업만 16.6% > 홈스쿨링 대안학교 3.7% 순, 2022년 매일등교 59.0%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16.6% > 원격수업만 4.0% > 홈스쿨링 대안학교 2.3% 순으로 보고되었다. 여자는 2020년 대비 매일 등교의 비율이 25.8%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은 16.1%, 원격수업만은 12.6% 감소했다. 2022

년을 기준으로 성별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매일등교의 경우 남자 52.7%, 여자 59.0%로 응답하여 여자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은 남자 21.1%, 여자 16.6%으로 남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검증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43.3%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7.1% > 원격수업만 10.4% > 홈스쿨링 대안학교 1.8% 순, 2022년 매일등교 63.2%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15.3% > 원격수업만 3.9% > 홈스쿨링 대안학교 1.9% 순으로 보고 되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대비 매일등교가 19.9%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원격수업만은 각각 11.8%, 6.5% 감소했다. 중학교 매일등교 31.1%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30.7% > 원격수업만 17.9% > 홈스쿨링 대안학교 2.6% 순, 2022년 매일등교 60.6%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14.4% > 원격수업만 2.8% > 홈스쿨링 대안학교 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학교는 2020년 대비 매일등교가 29.5%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은 16.3% 감소, 원격수업만은 15.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은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0.5% > 매일등교 29.0% > 원격수업만 19.0% > 홈스쿨링 대안학교 7.5% 순이었고, 2022년에는 매일등교 43.5%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7.1% > 원격수업만 6.4% > 홈스쿨링 대안학교 2.6%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020년 대비 매일등교가 14.2%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은 3.4% 감소하였다. 전면등교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선호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었다. 학교급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22년 기준 매일등교의 경우 초등학교 63.2% > 중학교 60.6% > 고등학교 43.5% 순으로 보고되어 매일등교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의 경우 고등학교 27.1% > 초등학교 15.3% > 중학교 14.4% 순으로 보고되어 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급과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거주구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5.5%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3.3% > 원격수업만 9.7% > 홈스쿨링대안학교 4.0% 순, 2022년 매일등교 48.3%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0.5% > 원격수업만 4.5% > 홈스쿨링대안학교 2.3% 순이었다. 수정구는 2020년 대비 매일등교 비율이 12.8%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은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구는 2020년 매일등교 32.5%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0.9% > 원격수업만 14.7% > 홈스쿨링대안학교 1.8% 순, 2022년 매일등교 48.3%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0.5% > 원격수업만 4.5% > 홈스쿨링대안학교 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원구의 경우 2020년 대비 매일등교의 비율이 24.6% 증가했다. 한편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의 경우 10.6% 감소했고, 원격수업만은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4.2%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8.2% > 원격수업만 18.0% > 홈스쿨링대안학교 4.9% 순이었고, 2022년 매일등교 57.3%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18.2% > 원격수업만 4.6% > 홈스쿨링 대안학교 2.3%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매일등교의 비율은 23.1%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은 10.0% 감소, 원격수업만의 경우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간의 비율을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매일등교의 경우 분당구 57.3% > 중원구 57.1% > 수정구 48.3% 순으로 분당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은 수정구 20.5% > 중원구 20.3% > 분당구 18.2% 순으로 수정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거주구와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안중은편의 경우 2020년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7.5% > 원격수업만 23.4% > 매일등교 19.0% > 홈스쿨링대안학교 10.4% 순, 2022년 매일등교 58.1%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18.6% > 원격수업만 6.0% > 홈스쿨링대안학교 1.6%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대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면, 2022년에는 매일등교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매일등교는 39.1% 증가하였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원격수업만은 각각 8.9%,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단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3.7%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3.5% > 원격수업만 15.3% > 홈스쿨링 대안학교 3.1% 순, 2022년 매일등교 58.0%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15.9% > 원격수업만 3.8% > 홈스쿨링 대안학교 2.3%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매일등교 응답 비율은 24.3%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은 17.6% 감소, 원격수업만은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9.9%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8.0% > 원격수업만 13.7% > 홈스쿨링 대안학교 2.5% 순, 2022년은 매일등교 54.0%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20.3% > 원격수업만 4.1% > 홈스쿨링 대안학교 2.3%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에 비해 매일등교의 비율이 14.1%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은 7.7% 감소, 원격수업만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학교성적의 문항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매일 등교의 경우 2020년 좋은편 39.9% > 보통 33.7% > 안좋은편 19.0% 순으로 보고되었고, 2022년에는 안좋은편 58.1% > 보통 58.0% > 좋은편 54.0% 순으로 보고되어 안좋은편 집단의 매일등교 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의 경우 2022년 기준 좋은편 20.3% > 안좋은편 18.6% > 보통 15.9% 순으로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5.7% > 매일등교 29.2% > 원격수업만 15.2% > 홈스쿨링 대안학교 4.0% 순, 2022년 매일등교 46.6%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3.2% > 원격수업만 6.0%, 홈스쿨링 대안학교 3.2%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에는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매일등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매일등교의 비율은 17.4%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원격수업만은 각각

12.5%,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단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2.5%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2.0% > 원격수업만 16.8% > 홈스쿨링 대안학교 2.0% 순이었고, 2022년은 매일등교 56.3%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21.1% > 원격수업만 3.9% > 홈스쿨링 대안학교 1.3% 순이었다. 2020년 대비 매일등교의 비율은 23.8% 증가했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은 10.9% 감소, 원격수업만은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매일등교의 비율이 높았으나, 2022년에 들어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매일등교 35.8%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35.8% > 원격수업만 15.5% > 홈스쿨링 대안학교 5.8% 순이었고, 2022년은 매일등교 56.1% >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17.8% > 원격수업만 4.4% > 홈스쿨링 대안학교 2.5%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대비 매일등교는 20.1% 증가하였고, 등교와 원격수업병행, 홈스쿨링 대안학교는 각각 9.3%,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은 2022년에 들어 모든 주요변인에서 매일등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2020년 대비 응답률 증가도 두드러졌다. 매일등교의 경우 여성, 학교급이 낮을수록, 분당구 거주, 학교성적이 안좋다고 인식할수록, 가정경제사정에서는 부족한편보다는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매일등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한편 등교와 원격수업병행의 경우 남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분당구보다는 수정구 또는 중원구, 학교성적에 대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서는 부족한편으로 인식할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46〉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2020					2022								
		매일등교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원격수업만	홈스쿨링 대안학교	의견없음	합계	매일등교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원격수업만	홈스쿨링 대안학교	의견없음	합계		
전체		34.1	29.5	16.0	4.2	16.2	100.0		55.7	18.9	4.3	2.2	18.8	100.0	
3511.938***															
성별	남자	34.9	26.6	15.4	4.7	18.4	100.0	174.666	52.7	21.1	4.7	2.1	19.5	100.0	115.499
	여자	33.2	32.7	16.6	3.7	13.8	100.0	***	59.0	16.6	4.0	2.3	18.1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43.3	27.1	10.4	1.8	17.4	100.0	928.004	63.2	15.3	3.9	1.9	15.8	100.0	911.137
	중학교	31.1	30.7	17.9	2.6	17.6	100.0		60.6	14.4	2.8	2.1	20.1	100.0	
	고등학교	29.0	30.5	19.0	7.5	13.9	100.0		43.5	27.1	6.4	2.6	20.5	100.0	
거주구	수정구	35.5	33.3	9.7	4.0	17.5	100.0	329.554	48.3	20.5	4.5	2.3	24.5	100.0	157.334
	중원구	32.5	30.9	14.7	1.8	20.1	100.0		57.1	20.3	3.3	1.9	17.4	100.0	
	분당구	34.2	28.2	18.0	4.9	14.7	100.0		57.3	18.2	4.6	2.3	17.7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9.0	27.5	23.4	10.4	19.6	100.0	1227.433	58.1	18.6	6.0	1.6	15.7	100.0	128.471
	보통	33.7	33.5	15.3	3.1	14.5	100.0		58.0	15.9	3.8	2.3	20.0	100.0	
	좋은편	39.9	28.0	13.7	2.5	15.9	100.0		54.0	20.3	4.1	2.3	19.3	100.0	
주관적 가정경제 사정	부족한편	29.2	35.7	15.2	4.0	15.9	100.0	281.221	46.6	23.2	6.0	3.2	20.9	100.0	106.237
	보통	32.5	32.0	16.8	2.0	16.7	100.0		56.3	21.1	3.9	1.3	17.4	100.0	
	잘사는편	35.8	27.1	15.5	5.8	15.8	100.0		56.1	17.8	4.4	2.5	19.2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코로나19 이후 전면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확인하였다. 전체 기준으로 지각, 급식시간, 쉬는 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3.6%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0.7% > 수업 내용 따라가기가 어려움 13.0%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2.6% >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10.1% 순이었다.
- 주요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지각, 급식시간, 쉬는 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4.9%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29.1% > 수업 내용 따라가기가 어려움 13.0%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자는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2.5% > 지각, 급식시간, 쉬는 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2.2%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3.2% 순으로 응답했다.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별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지각, 급식시간, 쉬는 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5.8%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26.0% >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15.3% 순으로 보고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4.5%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29.2% > 수업 내용 따라가기가 어려움 14.6% 순으로 집계되었고, 고등학교는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6.8% >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 30.5%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4.6% 순으로 보고되었다. 학교급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인 규칙 준수 어려움의 경우 초등학교 35.8% > 중학교 34.5% > 고등학교 30.5% 순으로 응답되어 초등학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의 경우 고등학교 36.8% > 중학교 29.2% > 초등학교 26.0%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의 경우 고등학교 5.1% 인 것에 비해 초등학교는 15.3%로 응답하여 비율 차이가 3배가 났다.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교급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은 연관성이 있었다.

- 거주구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거주구에서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순으로 보고하였다. 거주구 간 비율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은 중원구 37.6% > 분당구 33.8% > 수정구 28.9% 순으로 중원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들과 협동의 어려움과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의 경우 타 거주구 대비 수정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거주구와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은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5.3%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2.8%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2.3% 순,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3.1%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1.0%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4.5% 순으로 응답하였고, 좋은편의 경우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3.3%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29.9%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4.0%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의 경우 안좋은편 35.3% > 좋은편 33.3% > 보통 33.1%로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또한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꺼려짐 35.8% >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29.5%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7.0% 순, 보통은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6.7% > 비대면수업에 익숙해져 등교꺼려짐 29.1%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2.8% 순, 잘사는편은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2.7%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1.0%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못함 13.9% 순으로 보고되었다. 집단별로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놀이용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 잘사는편 13.9% > 보통 10.4% > 부족한편 5.1%로 잘사는편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은 부족한편 12.6% > 보통 11.0% > 잘사는편 9.6% 순으로 보고하여 부족한편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과 수업 내용 따라가기가 어려움의 경우에도 주관적 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보고 비율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

(단위: %)

구분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수업 내용 따라가기 가 어려움	합계	
전체		33.6	12.6	10.1	30.7	13.0	100.0	
성별	남자	34.9	12.0	11.0	29.1	13.0	100.0	61.077 ***
	여자	32.2	13.2	9.1	32.5	13.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5.8	11.5	15.3	26.0	11.4	100.0	644.309 ***
	중학교	34.5	11.6	10.1	29.2	14.6	100.0	
	고등학교	30.5	14.6	5.1	36.8	12.9	100.0	
거주구	수정구	28.9	10.2	12.6	25.6	22.7	100.0	584.787 ***
	중원구	37.6	12.2	9.5	26.0	14.7	100.0	
	분당구	33.8	13.3	9.6	33.2	10.1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35.3	8.0	11.6	32.8	12.3	100.0	143.311 ***
	보통	33.1	14.5	10.3	31.0	11.1	100.0	
성적	좋은편	33.3	13.2	9.6	29.9	14.0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29.5	5.1	12.6	35.8	17.0	100.0	156.747 ***
	보통	36.7	10.4	11.0	29.1	12.8	100.0	
	잘사는편	32.7	13.9	9.6	31.0	12.8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코로나19 이후 등교시 좋은 점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43.1% >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24.3% >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6.0% >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3.0% > 집에서 혼자 있지 않아 좋음 3.6% 순으로 보고되었다.
- 주요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39.0% >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25.9% >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6.3% 순,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47.4% >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22.5% >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7.2% 순으로 보고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에 대해 남자, 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한편 남자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음에 여자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순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학교급간 비율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고등학교 33.4% > 중학교 20.5% > 초등학교 18.9% 순으로 응답해 학교급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초등학교 17.9% > 고등학교 17.2% > 중학교 13.0% 순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중학교 51.9% > 초등학교 41.5% > 고등학교 35.8% 순으로 응답하여 중

학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에 혼자 있지 않아 좋음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급과 코로나 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을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 지역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을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했다. 거주구간 비율 비교한 결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에 중원구 44.3% > 분당구 43.3% > 수정구 41.2% 순으로 응답하여 중원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수정구 25.1% > 분당구 24.8% > 중원구 21.6% 순으로 응답해 수정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구와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47.6% >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7.9% >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7.7% 순으로 보고되었고, 보통, 좋은편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을 공통적으로 상위권으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집단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안좋은편 47.6% > 보통 43.3% > 좋은편 41.6%로 안좋은편 집단의 응답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안좋은편 17.9% > 좋은편 12.5% > 보통 10.9% 순으로 보고하여 안좋은편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주관적 학교 성적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보통, 잘 사는편 모두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순으로 높게 응답을 하였다. 집단별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음에 부족한편 26.6% > 보통 24.7% > 잘사는편 24.0% 순으로 응답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에는 부족한편 46.1% > 잘사는편 43.7% > 보통 40.9% 순으로 응답하여 부족한편 집단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보고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2022년 주요변인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좋은 점

(단위: %)

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선생님과 실제 대면하여 공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집에 혼자 있지 않아 좋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음	합계
전체		24.3	16.0	43.1	3.6	13.0	100.0
성별	남자	25.9	14.9	39.0	3.8	16.3	100.0
	여자	22.5	17.2	47.4	3.3	9.6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18.9	17.9	41.5	4.2	17.5	100.0
	중학교	20.5	13.0	51.9	3.2	11.3	100.0 ***
	고등학교	33.4	17.2	35.8	3.2	10.4	100.0
거주구	수정구	25.1	16.3	41.2	5.2	12.2	100.0
	중원구	21.6	16.7	44.3	3.5	14.0	100.0 ***
	분당구	24.8	15.8	43.3	3.2	13.0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7.7	13.7	47.6	3.2	17.9	100.0
	보통	24.1	18.4	43.3	3.3	10.9	100.0 ***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좋은편	26.4	15.7	41.6	3.8	12.5	100.0
	부족한편	26.6	17.4	46.1	0.0	9.9	100.0
	보통	24.7	17.8	40.9	2.8	13.8	100.0 ***
	잘사는편	24.0	15.3	43.7	4.0	13.0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9)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연도별, 주요변인별로 확인하였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인지도의 경우 2020년 전혀모른다+모른다 42.6% > 이름만 알고 있다 35.7% >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21.7% 순, 2022년 전혀모른다+모른다 49.1% >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31.6% > 이름만 알고 있다 19.2%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전혀모른다+모른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2020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2022년에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이 9.9% 증가하였다. 연도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요변인별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응답 중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먼저 남자의 경우 2020년 23.6%, 2022년 30.0%로 6.4% 증가했고, 여자는 2020년 19.6%, 2022년 33.4%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남자보다는 여자의 증가폭이 더 컸다. 성별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30.0%) 보다는 여자(33.4%)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의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의 응답 비율의 증가폭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2020년 22.2%, 2022년 26.8%로 4.6% 증가했고, 중학교는 2020년 22.9%, 2022년 33.1%로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20.2%, 2022년 34.9%로 1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대비 있다+잘알고있다의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간 비율을 2022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고등학교 34.9% > 중학교 33.1% > 초등학교 26.8% 순으로 고등학교의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거주구 중심으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의 증가폭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 2020년 26.0%, 2022년 27.8%로 1.8%가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25.7%, 2022년 42.3%로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는 2020년 19.4%, 2022년 29.9%로 10.5%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중원구, 분당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2022년을 기준으로 거주구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원구 42.3% > 분당구 29.9% > 수정구 27.8%로 중원구의 비율이 타 거주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구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안좋은편은 2020년 17.1%, 2022년 31.1%로 14.0% 증가했고, 보통의 경우 2020년 20.0%, 2022년 29.8%로 9.8% 증가하였다. 좋은편은 2020년 24.4%, 2022년 32.6%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인식한 집단의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증가폭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좋은편 집단이 청소년재단에 대해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으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의 증가폭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24.9%, 2022년 30.8%로 5.9%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20.4%, 2022년 30.1%로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22.3%, 2022년 32.3%로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좋을수록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이 2020년 대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

율을 2022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잘사는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가 중심으로 모든 변인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였으나 반면 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증가폭도 상당히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름만 알고 있다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양극단으로 비율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49〉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지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체	42.6	35.7	21.7	100.0		49.1	19.2	31.6	100.0			
1700.623***												
성별	남자	44.9	31.5	23.6	100.0	200.394	50.8	19.3	30.0	100.0	34.680	
	여자	40.3	40.1	19.6	100.0	***	47.4	19.2	33.4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45.2	32.6	22.2	100.0	71.841	59.1	14.1	26.8	100.0	497.970	
	중학교	41.7	35.4	22.9	100.0		46.4	20.5	33.1	100.0		***
	고등학교	41.3	38.5	20.2	100.0		42.1	22.9	34.9	100.0		
거주구	수정구	41.4	32.5	26.0	100.0	139.255	55.1	17.1	27.8	100.0	452.059	
	중원구	39.5	34.7	25.7	100.0		34.2	23.5	42.3	100.0		***
	분당구	43.8	36.8	19.4	100.0		51.5	18.6	29.9	100.0		
주관적 학교	안좋은편	45.6	37.3	17.1	100.0	144.805	46.6	22.2	31.1	100.0	65.681	
	보통	41.4	38.6	20.0	100.0		49.3	21.0	29.8	100.0		***
성적	좋은편	42.3	33.4	24.4	100.0		49.9	17.5	32.6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35.1	40.0	24.9	100.0	228.856	54.9	14.3	30.8	100.0	61.227	
	보통	39.0	40.6	20.4	100.0		47.8	22.2	30.1	100.0		***
	잘사는편	46.1	31.6	22.3	100.0		49.3	18.4	32.3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2020년은 전혀모른다+모른다 40.1% > 이름만 알고 있다 30.8% >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29.1% 순으로 보고되었고, 2022년은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40.0% > 전혀 모른다+모른다 38.7% > 이름만 알고 있다 21.4% 순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은 2020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연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을 기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 관련 문항 중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는 2020년 27.4%, 2022년 35.7%로 8.3% 증가했고, 여자는 2020년 31.0%, 2022년 44.5%로 13.5% 증가하여 여자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 성별간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의 비율은 초등학교 2020년 26.8%, 2022년 34.1%로 7.1% 증가했고, 중학교는 2020년 30.7%, 2022년 42.3%로 11.6%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2022년 29.7%, 2022년 43.4%로 13.7% 증가하여 고등학교 학교급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학교급간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정구는 2020년 32.2%, 2022년 40.4%로 8.2% 증가했고, 중원구는 2020년 31.9%, 2022년 42.8%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27.5%, 2022년 39.1%로 11.6% 증가했다. 모든 거주구

에서 2020년 대비 8% 이상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다. 거주구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기준 중원구 42.8% > 수정구 40.4% > 분당구 39.1% 순으로 나타나 중원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좋은편 2020년 31.6%, 2022년 38.6%로 7.0% 증가했고, 보통의 경우 2020년 25.3%, 2022년 38.7%로 13.4% 증가했다. 좋은편은 2020년 30.4%, 2022년 41.0%로 10.6% 증가했다. 안 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가 더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간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을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편 41.0% > 보통 38.7% > 38.6% 순으로 집계되어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27.8%, 2022년 38.0%로 2020년 대비 10.2% 상승했고, 보통은 2020년 26.6%, 2022년 38.3%로 11.7% 상승하였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31.1%, 2022년 40.7%로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9% 이상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단간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에는 잘사는편 31.1% > 부족한편 27.8% > 보통 26.6% 순, 2022년 기준으로는 잘사는편 40.7% > 보통 38.3% > 부족한편 38.0% 순으로 2020년, 2022년 모두 잘사는편의 인지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지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합계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합계	
	모른다	있다	잘알고 있다			모른다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40.1	30.8	29.1	100.0		38.7	21.4	40.0	100.0	
	809.158***									
성별	남자	40.9	31.7	27.4	100.0	37.260	41.7	22.5	35.7	100.0
	여자	39.2	29.9	31.0	100.0	***	35.4	20.1	44.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3.9	29.3	26.8	100.0	83.544	46.6	19.3	34.1	100.0
	중학교	36.7	32.6	30.7	100.0	***	37.4	20.3	42.3	100.0
	고등학교	39.8	30.5	29.7	100.0		32.2	24.4	43.4	100.0
거주구	수정구	38.9	28.9	32.2	100.0	54.651	38.6	20.9	40.4	100.0
	중원구	38.2	29.9	31.9	100.0	***	31.3	25.8	42.8	100.0
	분당구	40.9	31.6	27.5	100.0		40.6	20.3	39.1	100.0
주관적 학교	안좋은편	35.2	33.3	31.6	100.0	117.609	39.8	21.7	38.6	100.0
	보통	42.1	32.5	25.3	100.0	***	36.2	25.1	38.7	100.0
성적	좋은편	40.7	28.9	30.4	100.0		39.4	19.6	41.0	100.0
주관적 가정	부족한편	37.8	34.4	27.8	100.0		40.7	21.3	38.0	100.0
	보통	38.6	34.8	26.6	100.0	156.209	38.5	23.3	38.3	100.0
경제 사정						***				
	잘사는편	41.4	27.4	31.1	100.0		38.6	20.7	40.7	100.0

주: * $p<.05$, ** $p<.01$, *** $p<.001$, 교차분석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의 인지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연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는 2020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63.9% > 전혀모른다+모른다 18.3% > 이름만 알고 있다 17.8% 순, 2022년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64.0% > 전혀모른다+모른다 21.7% > 이름만 알고 있다 14.3% 순으로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은 2020년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알고있다는 비율은 줄고 전혀모른다+모른다의 비율은 2020년 대비 3.4% 증가하기도 하였다. 연도와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성별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 문항 중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59.0%로 보고되었고, 여자는 2020년 69.0%, 2022년 69.2%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성별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수련관에 대해 더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과 청소년수련관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 인지도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57.2%, 2022년 59.7%로 2.5%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020년 61.8%, 2022년 67.8%로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71.3%, 2022년 64.2%로 2020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초등학생 보다 중, 고등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학교급과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 2020년 58.0%, 2022년 60.9%로 2.9%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66.2%, 2022년 64.1%로 2.1% 감소하였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64.7%로 그대로 비율이 유지되었다. 거주구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중원구 66.2% > 분당구 64.7% > 수정구 58.0% 순, 2022년 분당구 64.7% > 중원구 64.1% > 수정구 60.9%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보다 중원구 또는 분당구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구와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 2020년 64.3%, 2022년 67.1%로 2.8% 증가하였고, 보통은 2020년

57.1%, 2022년 62.3%로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편의 경우 2020년 67.7%, 2022년 63.7%로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단별로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안좋은편 67.1% > 좋은편 63.7% > 보통 62.3% 순 집계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청소년수련관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이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 2020년 53.4%, 2022년 68.6%로 15.2% 증가하였고, 보통의 경우 2020년 61.1%, 2022년 63.0%로 1.9% 증가하였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67.0%, 2022년 64.0%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인지도가 2020년 대비 큰 폭이 상승한 것이 두드러진다. 집단별 비율도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2020년과 2022년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졌다. 2020년에는 잘사는편 67.0% > 보통 61.1% > 부족한편 53.4% 순으로 잘사는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 2022년에는 부족한편 68.6% > 잘사는편 64.0% > 보통 63.0% 순으로 나타나 부족한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청소년수련관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중 한곳이라도) 인지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합계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합계
	모른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전체	18.3	17.8	63.9	100.0	21.7	14.3	64.0	100.0
	153.704***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성별	남자	20.6	20.4	59.0	100.0	256.956	25.3	15.7	59.0	100.0	272.411
	여자	15.9	15.1	69.0	100.0	***	17.9	12.9	69.2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25.0	17.8	57.2	100.0	530.500 ***	27.1	13.2	59.7	100.0	308.778 ***
	중학교	19.5	18.8	61.8	100.0		20.3	11.9	67.8	100.0	
	고등학교	11.8	16.9	71.3	100.0		17.8	17.9	64.2	100.0	
거주구	수정구	23.0	19.0	58.0	100.0	107.631 ***	21.8	17.3	60.9	100.0	39.640 ***
	중원구	15.2	18.6	66.2	100.0		21.3	14.6	64.1	100.0	
	분당구	18.0	17.3	64.7	100.0		21.8	13.5	64.7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7.2	18.5	64.3	100.0	241.372 ***	21.4	11.5	67.1	100.0	41.308 ***
학교	보통	21.0	22.0	57.1	100.0		21.8	15.8	62.3	100.0	
성적	좋은편	17.2	15.1	67.7	100.0		21.7	14.6	63.7	100.0	
주관적	부족한편	24.0	22.7	53.4	100.0	233.211 ***	19.7	11.7	68.6	100.0	12.555 *
가정	보통	17.6	21.3	61.1	100.0		22.2	14.8	63.0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18.3	14.7	67.0	100.0		21.7	14.4	64.0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를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라 살펴본
았다. 먼저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 전혀모른다+모른다
57.3% > 이름만 알고 있다 23.7% >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19.0% 순, 2022년 전혀모른다+모른다 61.9% > 알고 있다+잘알
고 있다 24.5% > 이름만 알고 있다 13.6%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이 5.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
관이 있었다.

□ 성별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 증감을 확인하였다. 남자는 2020년 20.9%, 2022년 26.6%
로 5.7% 증가하였고, 여자는 2020년 16.9%, 2022년 22.2%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여자 모두 2020년 대비 5%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 간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은 남자 20.9%, 여자 16.9%, 2022년은 남자 26.6%, 여자 22.2%로 확인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남자의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13.5%, 2022년 22.4%로 8.9% 증가했고, 중학교는 2020년 19.4%, 2022년 24.8%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23.2%, 2022년 26.3%로 3.1% 증가하였다. 모든 학교급이 2020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 초등학교 집단이었다. 학교급별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알고 있다 또는 잘알고 있다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급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구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은 수정구는 2020년 23.3%, 2022년 24.1%로 0.8% 증가하였고, 중원구는 2020년 30.7%, 2022년 51.9%로 21.2% 증가했다. 분당구는 2020년 14.6%, 2022년 17.5%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중원구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거주구별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중원구 30.7% > 수정구 23.3% > 분당구 14.6% 순, 2022년 중원구 51.9% > 수정구 24.1% > 17.5% 순으로 나타나 중원구의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안좋은편의 경우 2020년 22.5%, 2022년 25.9%로 3.4%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17.0%, 2022

년 27.1%로 10.1% 증가하였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18.9%, 2022년 23.0%로 4.1% 증가했다. 모든 집단이 2020년 대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보통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집단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 보통 27.1% > 안좋은편 25.9% > 좋은편 23.0% 순으로 집계되어 보통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도별 비율의 증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27.1%, 2022년 15.7%로 보고되어 11.4% 감소했고, 보통은 2020년 19.1%, 2022년 27.7%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18.1%, 2022년 23.9%로 5.8% 증가하였다. 집단별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은 2020년의 경우 보통 27.6% > 부족한편 27.1% > 잘사는편 18.1% 순, 2022년에는 보통 27.7% > 잘사는편 23.9% > 부족한편 15.7% 순으로 응답하여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가장 높았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인지도

(단위: %)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체	57.3	23.7	19.0		100.0	61.9	13.6	24.5		100.0
	842.023***									
성별	남자	55.6	23.4	20.9	100.0	64.393	59.0	14.3	26.6	100.0
	여자	59.1	24.0	16.9	100.0	***	64.9	12.9	22.2	100.0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학교급	초등학교	63.2	23.3	13.5	100.0	66.4	11.3	22.4	100.0	161.300 ***
	중학교	57.7	23.0	19.4	100.0	62.2	13.0	24.8	100.0	
	고등학교	52.0	24.7	23.2	100.0	57.1	16.6	26.3	100.0	
거주구	수정구	52.8	23.8	23.3	100.0	61.2	14.7	24.1	100.0	2065.085 ***
	중원구	46.6	22.7	30.7	100.0	36.3	11.7	51.9	100.0	
	분당구	61.5	24.0	14.6	100.0	68.6	13.9	17.5	100.0	
주관적 학교	안좋은편	51.8	25.7	22.5	100.0	62.1	12.0	25.9	100.0	54.769 ***
	보통	56.7	26.4	17.0	100.0	58.7	14.2	27.1	100.0	
성적	좋은편	59.7	21.4	18.9	100.0	63.1	13.9	23.0	100.0	
주관적 가정	부족한편	47.1	25.8	27.1	100.0	70.7	13.5	15.7	100.0	87.798 ***
	보통	53.4	27.6	19.1	100.0	60.2	12.1	27.7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61.2	20.7	18.1	100.0	61.9	14.2	23.9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청년지원센터(청년의봄) 인지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에는 전혀모른다+모른다 72.7% > 이름만 알고 있다 19.3% > 알고 있다 + 잘알고있다 8.1% > 순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전혀 모른다 + 모른다 73.2% > 이름만 알고 있다 14.9% >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12.0% 순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전혀 모른다+모른다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이 2020년 대비 3.9%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연도와 청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성별을 기준으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의 증감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2020년 9.7%, 2022년 13.4%로 3.7% 증가했고, 여자는 2020년 6.3%, 2022년 10.5%로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의 청년지원센

터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과 청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일 실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었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청년지원센터의 인지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2020년 7.7%, 2022년 10.0%로 3.0% 증가하였고, 중학교 2020년 8.0%, 2022년 12.8%로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8.4%, 2022년 13.0%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3.0% > 중학교 12.8% > 초등학교 10.0% 순으로 집계되어 고등학교의 청년지원센터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학교급과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청년지원센터 인지도 중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응답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정구는 2020년 10.0%, 2022년 10.2%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중원구는 2020년 8.2%, 2022년 18.1%로 2020년 대비 9.9% 증가하였다. 분당구는 2020년 7.5%, 2022년 10.8%로 3.3%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중원구의 청년지원센터 인지도 상승의 두드러졌다. 거주구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은 수정구 10.0% > 중원구 8.2% > 분당구 7.5% 순으로 수정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2년은 중원구 18.1% > 분당구 10.8% > 수정구 10.2% 순으로 나타나 중원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청년지원센터의 인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청년지원센터 인지도 중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응답률 증감을 확인한 결과 안좋은편은 2020년 6.6%, 2022년 11.2%로 4.6% 증가했고, 보통은 2020년 6.1%, 2022년 10.9%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9.8%, 2022년 12.6%로 2.8% 증가하였다. 주관적 학교

성적 집단별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 2022년 모두 안좋은편 또는 보통 보다 좋은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과 청년지원센터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기준으로 청년지원센터 인지도 문항 중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의 증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은 2020년 8.0%, 2022년 2.7%로 5.3% 감소한 반면, 보통은 2020년 7.5%, 2022년 12.5%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8.5%, 2022년 12.4%로 3.9% 증가하였다. 집단별로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 보통 12.5% > 잘사는편 12.4% > 부족한편 2.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해 부족한편 보다 보통 또는 잘사는편의 응답 비율이 6배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과 청년지원센터의 인지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53〉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인지도

(단위: %)

구분		2020				2022				합계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체		72.7	19.3	8.1	100.0	73.2	14.9	12.0	100.0		
309,391***											
성별	남자	70.0	20.3	9.7	100.0	125.736	70.6	16.1	13.4	100.0	87.270
	여자	75.5	18.2	6.3	100.0	***	75.9	13.6	10.5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73.7	18.6	7.7	100.0	6.808	80.0	10.0	10.0	100.0	354.474
	중학교	72.4	19.7	8.0	100.0		*	72.2	15.0	12.8	
	고등학교	72.1	19.5	8.4	100.0		67.4	19.5	13.0	100.0	
거주구	수정구	68.9	21.1	10.0	100.0	62.742	70.8	19.1	10.2	100.0	240.106
	중원구	70.7	21.0	8.2	100.0		***	67.3	14.6	18.1	
		분당구	74.2	18.3	7.5	100.0		75.3	13.9	10.8	100.0

구분	2020					2022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전혀 모른다 +	이름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	잘알고 있다	합계
주관적	안좋은편	71.8	21.6	6.6	100.0	72.5	16.2	11.2	100.0	
학교	보통	72.9	21.0	6.1	100.0	71.5	17.6	10.9	100.0	
성적	좋은편	72.9	17.3	9.8	100.0	74.1	13.3	12.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72.3	19.8	8.0	100.0	84.7	12.5	2.7	100.0	
가정	보통	71.0	21.6	7.5	100.0	72.6	15.0	12.5	100.0	
경제										
사정	잘사는편	74.0	17.5	8.5	100.0	72.6	15.0	12.4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재단 운영시설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에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6.4% > 중원청소년수련관 20.1%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4.6%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3.2%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1.0%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5.6%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3.7%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3.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0.1%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5.1% > 중원청소년수련관 14.5%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3.3%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1.0%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9.1%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8.3%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5.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의 활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청소년재단 각각의 운영시설 활용도 증감을 확인한 결과 먼저 활용도가 증가한 시설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3%,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6.9%,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9.5%,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4%,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4.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활용도가 감소한 시설도 있었다.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은 3.6%, 중원청소년수련관은 5.6%, 정자청

소년수련관은 17.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주요변인별로 청소년재단의 각각의 운영시설 활용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남자, 여자 모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 중원청소년수련관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순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년에는 남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8.9% > 중원청소년수련관 15.3%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4.4% 순, 여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1.2%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6.4% > 중원청소년수련관 13.7%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설별 활용도 증감을 살펴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가 감소했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의 활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시설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2020년은 초등학교 중원청소년수련관 28.3%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20.2%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4.5% 순, 중학교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37.5% > 중원청소년수련관 14.8%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0.5%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0.5% 순, 고등학교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8.7% > 중원청소년수련관 19.6%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6.2%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24.3%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4.7%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3.5% 순, 중학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5.0%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6.4% > 중원청소년수련관 13.5% 순, 고등학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0.0% > 중원청소년수련관 19.3%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4.5% 순으로 활용하였다. 2020년 대비 운영시설별 활용이 증가한 시설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급의 활용도가 증가한 기관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이었다. 초등학교의 활용도만 증가한 곳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이었으며, 중학교만 증가한 곳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이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만 증가한 곳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다.

- 거주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는 2020년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52.6% > 중원청소년수련관 21.2%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7.4% 순, 2022년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32.3% > 중원청소년수련관 218.3%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9.6%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 집단의 경우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과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구의 경우 2020년 중원청소년수련관 47.8%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20.6%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11.2% 순, 2022년 중원청소년수련관 31.0%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25.0%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15.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중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의 활용 비율이 상위권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20년 대비 중원구 집단의 이용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2020년 대비 활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분당구의 경우 2020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40.9%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9.3%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6.2% 순, 2022년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9.5%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20.1%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9.5%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의 활용 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 꾸준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주관적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시설 활용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안중은편의 경우 2020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30.7% > 중원청소년수련관 16.5%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6.5%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5.9% 순, 2022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4.4%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5.1% > 중원청소년수련관 14.1%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중원청소년수련관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의 활용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한 집단의 경우 2020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4.9% > 중원청소년수련관 23.2%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7.2% 순, 2022년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4.6%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4.8%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3.2% 순으로 보고되었다. 좋은편의 경우 2020년 분당정자청소년

수련관 25.7% > 중원청소년수련관 19.7%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3.9%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3.9% 순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6.5% > 중원청소년수련관 16.1%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6.0% 순으로 보고되었다. 대체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의 활용 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 2020년, 2022년 모두 높았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2020년 중원청소년수련관 32.5%,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9.6%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1.1% 순, 2022년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5.5%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2.4%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11.7%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공통적으로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의 활용 비율이 꾸준히 높았다. 보통의 경우 2020년 중원청소년수련관 22.7%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0.9% >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20.5% 순, 2022년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6.3%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15.5%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1.8% 순으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의 경우 2020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32.4% > 중원청소년수련관 16.7%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5.5% 순, 2022년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17.5%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16.5% > 중원청소년수련관 15.8% 순으로 집계되어 2020년, 2022년 모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중원청소년수련관의 활용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4〉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재단 운영시설 활용도

(단위: %)

구분		임시수정 청소년수련관	중원 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 청소년수련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합계
2020		14.6	20.1	11.0	26.4	13.2	5.6	3.3	3.7	2.1	100.0
성별	남자	14.3	18.3	10.8	28.9	11.9	7.1	3.2	3.6	2.1	100.0
	여자	14.8	21.8	11.1	24.2	14.4	4.3	3.5	3.8	2.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0.2	28.3	14.5	6.9	11.6	13.6	0.8	0.4	3.6	100.0
	중학교	10.5	14.8	7.4	37.5	10.5	3.9	6.0	7.4	2.0	100.0
	고등학교	14.5	19.6	11.7	28.7	16.2	2.6	2.7	2.7	1.4	100.0
거주구	수정구	52.6	21.2	2.3	2.8	3.7	1.8	7.4	6.2	2.3	100.0
	중원구	20.6	47.8	2.6	2.9	3.1	1.3	8.3	11.2	2.2	100.0
	분당구	2.5	10.1	16.2	40.9	19.3	8.2	0.5	0.4	2.0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6.5	16.5	5.1	30.7	15.9	3.5	5.5	4.8	1.4	100.0
	보통	17.2	23.2	9.6	24.9	10.3	3.7	4.1	5.2	1.8	100.0
	좋은편	12.3	19.7	13.9	25.7	13.9	7.5	2.1	2.4	2.5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19.6	32.5	10.6	11.1	8.4	4.7	6.9	4.7	1.5	100.0
	보통	20.5	22.7	7.8	20.9	11.1	4.8	4.2	5.1	3.0	100.0
	잘사는편	9.4	16.7	13.5	32.4	15.5	6.4	2.3	2.5	1.5	100.0

구분		임시수정 청소년수련관	중원 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분당아탑 청소년수련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합계
2022		11.0	14.5	13.3	9.1	20.1	15.1	5.7	8.3	3.0	100.0
성별	남자	12.7	15.3	14.4	8.2	18.9	13.7	5.1	8.8	2.9	100.0
	여자	9.4	13.7	12.2	9.9	21.2	16.4	6.2	7.8	3.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8	9.3	13.5	7.4	14.7	24.3	7.8	9.2	5.0	100.0
	중학교	8.9	13.5	16.4	8.8	25.0	10.6	4.7	10.4	1.9	100.0
	고등학교	14.5	19.3	10.5	10.6	20.0	11.9	4.9	5.8	2.3	100.0
거주구	수정구	32.3	28.3	1.2	2.1	6.5	7.3	9.5	9.6	3.2	100.0
	중원구	11.0	31.0	3.6	1.8	2.7	6.2	15.8	25.0	2.9	100.0
	분당구	6.6	5.3	19.5	13.3	29.5	20.1	1.0	1.7	3.0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8.3	14.1	10.6	6.1	24.4	15.1	5.2	13.8	2.4	100.0
	보통	11.6	11.2	14.8	7.9	24.6	13.2	5.9	7.8	3.1	100.0
	좋은편	11.8	16.1	13.5	10.7	16.5	16.0	5.7	6.5	3.1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11.7	10.3	12.4	8.9	25.5	11.1	5.9	7.8	6.3	100.0
	보통	7.0	11.6	15.5	9.4	26.3	11.8	5.0	10.2	3.1	100.0
	잘사는편	12.4	15.8	12.5	9.0	17.5	16.5	5.9	7.6	2.7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을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연도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은 작은도서관 이용 20.9%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1%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12.0%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0.6%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0.0% 순, 2022년은 작은도서관 이용 18.6%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9%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3.4% > 청소년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3.3%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1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들이 상위권으로 집계되었다.
- 성별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는 작은도서관 이용 20.9%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1%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12.0% 순, 여자는 작은도서관 이용 21.6%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3%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12.3% 순으로 2020년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작은도서관, 강좌 프로그램, 공간 주위로 경험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남자의 경우 작은도서관 이용 18.2%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2%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4.0% 순, 여자는 작은도서관 이용 19.1%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5%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4.1% 순으로 집계되어 2022년에도 성별과 무관하게 작은도서관 이용과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가 높은 경험 비율을 유지했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여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작은도서관 21.4%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20.2%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프로그램 12.0% 순, 중학교는 작은도서관 이용 20.8%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5.9%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12.7% 순, 고등학교는 작은도서관 이용 20.2% > 수영, 농구, 헬스, 피아

노 등 각종 강좌 14.1%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2.8%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12.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작은도서관 이용, 각종강좌,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사용이 타 서비스 경험 비율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작은도서관 이용 18.1%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0%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5.1% 순, 중학교는 작은도서관 이용 20.2%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6.0%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5.6% 순, 고등학교는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8.3% > 작은도서관 이용 17.5%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4.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도 2020년과 유사하게 작은도서관 이용과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가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한편, 2020년 대비 2022년에 모든 학교급의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영역도 있었는데,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또래 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이 이에 해당했다.

- 거주구 중심으로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수정구는 작은도서관 17.8%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1%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2.5% 순, 중원구는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8.3% > 작은도서관 이용 16.0%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1.8% 순, 분당구는 작은도서관 이용 23.3%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7%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12.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의 경우 수정구 19.4%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5.0%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아카데미 14.1% 순, 중원구 작은도서관 이용 17.8%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5.5%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4.4% 순, 분당구 작은도서관 이용 18.6%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7.6%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3.4%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이용과 각종강좌, 방과후프로그램이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당구의 경우 2020년에는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의 비율이 3순위를 차지하였다면, 2022년에는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의 비율이 3순위를 차지하였다.

-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안좋은편, 보통, 좋은편 모든 집단이 작은도서관 이용, 각종 강좌,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경험 비율이 타 서비스 경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에는 안좋은편의 경우 작은도서관 이용 18.0%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4%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4.0% 순, 보통은 작은도서관 이용 20.3%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4.6%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4.0% 순, 좋은편은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8.1% > 작은도서관 이용 18.1%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3.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 기준으로 모든 집단이 작은도서관 이용과 각종 강좌가 타 서비스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모든집단의 경험 비율이 증가한 서비스는 방과후프로그램,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이 있었다.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부족한편은 작은도서관 이용 18.8%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2.2%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10.5% 순, 보통은 작은도서관 이용 19.3%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4%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13.2% 순, 잘사는편은 작은도서관 이용 22.1%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8.1% >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11.3% 순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에는 부족한편 작은도서관 이용 17.6%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6.2%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0% 순, 보통의 경우 작은도서관 이용 18.3%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9% >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13.9% 순, 잘사는편은 작은도서관 이용 18.8% >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16.9% >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14.1%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3-55〉 연도와 주요변인에 따른 청소년시설 서비스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작은도서관 이용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청바지프로젝트, 목공, 생존수영 등 수업시간 학교연계	포레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어울림마당, 창의과학축제, 통고구마 축제 등 행사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참여기구	합계
2020	20.9	17.1	10.6	10.0	12.0	9.3	6.0	8.0	6.1	100.0
성별	남자	20.1	17.9	10.3	9.4	11.7	9.5	8.0	6.6	100.0
	여자	21.6	16.3	10.9	10.7	12.3	9.1	8.1	5.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1.4	20.2	12.0	8.4	10.9	10.0	7.4	4.4	100.0
	중학교	20.8	15.9	9.2	9.6	12.7	9.3	8.2	7.5	100.0
	고등학교	20.2	14.1	10.1	12.8	12.8	8.3	8.8	6.8	100.0
거주구	수정구	17.8	17.1	12.5	11.1	10.2	8.5	9.7	6.2	100.0
	중원구	16.0	18.3	11.8	9.3	11.3	11.7	8.8	6.4	100.0
	분당구	23.3	16.7	9.6	9.9	12.8	8.8	7.3	6.0	100.0
주관적	안좋은편	16.8	14.0	11.5	12.0	13.5	8.7	8.3	7.3	100.0
학교 성적	보통	23.6	18.4	9.1	9.1	12.4	8.2	7.7	6.4	100.0
	좋은편	21.0	17.6	10.8	9.7	11.4	9.9	8.1	5.6	100.0
주관적	부족한편	18.8	10.4	10.0	12.2	10.5	10.3	10.2	7.3	100.0
가정 경제 사정	보통	19.3	16.4	11.5	10.3	13.2	9.0	8.0	6.4	100.0
	잘사는편	22.1	18.1	10.0	9.6	11.3	9.4	7.9	5.8	100.0

구분	작은도서관 이용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프로그램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문화놀이터, 자립공간 등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청바지프로젝트, 목공, 생존수영 등 수업시간 학교연계	포레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어울림마당, 창의과학축제, 통고구마 축제 등 행사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참여기구	합계	
2022	18.6	16.9	13.4	13.3	11.4	8.2	6.9	6.7	4.5	100.0	
성별	남자	18.2	17.2	12.7	14.0	11.1	8.4	6.9	6.7	4.9	100.0
	여자	19.1	16.5	14.1	12.7	11.8	8.0	7.0	6.7	4.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8.1	17.0	15.1	11.0	13.6	9.1	5.8	6.2	4.2	100.0
	중학교	20.2	15.6	9.9	16.0	10.5	8.1	7.4	8.0	4.4	100.0
	고등학교	17.5	18.3	14.8	14.2	8.6	6.7	8.5	6.1	5.2	100.0
거주구	수정구	19.4	15.0	14.1	13.2	11.4	8.4	7.3	7.1	4.0	100.0
	중원구	17.8	15.5	14.4	13.3	14.2	5.3	6.7	6.0	6.8	100.0
	분당구	18.6	17.6	12.9	13.4	10.7	8.9	6.9	6.8	4.1	100.0
주관적 학교 성적	안좋은편	18.0	16.4	13.0	14.0	11.5	7.4	7.3	7.0	5.5	100.0
	보통	20.3	14.6	12.5	14.0	11.4	8.6	7.1	7.6	4.1	100.0
	좋은편	18.0	18.1	13.9	12.8	11.4	8.4	6.7	6.2	4.4	100.0
주관적 가정 경제 사정	부족한편	17.6	16.0	16.2	12.6	12.9	8.8	4.1	5.8	6.1	100.0
	보통	18.3	16.9	10.9	13.9	11.4	7.6	7.8	8.0	5.2	100.0
	잘사는편	18.8	16.9	14.1	13.2	11.3	8.4	6.8	6.3	4.1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가중치 미적용), 퍼센트 계산 기준 (반응)

6. 소결

- 2020-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연도별 변화 추이 주요 결과를 통해 몇 가지 특기할 부분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지수(0.67점)는 2020년(0.73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는 반대로 여자,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낮다고 인식할수록 행복에 관하여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에서 경험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행복과 연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둘째, 현재 주관적 행복감, 미래 주관적 행복감 모두 2020년 대비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특히 미래 주관적 행복감의 감소폭은 더 컸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은 미래에 나의 삶이 행복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이며, 미지의 것,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희망과 가능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김진경, 김혜연, 2013). 미래에 대한 기대는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전환과 과업 수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진다(김진경, 김혜연, 2013; Beal, Crockett & Peugh, 2016).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022년 모두 주관적 학교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낮을수록 미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여건에 따라 미래 기대에 대한 격차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2020년과 2022년 모두 재단 제공 서비스를 미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한 집단이 현재,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성남시 청소년들이 삶의 조건에 따라 학습, 여가 등의 격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충분히 지지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미래 기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 셋째,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 영역이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의 영역에서는 2020년 대비 학교생활만족도와 참여기회충분도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 등 학교생활에 큰 격변이 있었으나, 2022년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만족도와 참여기회충분도를 제외한 삶의 만족도 다른 영역은 2020년 대비 감소하였다.
- 전반적 스트레스의 경우 2022년 기준 2.63점으로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소년은 2020년, 2022년 모두 학업 스트레스를 타 영역 대비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고 특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더 높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업,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대비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한 영역은 학업, 외모, 친구관계, 체중, 부모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가출욕구, 자퇴욕구, 자살욕구, 자해욕구 등이 있었다. 특히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2020년 대비 타 영역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였다. 한편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상담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예측된다.
-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경우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성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안좋다고 느낄수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구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하였다. 분당구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도 높지만 스트레스 점수도 타 거주구에 비해 높게 보고 되었다. 따라서 삶의 만족

도는 강화하고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원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성남시 청소년의 여가시간, 여가장소,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는 2020년, 2022년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며, 2020년 대비하여 2022년 여가시간은 감소, 여가장소와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가장소와 여가 프로그램의 충분도의 증가는 거리두기 완화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여가시간의 감소는 전면 등교 등 물리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2020년, 2022년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가 학교급이 낮을수록 여가시간, 여가장소,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 점수가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가 장소 같은 물리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로 보고하였으나,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의 경우 2022년에 들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잘사는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팬데믹 등 거리두기 상황에서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을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체감하는 강도가 다를수도 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사회 자본 측면으로 운영되는 여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자본 축적의 성격이 강한 여가활동은 가독 소득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상층에 속한 청소년은 문화 관련 여가활동, 중층의 경우 대중매체, 컴퓨터 관련 여가활동 범주와 연계성을 맺는다고 보고된다(서우석, 2007; 최셋별, 2006). 따라서 문화자본 형성이 가능하며 질 좋은 여가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다섯째, 성남시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이슈, 정치문제 관심도는 3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고,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와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는 4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도 3.44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2020년 대비 2022년 점수의 증감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는 감소했으나 투표 가능 연령 인지도와 투표 연령 도달 시 투표 의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투표 가능 나이 인지와 투표 의지가 증가하는 부분은 고무적이거나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 관심도가 감소한 부분은 시민역량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참여교육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결과이다. 특히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되는 등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한 정치참여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시점이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2).

- 여섯째, 성남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2020년 8.8%, 2022년은 14.7%로 5.9% 상승하여 2022년에는 성남시 청소년의 10명 중 1.4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르바이트 부정적 경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2020년에 비해 17.1% 감소했지만, 초과근무 계약 외 업무지시는 12.9% 증가,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5.2%,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일자리 부족, 경제적 지위의 취약성, 연장자에 대한 존중 등으로 인해 성인보다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장명선 외, 2020). 또한, 청소년이 근로 시 부당처우를 경험할 때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집계 되는 바(여성가족부, 2022a) 근로 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고용인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의 청소년 경험률이 2016년에는 1.1%, 2018년은 0.5% 였지만 2020년에는 15.2%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안전문제, 근로권익 보호 문제 등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22a).

- 일곱째, 성남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해 2020년, 2022년의 추이를 관찰한 결과,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

한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타 집단 보다 호전적인 변화가 더 컸다.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자기조절 정도, 계획 차질 정도 전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 서유경과 김현옥(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집단의 경우 우울과 주의력결핍, 공격성 외에 학업무기력이 결합 될 때 높은 스마트폰 의존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전면등교의 시행, 일상 회복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행태의 호전적 변화에 큰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 하지만 여전히 성남시 청소년의 10명 중 2.8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호소하고 있고, 10명 중 1.3명은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2.1명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계획했던 일(공부, 숙제, 학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청소년을 타자화하며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삶의 증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량강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이혜선, 이경미, 조재희, 2022; 정익중, 2021).

□ 이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온라인활동 실태 결과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성남시 청소년은 온라인활동 영역 중 커뮤니케이션/소통, 자료 및 정보탐색, 여가활동, 교육/학습에 대해 2020년, 2022년 중상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활동에 대해 중독, 규제 등의 대상으로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온라인활동 자체가 청소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온라인 부정적 경험 실태에 있어서는 타인비방, 사생활 유포, 자신의 사생활 유출 경험, 온라인상의 정보 미신뢰 비율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소폭 증가

5)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한 집단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비율 변화
 -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그렇다 응답 비율: 2020년 45.6% → 2022년 29.8%, 15.8% 감소
 - 스마트폰 자기조절 정도에 그렇다 응답 비율: 2020년 35.7% → 2022년 56.9%, 21.2% 증가
 - 스마트폰 계획차질 정도에 그렇다 응답 비율: 2020년 34.6% → 2022년 23.1%, 11.5% 감소

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온라인활동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약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삶의 역량을 배양하고 증진하는데 온라인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도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온라인 이용서비스 비율은 2020년, 2022년 모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이 여타 서비스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SNS 서비스의 경우 페이스북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인스타그램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기준 페이스북+페이스북 메신저 2.7%,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DM 14.1%로 성남시 청소년들은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틱톡의 이용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의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 여덟째, 주제별 체험활동의 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건의 경우 2020년, 2022년 모두 온,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 하이브리드 형태의 체험 방식이 주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체험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온, 오프라인 모두 경험하는 비율 또한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제공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온, 오프라인 형태 혹은 온라인 형태로 제공했기에 비율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참여 형태가 변화했기에 비율이 변화한건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2020년 대비 2022년 경험 비율이 증가한 체험활동 영역과 감소한 체험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증가 추세를 보인 체험활동은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직업체험, 환경, 자기(인성)개발 영역이었으며 감소 추세를 보인 체험활동은 봉사활동 영역이었다.
- 특히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따른 체험활동 경험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과학정보활동 경험 없음 비율이 2020년 34.6%, 2022년 35.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20년 50.7%, 2022년 18.2%로 없음 비율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과학정보뿐만 아니라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환경·보존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유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체험활동 경험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가능했던 조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경제력에 따라 교육편차와 체험활동 참여에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세원, 이화조, 2021; 최지영, 강수환, 2021).

□ 2022년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미경험 비율은 2020년과 대비하여 큰폭으로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앞서 언급한 여가프로그램 충분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체험활동에 대해 체감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팬데믹 상황,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들이 느낀 개인적 결핍은 무엇이었을지,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삶과 기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황승우, 서경혜, 2021).

□ 체험활동 중 연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자기(인성)개발 영역이었으며, 특히 문화·예술과 자기(인성)개발 영역은 고등학교 집단, 주관적 학교성적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만족도 비율이 타 집단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체험활동의

6) 이러한 비율의 변화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수준이 회복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호 순위는 1위 직업체험, 2위 문화·예술, 3위 자기(인성)개발 순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체험활동의 선호 순위는 1위 직업체험, 2위 문화·예술, 3위 모험개척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과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체험활동의 방식과 무관하게 꾸준히 선호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 직업체험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선호되었으며, 자기(인성)개발 체험활동 선호는 중, 고등학교 학교급이 높은 순위로 응답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홉째, 연간독서량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 학교성적이 안 좋다고 인식하거나, 가정경제사정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독서량 증가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학교성적에 대해 좋은편,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연간독서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⁷⁾⁸⁾ 그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에 대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인식할수록 연간독서량이 높은 기조는 2020년, 2022년 동일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여건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문해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독서활동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2022년 들어 연간독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사는편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에 비해 독서량이 낮은 점을 미루어볼 때 취약한 여건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돌봄 결손 예방과 문해력 증진, 독서문화 향유를 돕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현애, 2022).

□ 열째,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매일 등교에 대한 선호도는 2020년 34.1%, 2022년 55.7%로 2020년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한편 전면 등교가 시행되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을 선호하는 청소년도 18.9% 집계되었다. 매일 등교에 대한 선호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았으며, 등교와 원격수업 병

7) 주관적 학교성적별(안좋은편, 보통) 연간독서량 변화

- 안좋은편: 2020년 10.96권 → 2022년 20.96권, 10.0권 증가

- 보통: 2020년 14.63권 → 22.95권, 8.32권 증가

8) 주관적 가정경제사정별(부족한편, 보통) 연간독서량 변화

- 부족한편: 2020년 15.30권 → 2022년 17.19권, 1.89권 증가

- 보통: 2020년 14.54권 → 20.52권, 5.98권 증가

행은 고등학교 학교급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주요변인을 모두가 매일등교에 대한 비율이 증가했지만, 특히 학교성적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한 집단의 매일등교 선호 비율은 2020년 19.0%, 2022년 58.1%로 보고되어 큰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한편 학교에 꾸준히 나와 가장 좋은점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43.1%)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24.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규칙적인 생활의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 장점으로 보고하였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놀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점으로 응답했다. 학교에 꾸준히 나가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33.6%),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30.7)을 보고하였다. 규칙준수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등교 꺼려짐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보고율이 높았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협동 어려움, 등교꺼려짐, 수업 내용 따라라기 어려움의 비율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 회복, 학습의 영역에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청소년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의 공백, 대면 수업에 대한 적응, 대인관계 등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재단과 전 시설이 2020년 대비 알고 있다+잘알고있다는 비율은 상승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전혀모른다+모른다는 비율도 상승하여 역설적인 상황이 관찰되기도 하였다.¹⁰⁾¹¹⁾ 특히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9) 매일 등교 선호 비율(2022년 기준)

- 초등학교 63.2% > 중학교 60.6% > 고등학교 43.5%

등교와 원격 수업병행 선호 비율(2022년 기준)

- 고등학교 27.1% > 초등학교 15.3% > 중학교 14.4%

10) 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알고 있다+잘알고 있다 기준)

- 성남시청소년재단: 2020년 21.7% → 2022년 31.6%, 9.9% 증가

박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전혀모른다+모른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관찰된 집단은 초등학교 학교급,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급의 인지도는 앞서 기관들과 동일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혀모른다+모른다, 이름만알고 있다, 알고 있다+잘알고 있다에 해당되는 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여건과 욕구에 맞춘 선제적 서비스 개발과 접근을 통해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성남시 청소년은 2020년, 2022년 모두 작은도서관, 각종 강좌수업, 방과후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놀이문화 공간 사용 등 시설의 상시적인 활동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 기준으로 재단 주요 경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또래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의 심리지원 활동, 동아리 활동의 경우 경험 비율이 증가했지만, 축제성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의 경험 비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관심사와 흥미,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 맞춤형된 프로그램을 일상에서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배움과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0년 29.1% → 2022년 40.0%, 10.9% 증가
 - 청소년수련관(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중 한곳이라도)
: 2020년 63.9% → 2022년 64.0%, 0.1% 증가
 - 청소년문화의집(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2020년 19.0% → 2022년 24.5%, 5.5% 증가
 -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2020년 8.1% → 2022년 12.0%, 2.8% 증가
- 11) 청소년재단 및 운영시설에 대한 인지도(전혀모른다+모른다 기준)
- 성남시청소년재단: 2020년 42.6% → 2022년 49.1%, 6.5% 증가
 - 청소년수련관(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중 한곳이라도)
: 2020년 18.3% → 2022년 21.7%, 3.4% 증가
 - 청소년문화의집(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2020년 57.3% → 2022년 61.9%, 4.6% 증가
 - 청년지원센터(청년이봄): 2020년 72.7% → 2022년 73.2%, 0.5% 증가

IV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

- SDQ를 기준으로 총난점, 강점, 난점 점수를 구하고 하위척도 및 총 합산 점수에 따라 정상군과 경계 개입군을 구분하였다. SDQ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성남시 청소년의 경우 66.1%가 정상군, 33.9%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었다.
-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에 있어서는 정상군 88.2%, 경계개입군은 11.2%로 집계되었다. 난점 중 과잉행동의 경우 정상군은 78.5%, 경계개입군은 21.5%로 보고되었고, 정서증상의 경우 정상군 66.4%, 경계개입군 33.6%,品行문제는 정상군 69.0%, 경계개입군은 31.0%, 또래문제는 정상군 78.5%, 경계개입군은 21.5%로 보고되었다.
- 즉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에 있어서는 10명 중 약 1명 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난점인 과잉행동과 또래문제는 10명 중 2명, 정서증상과品行문제에서는 10명 중 3명꼴로 경계개입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 총난점, 강점, 난점별 정상군, 경계개입군 구분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강점	사회지향행동	88.2	11.2	100.0
	과잉행동	78.5	21.5	100.0
난점	정서증상	66.4	33.6	100.0
	品行문제	69.0	31.0	100.0
	또래문제	78.5	21.5	100.0
	총난점	66.1	33.9	100.0

1. SDQ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라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과 총난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을 때 남자는 정상군 66.1%, 경계개입군 33.9%, 여자는 정상군 66.2%, 경계개입군 33.8%로 나타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총난점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자, 여자 모두 10명 중 3명 정도가 경계개입군으로 나타났다.
-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남자는 정상군 86.1%, 경계개입군은 13.9%, 여자는 정상군 90.4%, 경계개입군은 9.6%로 나타나 남자의 경계개입군의 비율이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회지향행동의 정상군, 경계개입군 집단과 성별 간의 의미있게 다른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과잉행동의 경우 남자는 정상군 76.8%, 경계개입군 23.2%, 여자는 정상군 80.3%, 경계개입군 19.7%로 과잉행동에 있어서는 남자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별과 과잉행동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증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정상군 68.7%, 경계개입군 31.3%, 여자는 정상군 63.8%, 경계개입군 36.2%로 집계되어 여자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4.9% 더 높았다. 성별과 구분된 집단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행문제의 경우 남자는 정상군 69.9%, 경계개입군 30.1%, 여자는 정상군 68.2%, 경계개입군 31.8%로 남자보다 여자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되었다. 구분된 집단과 성별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또래문제의 경우 남자는 정상군 79.3%, 경계개입군 20.7%, 여자는 77.7%, 경계개입군은 22.3%로 여자가 경계개입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구분된 집단과 성별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총난점 기준을 보았을 때 성남시 청소년의 10명 중 약 3명이 경계개입군에 속해있으며,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정서증상과品行문제, 또래문제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성별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강점	사회지향행동	남자	86.1	13.9	100.0	96.516***
		여자	90.4	9.6	100.0	
난점	과잉행동	남자	76.8	23.2	100.0	41.129***
		여자	80.3	19.7	100.0	
	정서증상	남자	68.7	31.3	100.0	59.780***
		여자	63.8	36.2	100.0	
	品行문제	남자	69.9	30.1	100.0	7.374**
		여자	68.2	31.8	100.0	
	또래문제	남자	79.3	20.7	100.0	8.549**
		여자	77.7	22.3	100.0	
총난점		남자	66.1	33.9	100.0	0.040
		여자	66.2	33.8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집단별로 학교급 기준에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총난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정상군 67.1%, 경계개입군 32.9%, 중학교는 정상군 68.4%, 경계개입군은 31.6%, 고등학교는 62.8%, 경계개입군은 37.2%로 고등학교 학교급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타 학교급 보다 높았다. 집단과 학교급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초등학교 정상군 86.0%, 경계개입군 14.0%, 중학교 정상군 88.6%, 경계개입군 11.4%, 고등학교 정상군 89.9%, 경계개입군 10.1%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급과 구분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점인 과잉행동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는 정상군 76.8%, 경계개입군 23.2%, 중학교는 정상군 82.2%, 경계개입군 17.8%, 고등학교는 정상군 76.5%, 경계개입군은 23.5%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급과 과잉행동 구분 집단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정서증상의 경우 초등학교 정상군 71.7%, 경계개입군 28.3%, 중학교는 정상군 66.5%, 경계개입군은 33.5, 고등학교는 정상군 60.6%, 경계개입군은 39.4%로 집계되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정서증상에 있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학교급과 정서증상 구분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행문제를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을 교급별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는 정상군 68.1%, 경계개입군은 31.9%, 중학교는 정상군 72.9%, 경계개입군은 27.1%, 고등학교는 정상군 66.1%, 경계개입군은 33.9%로 집계되었다. 학교급과 품행문제 구분 집단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또래문제의 경우 초등학교 정상군 80.5%, 경계개입군 19.5%, 중학교 정상군 81.1%, 경계개입군 18.9%, 고등학교 정상군 73.7%, 경계개입군은 26.3%로 집계되었다. 타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가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급과 또래문제 구분 집단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학교급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타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가 경계개입군으로 빈출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난점 기준으로 과잉행동, 정서증상,品行문제, 또래문제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타 학교급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타 학교급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학교급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강점	사회지향행동	초등학교	86.0	14.0	100.0
		중학교	88.6	11.4	100.0
		고등학교	89.9	10.1	100.0
	과잉행동	초등학교	76.8	23.2	100.0
		중학교	82.2	17.8	100.0
		고등학교	76.5	23.5	100.0
난점	정서증상	초등학교	71.7	28.3	100.0
		중학교	66.5	33.5	100.0
		고등학교	60.6	39.4	100.0
	品行문제	초등학교	68.1	31.9	100.0
		중학교	72.9	27.1	100.0
		고등학교	66.1	33.9	100.0
	또래문제	초등학교	80.5	19.5	100.0
		중학교	81.1	18.9	100.0
		고등학교	73.7	26.3	100.0
총난점		초등학교	67.1	32.9	100.0
		중학교	68.4	31.6	100.0
		고등학교	62.8	37.2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거주구를 중심으로 정상군, 경계개입군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난점 기준으로는 수정구는 정상군 63.4%, 경계개입군 36.6%, 중원구는 정상군 65.8%, 경계개입군은 34.2%, 분당구는 정상군 66.9%, 경계개입군 33.1%로 집계되었다.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 수정구의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과 총난점에 따른 집단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사회지향행동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수정구 정상군 84.1%, 경계개입군 15.9%, 중원구는 정상군 85.1%, 경계개입군 14.9%, 분당구 정상군 90.0%, 경계개입군 10.0%로 집계되었다. 분당구보다 중원구, 수정구가 사회지향행동에 있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사회지향행동 집단별 구분의 교차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잉행동에 대한 집단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수정구는 정상군 79.5%, 경계개입군 20.5%, 중원구는 정상군 79.6%, 경계개입군 20.4%, 분당구 정상군 78.0%, 경계개입군 22.0%로 집계되어 분당구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타 거주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구와 과잉행동에 대한 집단 구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정서증상에 대한 집단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수정구의 경우 정상군 64.6%, 경계개입군 35.4%, 중원구는 정상군 64.6%, 경계개입군 35.4%, 분당구는 정상군 67.3%, 경계개입군은 32.7%로 집계되었다. 분당구에 비해 수정구, 중원구의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거주구와 정서증상으로 구분된 집단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행문제의 경우 수정구는 정상군 69.9%, 경계개입군 30.1%, 중원구는 정상군 71.1%, 경계개입군 28.9%, 분당구는 정상군 68.3%, 경계개입군은 31.7%로 집계되었다. 품행문제의 경우 분당구가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구와 품행문제 구분 집단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또래문제는 수정구 정상군 75.4%, 경계개입군 24.6%, 중원구는

정상군 79.2%, 경계개입군 20.8%, 분당구는 정상군 79.1%, 경계개입군 20.9%로 집계되었다. 수정구가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거주구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강점	사회지향행동	수정구	84.1	15.9	100.0
		중원구	85.1	14.9	100.0
		분당구	90.0	10.0	100.0
난점	과잉행동	수정구	79.5	20.5	100.0
		중원구	79.6	20.4	100.0
		분당구	78.0	22.0	100.0
	정서증상	수정구	64.6	35.4	100.0
		중원구	64.6	35.4	100.0
		분당구	67.3	32.7	100.0
	품행문제	수정구	69.9	30.1	100.0
		중원구	71.1	28.9	100.0
		분당구	68.3	31.7	100.0
총난점	또래문제	수정구	75.4	24.6	100.0
		중원구	79.2	20.8	100.0
		분당구	79.1	20.9	100.0
	충난점	수정구	63.4	36.6	100.0
		중원구	65.8	34.2	100.0
		분당구	66.9	33.1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라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총난점 기준으로는 안좋은편 정상군 68.3%, 경계개입군 31.7%, 보통은 정상군 63.1%, 경계개입군은 36.9%, 좋은편은 정상군 66.8%, 경계개입군은 33.2%로 집계되어 총난점 기준 주관적 학교성적이 안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보통 또는 좋은편으로 인식한 집단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한편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안좋은편은 정상 85.5%, 경계개입군 14.5%, 보통은 정상군 90.4%, 경계개입군 9.6%, 좋은편은 정상군 88.1%, 경계개입군 11.9%로 구분되었다. 경계개입군의 비율을 보았을 때 주관적 학교성적이 보통인 집단보다 안좋은편 또는 좋은편으로 인식되는 집단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 난점의 하위척도인 과잉행동, 정서증상과 주관적 학교성적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품행문제와 또래문제의 경우 주관적 학교성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행문제의 경우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30.3%) 또는 좋은편(30.3%)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보통(32.8%)으로 응답한 집단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다.
- 또래문제의 경우 안좋은편 정상군 77.1%, 경계개입군 22.9%, 보통 정상군 78.4% 경계개입군 21.6%, 좋은편 정상군 79.0%, 경계개입군 21.0%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학교성적에 대해 안좋은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5〉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주관적 학교성적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x^2	
강점	사회지향행동	안좋은편	85.5	14.5	100.0	53.831***
		보통	90.4	9.6	100.0	
		좋은편	88.1	11.9	100.0	
난점	과잉행동	안좋은편	79.3	20.7	100.0	3.636
		보통	77.7	22.3	100.0	
		좋은편	78.6	21.4	100.0	
	정서증상	안좋은편	66.1	33.9	100.0	1.107
		보통	66.9	33.1	100.0	
		좋은편	66.2	33.8	100.0	
	품행문제	안좋은편	69.7	30.3	100.0	11.961**
		보통	67.2	32.8	100.0	
		좋은편	69.7	30.3	100.0	
	또래문제	안좋은편	77.1	22.9	100.0	6.270*
		보통	78.4	21.6	100.0	
		좋은편	79.0	21.0	100.0	
총난점		안좋은편	68.3	31.7	100.0	34.284***
		보통	63.1	36.9	100.0	
		좋은편	66.8	33.2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족한편의 경우 정상군 68.6%, 경계개입군 31.4%, 보통은 정상군 64.3%, 잘사는편 정상군 66.6%, 경계개입군 33.4%로 집계되었다.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 보다 보통 또는 잘사는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이러한 양상은 강점인 사회지향행동과도 유사하였다.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부족한편은 정상군 92.8%, 경계개입군 7.2%, 보통은 정상군 88.1%, 경계개입군 11.9%, 잘사는편은 정상군 87.9%, 경계개입군은 12.1%로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잘산다고 인식할수록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난점의 하위척도인 정서증상과 또래문제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한편 품행문제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품행문제는 부족한편의 경우 정상군 67.9%, 경계개입군 32.1%, 보통은 정상군 66.9%, 경계개입군은 33.1%, 잘사는편은 정상군 69.9%, 경계개입군 30.1%로 집계되었다. 잘사는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부족한편 또는 보통으로 인식한 집단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6〉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의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강점	사회지향행동	부족한편	92.8	7.2	100.0
		보통	88.1	11.9	100.0
		잘사는편	87.9	12.1	100.0
난점	과잉행동	부족한편	82.9	17.1	100.0
		보통	76.9	23.1	100.0
		잘사는편	78.8	21.2	100.0
	정서증상	부족한편	73.6	26.4	100.0
		보통	67.2	32.8	100.0
		잘사는편	65.6	34.4	100.0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품행문제	부족한편	67.9	32.1	100.0	17.713***
	보통	66.9	33.1	100.0	
	잘사는편	69.9	30.1	100.0	
또래문제	부족한편	81.3	18.7	100.0	12.511**
	보통	79.7	20.3	100.0	
	잘사는편	77.9	22.1	100.0	
총난점	부족한편	68.6	31.4	100.0	12.698**
	보통	64.3	35.7	100.0	
	잘사는편	66.6	33.4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2. SDQ와 행복지수,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

- 다음은 SDQ를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에 따른 행복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의 경우 0.75점, 경계개입군은 0.59점으로 나타났다. 경계개입군에 비해 정상군의 행복지수가 0.16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군은 0.70점, 경계개입군은 0.63점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난점의 하위척도인 과잉행동의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군은 0.71점, 경계개입군은 0.63점으로 정상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정서증상,品行문제, 또래문제 등 하위척도 역시 그 비율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잉행동과 같은 형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7〉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행복지수 비교

(단위: 점)

구분	행복지수		t
	정상군	경계개입군	
강점			
사회지향행동	0.70	0.63	22.427***
과잉행동	0.71	0.63	32.440***
난점			
정서증상	0.75	0.59	75.763***
品行문제	0.72	0.63	38.770***
또래문제	0.72	0.60	47.427***
총난점	0.75	0.59	76.356***

주: * $p < .05$, ** $p < .01$, *** $p < .001$, 독립표본 t-검증.

□ SDQ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재단 제공 서비스 미경험, 경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총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미경험군은 정상군 65.6%, 경계개입군 34.4%, 1~5개 서비스 경험군은 정상군 65.9%, 경계개입군은 34.1%, 6~9개 서비스 경험군은 정상군 74.1%, 경계개입군은 25.9%로 집계되었다. 6~9개 서비스 경험군 보다 미경험군, 1~5개 서비스 경험군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난점과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군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미경험군은 정상군 88.2%, 경계개입군은 11.8%, 1~5개 서비스 경험군은 정상군 87.9%, 경계개입군 12.1%, 6~9개 서비스 경험군은 정상군 91.0%, 경계개입군 9.0%로 집계되었다. 사회지향행동의 경우 미경험군과 1~5개 서비스 경험군보다 6~9개 서비스 경험군이 정상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지향행동과 재단 제공 서비스 경험군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위척도 중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 또한 6~9개 서비스 경험군보다 미경험군, 1~5개 서비스 경험군이 경계개입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8〉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재단 제공 서비스 미경험, 경험에 따른 교차표
(단위: 명,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강점	사회지향행동	미경험군	88.2	11.8	100.0
		1~5개 서비스 경험군	87.9	12.1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91.0	9.0	100.0
					10.140**
난점	과잉행동	미경험군	78.8	21.2	100.0
		1~5개 서비스 경험군	78.8	21.2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79.5	20.5	100.0
					.290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계	χ^2
정서증상	미경험군	66.9	33.1	100.0	15.222***
	1~5개 서비스 경험군	65.8	34.2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71.1	28.9	100.0	
품행문제	미경험군	65.8	34.2	100.0	71.632***
	1~5개 서비스 경험군	70.6	29.4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74.8	25.2	100.0	
또래문제	미경험군	80.1	19.9	100.0	75.319***
	1~5개 서비스 경험군	76.7	23.3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85.8	14.2	100.0	
총난점	미경험군	65.6	34.4	100.0	36.061***
	1~5개 서비스 경험군	65.9	34.1	100.0	
	6~9개 서비스 경험군	74.1	25.9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3. SDQ 총난점 기준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 비교

- SDQ 총난점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을 구분하고 구분된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이 자기만족도, 자기장점인정, 자기유용성, 타인의인정, 주변과의관계, 환경문제걱정, 참여기회충분도,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에 있어 경계개입군 보다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한편 주관적건강의 경우 정상군 보다 경계개입군보다 점수가 더 낮게 보고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9〉 총난점 기준 정상군, 경계개입군 삶의 만족도 비교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t
자기만족도	3.84	3.78	3.988***
자기장점인정	3.68	3.64	2.767**
자기유용성	3.86	3.82	2.209*
타인의인정	3.62	3.65	-1.283
주변과의 관계	4.28	4.21	5.507***
주관적건강	3.90	4.00	-6.293***
학교생활만족도	4.15	4.16	-.763
안전감	4.25	4.24	0.814
환경문제걱정	3.36	3.24	6.919***
참여기회충분도	4.04	3.95	7.191***
전반적여가생활만족도	4.12	4.05	5.130***
가정생활만족도	4.26	4.24	1.286

주: * $p < .05$, ** $p < .01$, *** $p < .001$, 독립표본 t-검증

□ SDQ 총난점 기준 구분된 집단과 스트레스와 부적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가출욕구, 가출경험, 자퇴욕구(초등제외) 자살욕구, 자해경험(초등제외)의 영역에서 정상군 대비 경계개입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한편 정상군의 경우 외모 스트레스,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상담심리치료 요구도가 경계개입군 보다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0〉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스트레스와 부적응 비교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t
전반적 스트레스	2.60	2.64	-2.011*
학업 스트레스	3.18	3.25	-3.746***
외모 스트레스	2.48	2.45	1.680*
친구관계 스트레스	2.52	2.50	1.406
체중 스트레스	2.53	2.51	1.203
진로 불확실 스트레스	2.49	2.44	2.523**
부모관계 가정환경 스트레스	1.98	2.00	-1.657*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2.09	2.06	1.840*
가출욕구	2.12	2.39	-13.674***
가출경험	1.36	1.41	-3.227**
자퇴욕구(초등제외)	2.22	2.31	-3.593***
자살욕구	1.76	1.92	-8.688***
자살시도	1.31	1.31	-0.376
자해욕구(초등제외)	1.70	1.70	-0.029
자해경험(초등제외)	1.44	1.49	-2.911**
스트레스 해소방법 인지	3.46	3.44	1.208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2.09	2.05	2.297*

주: * $p < .05$, ** $p < .01$, *** $p < .001$, 독립표본 t-검증.

- SDQ 총난점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경계개입군의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자기조절, 스마트폰 계획 차질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확인하였다.
- 먼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편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군은 그렇지않은편 43.1% > 보통 29.8% > 그런편 27.1%로 응답하였고, 경계개입군은 그렇지않은편 39.9% > 보통 30.2% > 그런편 29.9%로 응답하였다. 정상군에 비해 경계개입군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SDQ 총난점 기준 집단간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자기조절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스마트폰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하는 편인지에 대한 결과와 같은 형태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정상군은 58.3% 경계개입군은 32.1%로 1.81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1〉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스마트폰 사용실태 교차표

(단위: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χ^2
스마트폰 과의존	그렇지않은편	43.1	39.9	25.370***
	보통	29.8	30.2	
	그런편	27.1	29.9	
	계	100.0	100.0	
스마트폰 자기조절	그렇지않은편	12.1	15.0	61.230***
	보통	29.3	31.5	
	그런편	58.3	32.1	
	계	100.0	100.0	
스마트폰 계획 차질	그렇지않은편	49.9	47.6	11.194*
	보통	29.7	31.5	
	그런편	20.4	20.9	
	계	100.0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의 경우 정상군, 경계개입군 모두 매일 등교 >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 원격수업만 > 홈스쿨링 대안 학교 순으로 응답하여 매일 등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의 경우 매일 등교, 원격수업만, 홈스쿨링 대안학교에 관하여 응답하는 비율이 경계개입군 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경계개입군은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에 대해 정상군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의 경우 정상군은 지각, 급식 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5.6%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1.3%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2.5%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2.2% >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8.4% 순으로 보고하였다. 경계개입군은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1.2% >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29.4% > 수업 내용 따라가기 어려움 13.7% > 친구들과 협동이 13.4% >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2.3% 순으로 보고되었다. 정상군은 기본적 규칙, 등교 꺼려짐 등 이미 익숙해진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면, 경계개입군은 교우관계, 수업 내용 따라가기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2〉 총난점 기준 집단별(정상군, 경계개입군) 코로나19 이후 생활 교차표

(단위: %)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χ^2
코로나19 이후 등교에 대한 생각	매일 등교	57.5	54.6	113.480***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18.0	19.9	
	원격수업만	4.7	3.5	
	홈스쿨링 대안학교	2.5	1.1	
	의견없음	17.3	20.9	
	계	100.0	100.0	

구분	정상군	경계개입군	x^2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	지각, 급식시간, 쉬는시간 등 기본적 규칙 준수 어려움	35.6	31.2
	놀이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함	12.2	12.3
	친구들과 협동이 어려움	8.4	13.4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등교 꺼려짐	31.3	29.4
	수업 내용 따라가기가 어려움	12.5	13.7
	계	100.0	100.0
2022년 학교에 꾸준히 나와 좋은 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음(기상, 취침, 등하교, 급식 등)	24.6	23.7
	선생님과 실제 얼굴을 보고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6.0	16.3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음	42.5	43.8
	집에 혼자 있지 않아 좋음	3.6	3.3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음	13.2	12.9
	계	100.0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교차분석

4. 소결

- SDQ를 통해 분석한 2022년 성남시 청소년의 삶을 확인해보았다. 청소년의 SDQ 스크리닝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예측, 치료 계획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도로 훈련되지 않은 지역사회 수준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며, 지역사회 표본에 사용되는데 적합하다고 고려되어진다(Becker, Rothenberger & Sohn, 2015; Dahlberg, Fält, Ghaderi, Sarkadi & Salari, 2020). SDQ는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Becker, Rothenberger & Sohn, 2015). 청소년 자기보고식 SDQ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집단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SDQ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Goddman, Meltzer & Bailey, 1998).
- SDQ를 기준으로 성남시 청소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보았다. 총난점을 기준으로 66.1%는 정상군, 33.9%는 경계개입군으로 집계되어 성남시 청소년의 10명 중 3.3명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경계 및 개입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 척도 기준으로 사회지향행동에서는 10명 중 1.1명, 난점인 과잉행동에서는 10명 중 2.1명, 정상증상에서는 10명 중 3.3명, 품행문제에서는 3.1명, 또래문제에서는 2.1명 정도가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증상에 취약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
-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의 경우 친 사회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지향행동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난점 중 정서증상의 경우 여자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더 높았다. 품행문제에서는 남자의 경계개입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

교급별로는 난점의 모든 영역에서 타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가 경계개입군으로 빈출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강점인 사회지향행동에서는 초등학교 학교급이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학교급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와 유사하다(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2021; Du, Kou & Conghill, 2008, Sierra, Enesco, de Albéniz Iturriaga, Molina & Pedrero, 2022). 이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취약한 지점에 대해 사전에 선별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난점인 요소들의 문제 발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또한, 주관적 학교성적이 안좋은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지향행동과 또래문제, 정서증상 영역에서 경계개입군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업성취와 학업수행능력이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2020)와 연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학업 능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 수행이 지속될 수 있는 포용적인 분위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 및 역량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에 있어서는 잘사는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보다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정경제사정에 대해 부족한편이라고 느낄수록 강점과 난점의 영역에서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연구(Giannakopoulos, Tzavara, Dimitrakaki, Kolaitis, Rotsika & Tountas, 2009)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수들과 SDQ 집단에 대해 교차검증 수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 직접, 간접효

과 등의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에서 가정 월평균수입이 청소년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직접 경로가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음을 언급하며 단순히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정경제사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개입군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이 풍족하다고 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은 단순히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률이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사회계층의 이점을 정서적 지원 차원으로 연결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박영신, 김의철, 2009).

- 한편 SDQ를 기준으로 행복지수와,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 비율을 비교한 결과 행복지수의 경우 사회지향행동과 난점의 전영역에서 경제개입군 보다 정상군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 재단 서비스 제공 경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6~9개 서비스 경험군 보다 미경험군에 속한 집단이 경제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다. 과잉행동, 정서증상, 또래문제의 경우 1~5개 서비스 경험군이 경제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미경험군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6~9개 서비스 경험군의 경우 경제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재단 제공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제개입군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서비스 운영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 SDQ 총난점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정상군, 경제개입군 모두 3점 이상으로 중상 수준을 보였으나 주관적 건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경계개입군이 정상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경우 정상군, 경계개입군 모두 중하 수준이었다. 스트레스 영역 중 가장 높게 언급된 영역은 학업 스트레스였다. 경계개입군은 정상군에 비해 가출욕구, 자퇴욕구, 자살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담심리치료 요구도 또한 정상군 보다 경계개입군이 낮아 더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계개입군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정상군에 비해 더 높았다. 특히 스마트폰 자기조절에 대해 그런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정상군 58.3%, 경계개입군은 32.1%로 1.81배 차이를 보여 스마트폰 사용영역에서 경계개입군이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정상군, 경계개입군 모두 매일 등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힘든 점의 경우 정상군은 기본적 규칙, 등교 꺼려짐 등 이미 익숙해진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는데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경계개입군은 교우관계, 수업 내용 따라가기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학습격차를 체감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취약한 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술한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부적응, 스마트폰 사용실태, 코로나19 이후 생활 속에서도 경계개입군의 경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로 특징지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삶의 질 저하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예방적으로 스크리닝하고, 청소년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Lundh, Wångby-Lundh & Bjärehed, 2008; Matsunaga et al., 2022).

-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SDQ는 청소년, 부모, 교사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 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기보고용에 기반한 결과만을 국한 하고 있다. 청소년 자기보고용 SDQ의 경우 충난점, 정서증상, 품 행문제 등에 더 크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Kawabe et al., 2021).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기보고와 더불어 부모, 교사보고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깊은 함의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SDQ 기준으로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수준에서 그 쳤으나 SDQ 문항별로 어떠한 응답률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확 인한다면 성남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 나아가 외현화 문제, 내면화 문제 에 대한 주요변인들을 비교하고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부적응 측 면에서의 관계성을 확인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V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본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과 관련하여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의 빈도 분석결과를 <표 5-1>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경우 일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의 영역에서의 관계와 관련된 단어가 상위 순위로 빈출되었다. 가정과 관련된 관계는 엄마(12위), 아빠(25위), 가족(23위)이 등장했고, 학교에서의 관계는 친구(1위)와 선생님(18위)이 등장했다. 청소년이 주로 인식하는 일상 속 공간과 관련된 학교(2위), 학원(8위), 수련(23위) 또한 빈출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행위와 관련된 단어 또한 등장했는데 공부(3위), 활동(5위), 수업(9위), 게임(15위), 유튜브(20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시간과 연관된 주말(11위), 토요일(14위), 평일(18위), 아침(20위) 등의 단어 또한 나타났다.
- 한편,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에서는 청소년사업을 업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청소년사업의 대상, 지도자로서 느끼는 감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결되는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친구(1위)의 경우 청소년과 그 사용의 방식이 달랐는데 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사업의 대상으로 아이(2위), 청소년(4위), 청년(16위)이 핵심어로 등장했다. 또한, 청소년사업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쓰여지는 활동(5위), 동아리(8위), 프로그램(14위), 사업(21위) 등의 단어가 빈출되었다. 지도자로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는 고민(11위), 보람(14위), 걱정(22위), 진심(22위), 스트레스(22위)가 나타났다. 청

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핵심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표 5-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청소년						지도자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1	친구	184	16	항상	19	1	친구	204	16	청년	16
2	학교	114	16	중학교	19	2	아이	122	17	학교	15
3	공부	96	18	평일	18	3	생각	68	17	연락	15
4	시간	70	18	선생님	18	4	청소년	66	19	전화	14
5	활동	59	20	아침	17	5	활동	48	29	회의	14
6	학년	44	20	유튜브	17	6	선생님	41	21	사업	13
7	코로나	40	20	처음	17	7	시간	35	22	성과	10
8	학원	37	23	가족	16	8	동아리	26	22	걱정	10
9	수업	35	23	수련	16	9	지도자	22	22	개인	10
10	생각	32	25	아빠	15	10	지원	19	22	학년	10
11	주말	29	25	생활	15	11	고민	18	22	시작	10
12	엄마	29	27	보통	14	11	마음	18	22	진심	10
13	청소년	25	27	집중	14	11	사람	18	22	스트레스	10
14	토요일	24	29	준비	13	14	프로그램	17	29	부모님	9
15	게임	19	29	혼자	13	14	보람	17	29	변화	9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그림 5-1>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워드클라우드

2) 중심성 분석결과

-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중 청소년 데이터의 중심성 값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중심성에서 학교, 친구, 시간, 공부, 주말, 활용, 코로나 등의 단어가 상위권으로 도출되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은 학교생활, 친구와의 관계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공부, 학원 등 학습의 측면도 꾸준히 감내하는 단어 또한 도출되었다.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 속에서 친구, 엄마, 선생님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표 5-2〉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학교	0.706	1	학교	0.488
2	친구	0.542	2	친구	0.325
3	시간	0.389	3	시간	0.141
4	공부	0.259	4	공부	0.063
5	주말	0.192	5	활동	0.047
6	활동	0.180	6	주말	0.039
7	코로나	0.169	7	아침	0.032
8	학원	0.129	8	코로나	0.024
9	수업	0.124	9	선생님	0.016
9	아침	0.124	10	엄마	0.013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학교	0.772	1	학교	0.404
2	친구	0.680	2	친구	0.341
3	시간	0.621	3	시간	0.292
4	공부	0.569	4	공부	0.236
5	주말	0.551	5	주말	0.185
6	활동	0.541	6	활동	0.176
7	코로나	0.534	6	코로나	0.176
8	수업	0.525	8	수업	0.166
8	학원	0.525	9	학원	0.145
10	아침	0.520	10	선생님	0.139

- 지도자의 경우 중심성 분석결과 친구, 생각, 아이, 활동, 청소년, 시간, 선생님, 학교, 동아리가 모든 중심성에서 상위권 단어로 도출되었다. 주로 친구, 청소년, 아이, 선생님은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며 만나는 대상으로 유추된다. 한편 활동, 동아리, 프로그램 등 청소년지도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 또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감정과 관련된 단어 또한 도출되었는데 보람, 걱정 등이 이에 해당했다.

〈표 5-3〉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780	1	친구	0.355
2	생각	0.649	2	아이	0.209
3	아이	0.575	3	생각	0.172
4	활동	0.438	4	활동	0.080
5	청소년	0.337	5	청소년	0.063
6	시간	0.314	6	시간	0.029
7	선생님	0.205	7	선생님	0.021
8	학교	0.201	8	학교	0.013
9	동아리	0.131	9	보람	0.008
10	부모	0.110	10	프로그램	0.007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816	1	친구	0.325
2	생각	0.736	2	생각	0.306
3	아이	0.695	3	아이	0.247
4	활동	0.633	4	활동	0.239
5	청소년	0.595	5	시간	0.191
6	시간	0.584	6	청소년	0.164
7	선생님	0.549	7	학교	0.133
8	학교	0.548	8	선생님	0.117
9	동아리	0.525	9	부모	0.093
10	프로그램	0.520	10	동아리	0.089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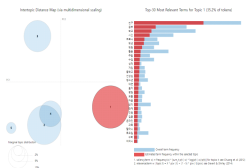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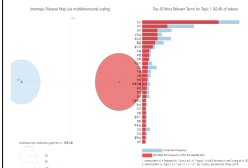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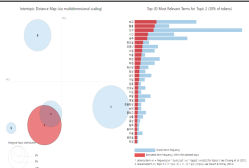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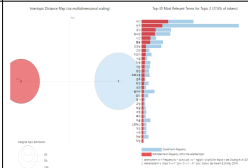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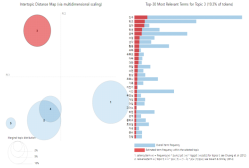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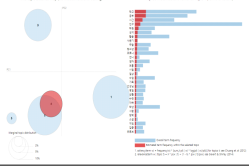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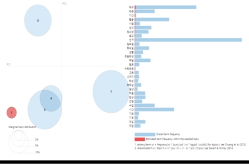
□ 토픽모델링을 통해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잠재 주제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경우 총 5개의 토픽이 형성되었고, 지도자는 총 2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토픽 1번(35.2% 비중)의 경우 친구, 공부, 코로나, 학원, 성적, 대면, 혼자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생활과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주요 맥락을 살펴 본 결과 청소년들은 대체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원과 활동을 병행했으며 대면 또는 혼자인 상황 속에 놓여졌지만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관계를 이어 나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토픽 2번(30.0% 비중)은 학교, 활동, 친구, 시간, 공부, 토요일, 학원, 운동 등의 단어가 핵심어로 등장했는데 대체로 주말인 토요일에 주요 과업인 학업도 이행하지만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학업과 병행하는 주말 시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토픽명으로 명명했다. 토픽 3번(19.3% 비중)은 청소년이 어떤 계기로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과정에 관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체로 관계적인 측면의 대상들인 친구, 가족들이 청소년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주변 관계’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4번(13.1% 비중)의 경우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과 개인이 영위하는 취미 또는 여가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으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토픽 5번(2.5% 비중)의 경우 주말 시간에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시간을 쏟는 청소년의 모습과 관련된 단어들이 핵심어로 등장했다. 학원, 시험, 토요일, 일요일, 수학학원 등의 단어에 이에 해당했다. 따라서 토픽 5번은 ‘부족한 학업 보충을 위한 주말학습’으로 토픽명으로 부여하였다.

〈표 5-4〉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35.2%)	친구, 공부, 학교, 시간, 코로나, 학원, 활동, 수업, 성적, 게임, 중학교, 선생님, 청소년, 대면, 혼자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1 (62.4%)	친구, 아이, 생각, 선생님, 청소년, 활동, 동아리, 마음, 보람, 연락, 지도자, 시간, 지원, 사람, 전화	청소년사업 으로 청소년을 만날 때 겪는 감정과 행위
2 (30.0%)	학교, 활동, 친구, 시간, 공부, 토요일, 수업, 처음, 학원, 청소년, 항상, 생각, 운동, 선생님, 느낌	학업과 병행하는 주말 시간의 다양한 활동	2 (37.6%)	아이, 친구, 생각, 청소년, 시간, 활동, 선생님, 고민, 지도자, 사업, 지원, 사람, 청년, 프로그램, 업무	청소년사업 운영에 관한 무게감
3 (19.3%)	친구, 학교, 엄마, 공부, 수업, 생각, 활동, 오빠, 아빠, 대화, 주말, 수련, 항상, 가족, 시간	청소년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주변 관계			
4 (13.1%)	시간, 사춘기, 주말, 언니, 엄마, 보통, 일상, 가족, 평일, 생활, 아빠, 사람, 방학, 소셜, 게임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			
5 (2.5%)	학교, 학원, 기간, 시험, 생각, 친구, 일요일, 토요일, 생활, 초등학생, 주말, 발표, 수학학원, 교육, 나머지	부족한 학업 보충을 위한 주말 학습			

- 지도자의 경우 토픽 1번(62.4% 비중)의 경우 일상 속에서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을 만나면서 겪는 감정과 행위와 연관된 보람, 지원, 마음 등의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으로 청소년을 만날 때 겪는 감정과 행위’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지도자 토픽 2번(비중 37.6%)은 ‘청소년사업 운영에 관한 무게감’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으며 주요 맥락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사업 운영에 있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고민이 심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그림 5-3〉 청소년과 지도자가 경험한 일상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35.2%)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1 (62.4%)		청소년사업 으로 청소년을 만날 때 겪는 감정과 행위
2 (30.0%)		학업과 병행하는 주말 시간의 다양한 활동	2 (37.6%)		청소년사업 운영에 관한 무게감
3 (19.3%)		청소년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주변 관계			
4 (13.1%)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			
5 (2.5%)		부족한 학업 보충을 위한 주말 학습			

2.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에 대하여 핵심어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1위), 가족(4위), 부모님(9위) 등 관계에 관한 단어들이 상위권으로 빈출되었다. 내면적 상황과 연관된 단어 또한 도출되었는데 행복(6위), 고민(9위), 성격(14위), 자존감(18위), 안정감(18위), 스트레스(23위), 감정(23위), 마음(23위), 여유(23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한편, 과업을 묘사하는 단어인 공부(5위), 취업(14위), 직업(18위), 학업(23위) 또한 도출되었다. 한편, 미래(11위), 인생(11위), 진로(14위) 등 인생의 방향성을 내포하는 단어 또한 빈출되었다.

〈표 5-5〉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청소년						지도자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1	친구	42	14	성격	6	1	생각	52	15	개인	7
2	사람	39	14	취업	6	2	사람	34	15	현재	7
3	생각	28	18	자존감	5	3	가족	31	15	만족감	7
4	가족	26	18	안정감	5	4	행복	32	15	가정	7
5	공부	20	18	직업	5	5	시간	20	15	생활	7
6	행복	11	18	도움	5	6	아이	19	15	사업	7
7	혼자	10	18	준비	5	7	친구	16	22	즐거움	6
8	모습	9	23	스트레스	4	8	거짓말	13	22	회사	6
9	부모님	8	23	감정	4	9	안정감	12	24	결혼	5
9	고민	8	23	관리	4	10	상황	10	24	주변	5
11	미래	7	23	문제	4	11	사랑	9	24	운동	5
11	인생	7	23	마음	4	11	청소년	9	24	인간관계	5
11	관계	7	23	여유	4	13	건강	8	24	인생	5
14	진로	6	23	학업	4	13	마음	8	24	영향	5
14	생활	6	23	어른	4	15	직장	7	24	개발	5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2) 중심성 분석결과

□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경우 중심성 분석결과 모든 중심성에서 친구, 생각, 공부, 사람, 나중, 마음, 항상, 자주가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인생의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만족감과 기대감을 가지는 대상으로 청소년은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또한 높은 순위로 모든 중심성에서 도출되었다. 가족 또한 친구와 함께 중요한 대상으로 함께 언급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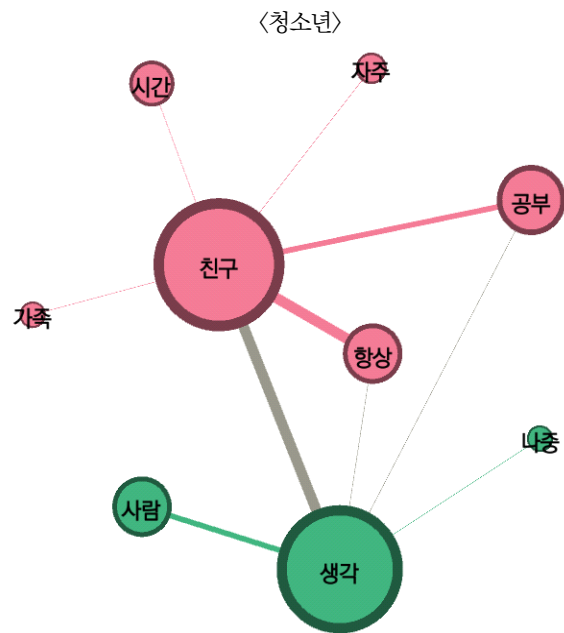
〈표 5-6〉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생각	0.290	1	친구	0.255
2	친구	0.279	2	생각	0.218
3	공부	0.139	3	공부	0.104
4	사람	0.116	4	사람	0.072
4	나중	0.116	5	가족	0.061
6	가족	0.081	6	나중	0.047
7	마음	0.069	7	마음	0.021
8	항상	0.058	8	항상	0.014
9	시간	0.046	9	어른	0.005
10	자주	0.034	10	자주	0.002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417	1	생각	0.503
1	생각	0.417	2	친구	0.415
3	공부	0.351	3	공부	0.254
4	사람	0.331	4	사람	0.207
5	항상	0.321	5	나중	0.199
5	시간	0.321	6	항상	0.198
7	모습	0.318	7	마음	0.192
8	마음	0.313	7	시간	0.192
9	자주	0.304	9	모습	0.165
10	나중	0.295	10	자주	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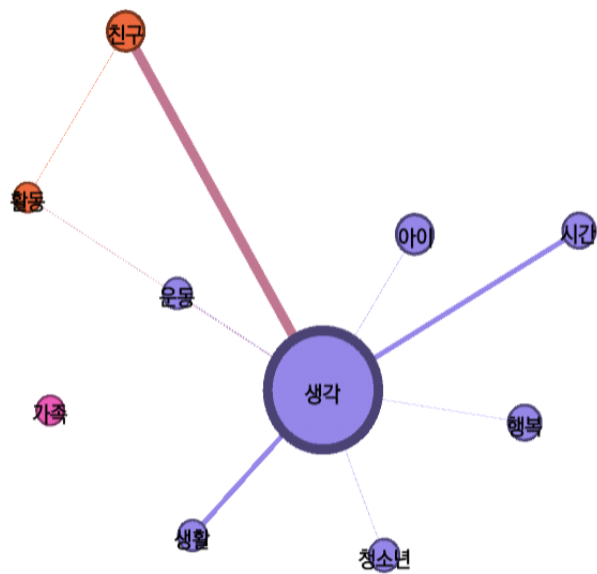
- 지도자의 경우 중심성 분석결과 생각, 친구, 아이, 시간, 행복, 생활, 운동, 청소년이 상위 단어로 도출되었다. 지도자는 가정, 직장 생활에서 대면하는 대상인 친구, 아이, 청소년을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 기대감에 있어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운동, 생활 등 일상을 나타내는 단어 또한 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요 단어들 사이에 감정을 나타내는 행복이 상위권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7〉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생각	0.790	1	생각	0.759
2	친구	0.139	2	가족	0.062
2	아이	0.139	3	아이	0.056
4	시간	0.104	4	시간	0.043
4	행복	0.104	5	청소년	0.022
6	생활	0.081	6	주변	0.019
6	운동	0.081	7	행복	0.014
8	청소년	0.069	8	친구	0.008
8	주변	0.069	9	운동	0.002
10	활동	0.058	9	생활	0.002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생각	0.803	1	생각	0.637
2	아이	0.474	2	친구	0.189
3	친구	0.465	3	아이	0.163
4	행복	0.462	4	행복	0.155
5	시간	0.456	5	시간	0.144
5	청소년	0.456	6	운동	0.141
7	주변	0.560	7	생활	0.131
8	운동	0.450	8	활동	0.122
9	생활	0.447	9	주변	0.117
9	가족	0.447	10	청소년	0.113



〈지도자〉



〈그림 5-5〉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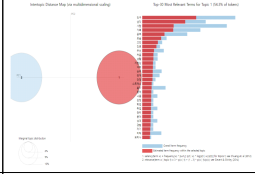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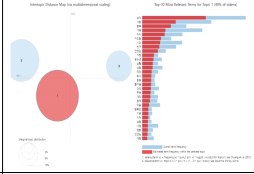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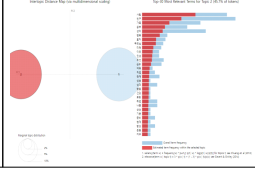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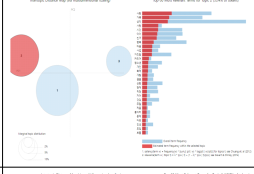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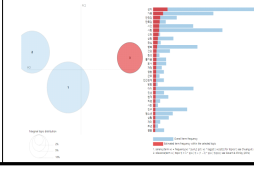
- 청소년의 경우 인생의 우선 순위와 만족감·기대감에 대하여 총 2개의 토픽이 형성되었고, 지도자는 총 3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 먼저 청소년의 경우 토픽 1번(54.3% 비중)에서 공부, 진로, 생활 등과 같이 현재 해야 할 과업과 더불어 친구, 가족 등 관계에 대한 단어들이 함께 형성되고 있었다. 더불어 스트레스, 안전, 자존감, 고민 등 내면적 상황에 관한 단어 또한 토픽 1번으로 함께 등장했다.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맥락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스스로 현재의 과업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해내야 할 과업과 마음가짐’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2번(45.7% 비중)의 경우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의 자신에게 바라는 점과 관련한 단어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단어에 대한 맥락을 확인한 결과 친구, 가족 등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며 혼자인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스스로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의 나에게 바라는 점’으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 지도자의 경우 토픽 1번(49.0% 비중)은 ‘일과 가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일터와 가정에서 만나는 관계와 관련된 단어인 가족, 친구, 청소년 등의 단어가 토픽을 구성하였고 가정과 일터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관련된 단어인 안정감, 즐거움 등이 나타났다. 토픽 2번(33.4% 비중)의 경우 지도자가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내포하는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도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이 포착되었는데 축제, 동아리 등이 이에 해당했다. 또한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인 행복, 짜증 등의 단어도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 2번은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으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3번(17.7% 비중)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과 관련한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개인적인 건강과 재정적 상황, 가족, 회사 등에서 안정감, 만족감,

행복, 완성, 재미 등이 찾고자 하는 맥락을 원본 데이터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고, 토픽 3번의 토픽명을 ‘해내고자 하는 인생의 과업과 삶의 이유’로 부여하였다.

〈표 5-8〉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기대감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54.3%)	친구, 생각, 사람, 가족, 공부, 모습, 고민, 진로, 처음, 생활, 자존감, 관계, 안정, 스트레스, 혼자	현재 해내야 할 과업과 마음가짐	1 (49.0%)	행복, 가족, 친구, 안정감, 가정, 청소년, 생활, 상황, 직장, 회사, 운동, 즐거움, 건강, 현재, 개발	일과 가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2 (45.7%)	사람, 친구, 가족, 공부, 생각, 행복, 혼자, 부모님, 미래, 이유, 인생, 여유, 직업, 관계, 성숙	미래의 나에게 바라는 점	2 (33.4%)	행복, 커리어, 청소년, 개인, 축제, 개발, 상황, 현재, 직장, 자아, 건강, 주말, 짜증, 동아리, 문제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
			3 (17.7%)	가족, 안정감, 만족감, 신앙, 관심, 행복, 건강, 완성, 즐거움, 회사, 재정, 인간관계, 방향, 인생, 재미	해내고자 하는 인생의 과업과 삶의 이유

〈그림 5-6〉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기대감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54.3%)		현재 해내야 할 과업과 마음가짐	1 (49.0%)		일과 가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2 (45.7%)		미래의 나에게 바라는 점	2 (33.4%)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
			3 (17.7%)		해내고자 하는 인생의 과업과 삶의 이유

3.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한 핵심어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은 친구(1위), 가족(6위), 엄마(7위), 부모님(13위), 언니(14위) 등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권으로 등장했다. 공부(4위) 또한 상위권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여가와 감정 및 가치관에 관한 단어도 등장하였다. 먼저 여가와 관련된 단어는 게임(10위), 노래(14위) 등이었으며, 감정 및 가치관과 관련된 단어는 고민(18위), 마음(18위), 스트레스(18위), 공감(25위) 등에 해당했다.

〈표 5-9〉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청소년						지도자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1	친구	60	14	여행	8	1	친구	262	16	동아리	20
2	사람	43	14	언니	8	2	아이	176	17	사람	19
3	생각	32	18	고민	7	3	선생님	76	18	상담	18
4	공부	20	18	마음	7	4	생각	74	18	학원	18
5	행복	19	18	처음	7	5	활동	67	18	노래	18
6	가족	18	18	스트레스	7	6	학교	62	18	혼자	18
7	엄마	13	18	모습	7	7	부모님	36	22	도움	17
8	혼자	12	18	학년	7	8	시간	31	23	어른	16
8	주변	12	18	항상	7	9	청소년	26	23	재미	16
10	시간	11	25	공감	6	10	가정	25	25	주말	15
10	게임	11	25	음식	6	11	프로그램	24	26	또래	14
12	학교	10	25	성격	6	11	연락	24	26	학년	14
13	부모님	9	25	경험	6	11	엄마	24	26	학습	14
14	노래	8	25	인생	6	14	가족	23	26	경험	14
14	맛있는	8	30	기준	5	15	관계	22	30	감정	13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관계적 측면과 연관된 단어인 친구(1위), 선생님(3위), 부모님(7위), 가족(14위), 어른(16위) 등이 도출되었다. 청소년사업과 연관된 단어 또한 상위권으로 도출되었는데 활동(5위), 프로그램(11위), 동아리(16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림 5-7〉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 워드클라우드

2) 중심성 분석결과

□ 청소년은 행복에 있어 친구, 사람 등 대상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네 가지 중심성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이외 학교, 가족 주변 등 상위권에 등장한 단어들 역시, 대상과 공부에 관련된 것이었다. 다만, 혼자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개별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10〉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471	1	친구	0.548
2	시간	0.179	2	사람	0.198
2	사람	0.179	3	생각	0.160
4	생각	0.157	4	행복	0.101
5	맛있는	0.101	5	맛있는	0.098
5	행복	0.101	6	시간	0.088
7	공부	0.089	7	공부	0.062
7	학교	0.089	8	학교	0.026
7	혼자	0.089	9	혼자	0.024
10	가족	0.067	10	가족	0.021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599	1	친구	0.574
2	생각	0.476	2	시간	0.275
3	사람	0.530	3	생각	0.237
4	시간	0.423	4	혼자	0.181
5	행복	0.415	5	학교	0.166
6	맛있는	0.410	6	사람	0.164
7	공부	0.401	6	노래	0.164
8	주변	0.399	8	행복	0.159
9	항상	0.397	9	공부	0.157
10	친한	0.392	10	친한	0.146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비슷하게 대상과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친구의 경우 청소년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단어였다면 지도자는 친구 외에도 선생님, 엄마를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행복과 관련된 단어로 공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지도자들은 공부에 더해 활동, 재미 등의 요소들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893	1	친구	0.727
2	선생님	0.404	2	선생님	0.124
3	생각	0.378	3	생각	0.084
4	아이	0.272	4	아이	0.047
5	학교	0.227	4	학교	0.047
6	활동	0.121	6	활동	0.013
7	엄마	0.075	7	도움	0.010
8	필요	0.055	7	시간	0.010
8	시간	0.055	9	엄마	0.002
8	공부	0.055	10	학원	0.001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902	1	친구	0.480
2	선생님	0.621	2	선생님	0.312
3	생각	0.610	3	생각	0.297
4	아이	0.572	4	아이	0.236
5	학교	0.559	5	학교	0.213
6	활동	0.524	6	활동	0.149
7	엄마	0.511	7	엄마	0.121
8	시간	0.506	8	필요	0.105
9	필요	0.505	9	시간	0.098
10	재미	0.503	10	재미	0.094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한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의 경우 총 3개의 토픽이 형성되었고 지도자는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먼저 청소년 토픽 1번(42.3% 비중)에서는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주요 맥락을 살펴본 결과, 공부, 기준, 문제, 해결 등 학업의 과정에서 성취감을 획득할 때와 연관된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한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연관된 단어들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혼자, 음식, 게임, 여행, 경험, 기분, 긍정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했다. 따라서 토픽 1번은 '나만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2번(31.6% 비중)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과 연관된 단어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그 맥락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함께 낮잠, 카페가기, 여행, 게임 등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며 이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토픽 2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번(26.1% 비중)의 경우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요소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친구, 가족, 선생님, 강아지가 이에 해당했다. 영화, 산책, 여행 등 여가와 관련된 단어도 토픽 3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공감, 도움, 안정, 고민, 조언 등의 행위적인 측면과 연관된 단어도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 3번의 경우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 한편,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행복에 관해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먼저 토픽 1번(29.8% 비중)은 혼자가 아닌 가족 또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그 맥락을 살펴본 결과 친구, 가족들과 함께 주말 상황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1번은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명명했다. 토픽 2번(27.0% 비중)은 노래, 동아리, 학습, 진로, 연극 등의 행위에 대해 선생님, 부모님, 가족, 어른들이 보내는 지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단어 또한 토픽 내에 구성되었다. 따라서 토픽 2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진로 관련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번(20.1% 비중)의 경우 청소년사업을 통해 새롭게 경험한 요소들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래, 동아리, 상담, 연극 등의 경험과 더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상황 등의 맥락을 원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토픽 3번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으로 토픽명을 부여했다. 토픽 4번(15.6% 비중)은 청소년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와 연관된 단어인 행복감, 스트레스, 안정감과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인 대상들인 친구, 부모님, 가정 등이 핵심어로 등장했다. 또한 격차, 도움 등과 같이 지원의 측면이 내포된 단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맥락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4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5번(7.5% 비중)의 경우 청소년이 입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프로그램, 활동, 체업, 참여, 다양 등이 이에 해당했으며 재미, 도움, 변화 등을 기대하는 내용들도 원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5번은 ‘입시를 벗어나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표 5-12〉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행복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42.3%)	공부, 생각, 게임, 음식, 혼자, 기준, 공감, 경험, 기분, 성격, 예전, 여행, 해결, 문제, 주말, 긍정	나만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	1 (29.8%)	친구, 활동, 가정, 가족, 장난, 어머니, 연락, 주말, 관계, 특성, 부모님, 재미, 혼자, 감정, 행동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2 (31.6%)	엄마, 부모님, 언니, 공부, 학교, 할머니, 마음, 아빠, 침대, 스트레스, 낮잠, 가족, 카페, 여행, 게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2 (27.0%)	선생님, 학교, 부모님, 가족, 노래, 어른, 엄마, 동아리, 관계, 도움, 영향, 학습, 진로, 연극, 경험	주변 사람들에게 지니받는 진로 관련 경험
3 (26.1%)	친구, 가족, 행복, 시간, 인생, 고민, 영화, 산책, 여행, 선생님, 공감, 도움, 안정, 강아지, 조언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3 (20.1%)	노래, 부모님, 시간, 동아리, 상담, 또래, 연극, 필요, 공간, 준비, 학원, 도움, 고등학교, 자격증, 어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4 (15.6%)	친구, 부모님, 가정, 관계, 상담, 행복감, 개인, 경험, 청소년, 스트레스, 안정감, 도움, 지역, 격차, 표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
			5 (7.5%)	프로그램, 활동, 재미, 체험, 학교, 강사, 다양, 참여, 주말, 입시, 도움, 순간, 신청, 변화, 마음	입시를 벗어나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

〈그림 5-9〉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행복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42.3%)		나만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	1 (29.8%)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2 (31.6%)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2 (27.0%)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진로 관련 경험
3 (26.1%)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3 (20.1%)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4 (15.6%)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
			5 (7.5%)		입시를 벗어나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

4.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관하여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 관계와 학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 단어로 도출되었다. 먼저 관계와 관련된 단어는 친구(2위), 선생님(4위), 언니(16위)로 도출되었다. 학업과 관련된 경우는 수학(7위), 학원(16위), 공부(20위), 과제(26위), 영어(26위)가 이에 해당했다.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게 되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 또한 빈출되었는데 짜증(10위), 걱정(26위), 상처(26위)가 이에 해당했다.
- 한편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관계, 지지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관계와 관련된 단어는 친구(1위), 선생님(3위), 부모(5위), 어머니(19위), 어른(18위), 가정(20위)이 도출되었다. 한편 지지와 관련된 단어들도 빈출되었는데 마음(14위), 도움(20위), 소통(28위), 상담(28위)이 이에 해당했다. 지도자들은 대체로 앞서 지지와 관련된 단어들이 청소년에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인지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중심성 분석결과

-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 청소년은 모든 중심성에서 선생님과 못하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청소년은 수학, 공부 등 학업과 관련된 단어들을 스트레스와 연결하여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관계에 대한 영역도 언급하였는데 선생님과 더불어 친구가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친구, 선생님 등의 관계영역, 주요 과목 등 학업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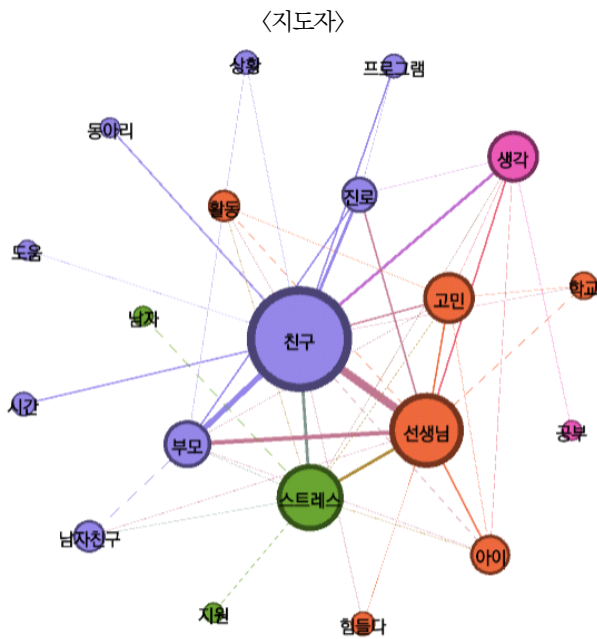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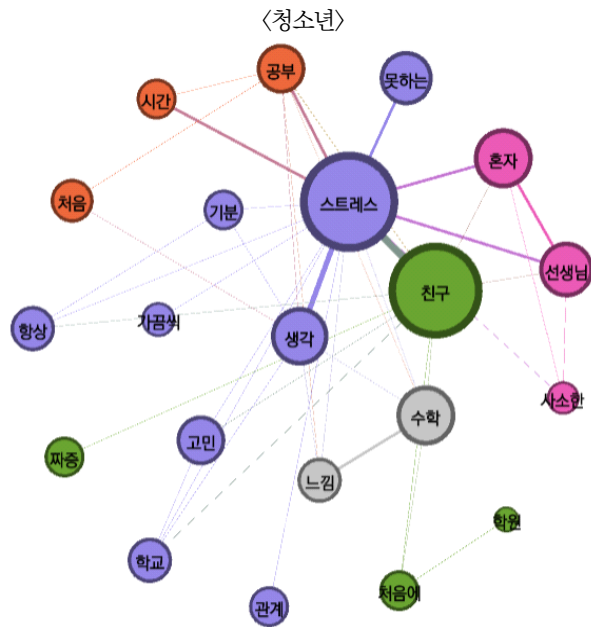
〈표 5-14〉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스트레스	0.518	1	친구	0.420
2	친구	0.490	2	스트레스	0.316
3	생각	0.264	3	고민	0.133
3	수학	0.264	4	수학	0.090
3	혼자	0.254	5	생각	0.067
6	선생님	0.235	6	공부	0.047
7	못하는	0.226	7	혼자	0.038
8	공부	0.198	8	선생님	0.034
8	관계	0.198	9	학교	0.032
10	사소한	0.169	10	못하는	0.031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스트레스	0.662	1	스트레스	0.328
2	친구	0.649	2	혼자	0.263
3	혼자	0.537	3	선생님	0.252
4	수학	0.534	4	못하는	0.236
5	생각	0.525	5	관계	0.218
5	선생님	0.525	6	사소한	0.208
7	못하는	0.520	7	가끔씩	0.206
8	공부	0.517	8	생각	0.192
8	고민	0.517	9	답임	0.189
10	학교	0.512	9	도움	0.189

-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가질지에 대해 친구, 선생님, 부모 등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와 진로, 활동 등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주로 언급했다. 지도자의 경우 활동, 진로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언급하면서 청소년들이 수학, 공부 등 학업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표 5-15〉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676	1	친구	0.583
2	선생님	0.441	2	스트레스	0.251
3	스트레스	0.382	3	선생님	0.231
4	부모	0.264	4	생각	0.174
4	생각	0.264	5	부모	0.030
6	고민	0.235	6	고민	0.010
7	아이	0.176	7	진로	0.009
8	진로	0.147	8	아이	0.001
9	남자친구	0.117	9		
9	활동	0.117	10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755	1	친구	0.447
2	선생님	0.641	2	선생님	0.384
3	스트레스	0.618	3	스트레스	0.335
4	생각	0.576	4	고민	0.300
5	고민	0.566	5	부모	0.297
6	부모	0.548	6	아이	0.262
6	아이	0.548	7	생각	0.261
8	진로	0.507	8	진로	0.190
8	남자친구	0.507	9	활동	0.189
8	활동	0.507	9	남자친구	0.189



〈그림 5-11〉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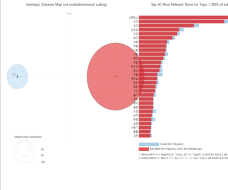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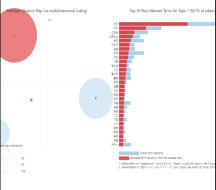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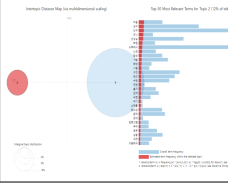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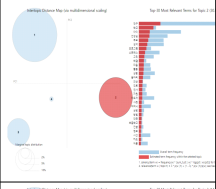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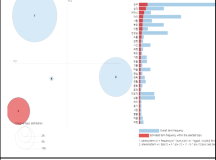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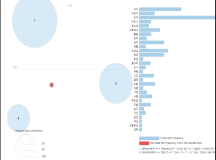
-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경우 총 2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지도자는 총 4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토픽 1번(88.0% 비중)은 학습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짜증, 고민, 걱정, 상처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 1번은 ‘주요 과목이 풀리지 않을 때’로 명명하였다. 토픽 2번(12.0% 비중)의 경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토픽을 구성했다.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학원, 수련관 등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된다. 그 안에서 무리를 형성하기도 하며 갈등이 생길 시 고민에 직면하기도 했다. 토픽 2번의 경우 인간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소속된 환경에서의 인간관계’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 한편,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4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는데 먼저 토픽 1번(54.7% 비중)의 경우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어려울 때’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1번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는 가정, 또래 등 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공부, 학업, 동아리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것들에 대해 마음, 재미, 고민 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울 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토픽 2번(30.5% 비중)의 경우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원하는 정보와 방법 등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원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는 진로, 지원, 상담, 방법, 정보, 고민 등이었으며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지 못할 때’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3번(14.4% 비중)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상황 등과 관련된 맥락이 원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을 이루는 핵심어는 친구, 어머니, 선생님, 소통, 감정, 마음, 짜증, 차이 등이 있었으

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4번(0.4% 비중)의 경우 청소년들이 과업 등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표 5-16〉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상황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88.0%)	스트레스, 고민, 수학, 짜증, 문제, 상황, 공부, 혼자, 걱정, 영어, 느낌, 상처, 학원, 입장, 과제	주요과목이 풀리지 않을 때	1 (54.7%)	생각, 고민, 시간, 동아리, 활동, 개인, 학원, 재미, 마음, 도움, 가정, 공부, 직접, 또래, 역할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어려울 때
2 (12.0%)	처음, 친구, 언니, 선생님, 학원, 스트레스, 고민, 학교, 전환, 혼자, 관계, 수련, 스케줄, 무리, 공부	소속된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2 (30.5%)	스트레스, 고민, 해결, 마음, 동아리, 진로, 지원, 사정, 어머니, 상담, 방법, 대면, 진행, 정보, 시간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지 못할 때
			3 (14.4%)	친구, 어머니, 선생님, 소통, 감정, 예의, 가정, 마음, 관심, 역할, 문화, 추억, 차이, 짜증, 걱정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4 (0.4%)	스트레스, 역할, 취업, 동아리, 역량, 고민, 결정, 상황, 성향, 가정, 마음, 개인, 집안, 대상, 고등학생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

〈그림 5-12〉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88.0%)		주요과목이 풀리지 않을 때	1 (54.7%)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어려울 때
2 (12.0%)		소속된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2 (30.5%)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지 못할 때
			3 (14.4%)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4 (0.4%)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

5.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과 관련하여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경우 관계와 연관된 단어인 친구(2위), 선생님(4위), 부모님(5위), 언니(6위), 엄마(8위), 가족(8위), 아빠(25위)가 상위 핵심어로 빈출되었다. 또한 과업과 관련된 단어들 또한 도출되었는데 공부(15위), 학업(15위), 시험(19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해결 및 도움과 관련된 단어인 도움(11위), 해결(14위), 조언(30위) 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17〉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과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청소년						지도자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1	스트레스	38	15	학업	8	1	생각	59	16	S시	12
2	친구	37	17	마음	7	2	친구	58	16	기회	12
3	생각	23	17	상황	7	3	활동	56	18	체육	11
4	선생님	19	19	활동	6	4	청소년	46	18	필요	11
5	부모님	16	19	항상	6	5	프로그램	42	18	재미	11
6	언니	15	19	느낌	6	6	학교	41	18	기업	11
7	학교	13	19	학년	6	7	아이	37	22	스트레스	10
8	문제	12	19	동아리	6	8	공간	26	23	동아리	9
8	엄마	12	19	시험	6	9	사업	21	23	해소	9
8	가족	12	25	아빠	5	9	자원	21	23	문화	9
11	도움	11	25	사회	5	11	선생님	20	23	직업	9
11	사람	11	25	중학교	5	12	시간	19	23	청년	9
13	기분	10	25	노래	5	13	진로	17	23	직접	9
14	해결	9	25	이사	5	14	게임	16	29	기본	8
15	공부	8	30	조언	4	14	체험	16	29	활용	8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 한편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에 대하여 지도자 또한 관계에 대한 단어를 주요한 단어로 언급하였다. 친구(2위), 선생님(11위)가 이에 해당했다. 한편 청소년사업의 형태와 연관된 단어가 빈출되기도 하였는데 프로그램(5위), 공간(8위), 자원(9위), 체험(14위), 동아리(23위)가 관련된 단어였다. 주제적 측면에서의 단어인 진로(13위), 게임(14위), 체육(18위), 기업(18위), 문화(23위), 직업(23위) 등도 빈출되었다. 청소년사업 대상에 대해 청소년(4위)과 청년(23위)을 함께 언급하기도 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결 및 도움과 유사한 단어도 빈출되었는데 기회(16위), 해소(23위), 직업(23위), 활용(29위)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림 5-13〉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워드클라우드

2) 중심성 분석결과

- 스트레스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 학교, 도움, 엄마, 마음 등이 중심성 분석결과 주요한 단어로 도출되었다. 스트레스 극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와 엄마가 지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도움과 마음이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분, 친한 등의 단어도 함께 도출되었는데 이는 호전적인 관계와 스트레스가 연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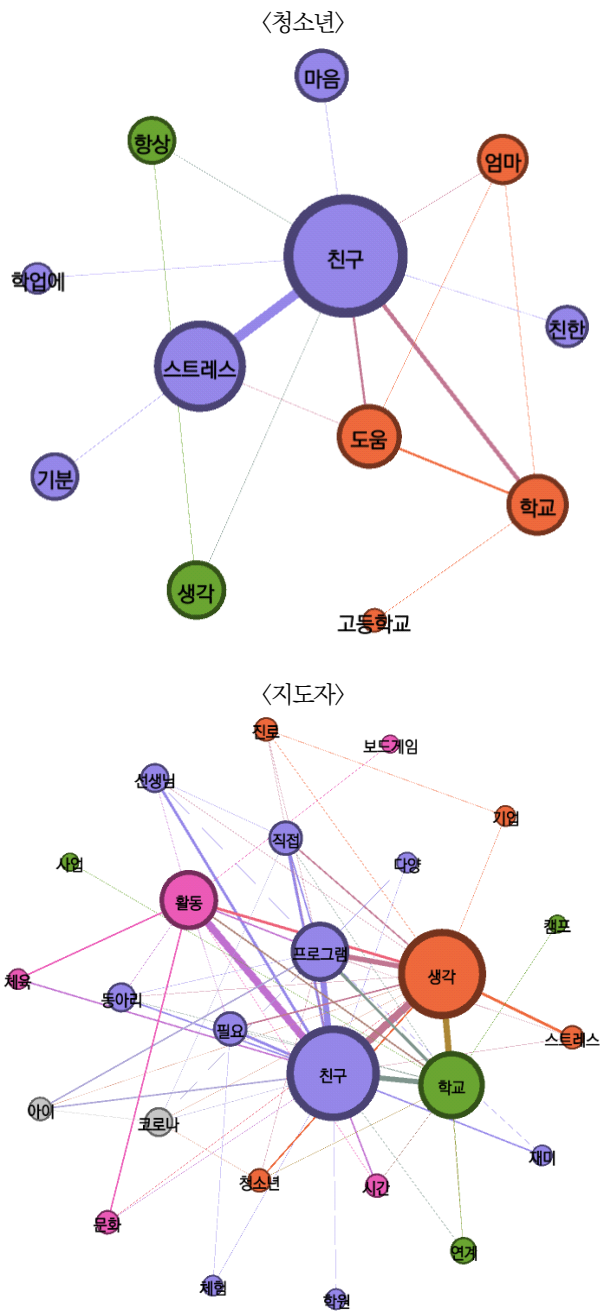
〈표 5-18〉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520	1	친구	0.427
2	스트레스	0.356	2	스트레스	0.317
3	학교	0.219	3	학교	0.122
4	생각	0.205	4	도움	0.119
5	도움	0.191	5	생각	0.115
6	엄마	0.164	6	기분	0.080
7	마음	0.150	7	마음	0.078
8	항상	0.136	8	엄마	0.042
89	친한	0.136	9	노력	0.030
10	중학교	0.109	10	문제	0.025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639	1	친구	0.478
2	스트레스	0.562	2	생각	0.280
3	도움	0.505	3	학교	0.265
4	학교	0.501	4	스트레스	0.255
4	생각	0.501	5	항상	0.231
6	마음	0.459	6	엄마	0.230
7	엄마	0.449	6	친한	0.230
8	기분	0.440	8	도움	0.225
9	항상	0.434	9	중학교	0.200
9	친한	0.434	10	마음	0.171

-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에 대해 친구, 선생님 등의 단어를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청소년들이 도움이나 마음 등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주로 언급했다면 지도자들은 코로나와 같은 현상을 주로 이야기했다. 또한 지도자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등의 단어들도 주요하게 등장했다.

〈표 5-19〉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591	1	친구	0.378
2	생각	0.551	2	생각	0.346
3	학교	0.387	3	학교	0.243
4	활동	0.326	4	활동	0.160
4	프로그램	0.326	5	프로그램	0.067
6	직접	0.142	6	직접	0.043
6	코로나	0.142	7	코로나	0.024
8	선생님	0.102	8	아이	0.017
8	필요	0.102	9	필요	0.008
8	동아리	0.102	10	청소년	0.006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710	1	친구	0.419
2	생각	0.690	2	생각	0.403
3	학교	0.612	3	프로그램	0.321
4	프로그램	0.597	4	학교	0.298
5	활동	0.583	5	활동	0.276
6	직접	0.521	6	직접	0.189
7	필요	0.515	7	동아리	0.180
7	동아리	0.515	8	코로나	0.172
9	선생님	0.494	9	선생님	0.169
10	코로나	0.490	10	필요	0.153



〈그림 5-14〉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중심성 기반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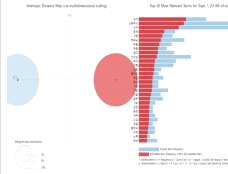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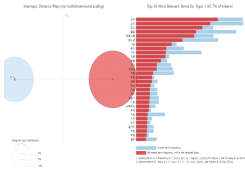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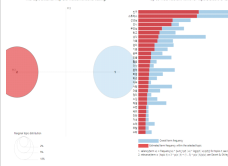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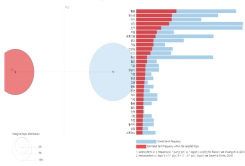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과 관련한 토픽모델링의 경우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각각 주제가 2개씩 도출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토픽 1번(51.4% 비중)에서 관계와 관련된 단어인 친구, 가족 등과 함께 학업과 관련된 단어인 학업, 공부, 시험 등이 도출되었다. 관계와 학업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지 도움, 긍정, 기분, 감정, 노력 등의 단어들도 빈출되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주요 맥락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토픽 1번의 토픽명은 ‘학업과 관계의 긍정적 변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2번(48.6% 비중)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관련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맥락을 살펴본 결과, 공부, 학업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 도움을 얻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수련관 등의 경험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내용 또한 포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2번의 토픽명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토픽명을 부여했다.
-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사업 운영 관점에서의 토픽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토픽 1번(61.7% 비중)의 경우 활동, 공간, 진로, 체험, 자원, 직업, 해소, 동아리, 재미, 학원 등의 단어가 토픽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주요 맥락을 살펴본 결과 학업을 벗어나 의미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을 기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1번은 ‘학업을 벗어난 재미있는 경험’으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토픽 2번(38.3% 비중)의 경우 자원, 프로그램, 공간, 게임, 기업, 인맥 등의 단어가 토픽으로 구성되었는데 맥락을 확인한 결과 지도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 2번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사업’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표 5-20〉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51.4%)	친구, 문제, 도움, 가족, 동아리, 학업, 시험, 기분, 마음, 공부, 감정, 긍정, 느낌, 경험, 노력	학업과 관계의 긍정적 변화	1 (61.7%)	활동, 공간, 진로, 체험, 자원, 직업, 체육, 해소, 기업, 재미, 기회, 게임, 의미, 동아리, 학원	학업을 벗어난 재미있는 경험
2 (48.6%)	가족, 기분, 공부, 도움, 이사, 문제, 학업, 마음, 정리, 해결, 수련, 배려, 전환, 저녁, 주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2 (38.3%)	자원, 프로그램, 공간, 게임, 기회, 청년, 교육, 문화, 공연, 재미, 기업, 협의, 인맥, 동아리, 상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그림 5-15〉 청소년과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 스트레스 극복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51.4%)		학업과 관계의 긍정적 변화	1 (61.7%)		학업을 벗어난 재미있는 경험
2 (48.6%)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2 (38.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6.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1) 핵심어 빈도 분석결과

- 지역사회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경우 관계적인 대상으로 친구(1위), 선생님(5위), 간사(15위), 아빠(20위), 언니(21위)를 언급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는 활동(3위), 동아리(11위), 체험(15위), 경험(18위), 교육(23위), 만들기(28위) 등으로 응답하였다. 학교(7위), 공부(8위), 수업(9위)도 함께 빈출되었는데 이는 학업과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참여를 함께 병행하는 청소년의 상황이 내포된 것으로 유추된다. 스트레스(10위), 재미(14위), 고민(15위), 다양(18위) 또한 언급되었는데 청소년사업 참여를 통해 겪는 상황, 감정들과 관련된 단어인 것으로 보여진다.
- 지도자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의 관계적 대상으로 친구(1위), 아이(2위), 청소년(5위), 선생님(11위), 청년(12위), 직원(19위)를 꼽았다. 또한, 프로그램(8위), 동아리(13위), 봉사(17위), 교육(18위), 체험(22위), 공간(27위), 참여(28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관한 인식을 묘사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관한 내면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민(20위), 재미(20위), 의미(24위) 등의 단어로 언급하였다. 모집(9위), 코로나(10위) 또한 주요 핵심어로 등장했는데 이는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운영 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내포된 결과로 유추되어진다.

〈표 5-21〉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한 최빈도 상위 30개 핵심어

청소년						지도자					
순위	핵심어	빈도	순위	핵심어	빈도	순 위	핵심어	빈도	순 위	핵심어	빈도
1	친구	55	15	간사	11	1	친구	162	16	사람	27
2	생각	51	15	체험	11	2	아이	134	17	봉사	24
3	활동	40	18	다양	10	3	생각	125	18	운영	23
4	사람	35	18	경험	10	4	활동	124	18	교육	23
5	선생님	30	20	아빠	9	5	청소년	85	20	고민	22
6	시간	29	21	주말	8	6	학교	59	20	재미	22
7	학교	25	21	언니	8	7	사업	54	22	대면	21
8	공부	16	23	교육	7	8	프로그램	54	22	체험	21
9	수업	16	23	대화	7	9	모집	40	24	의미	20
10	스트레스	15	23	개인	7	10	코로나	39	25	시작	19
11	청소년	14	23	주변	7	11	선생님	38	25	직원	19
11	동아리	14	23	아이	7	12	청년	33	27	공간	18
11	의견	14	28	생활	6	13	동아리	32	28	경험	17
14	재미	13	28	만들기	6	13	시간	32	28	참여	17
15	고민	11	28	혼자	6	15	지도자	29	30	신경	16

주: 단어 빈도가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그림 5-16〉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워드클라우드

2) 중심성 분석결과

- 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하여 친구, 생각, 시간, 활동, 학교, 고민 등을 주요한 단어로 언급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의 경험은 학교 외에도 친구와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경험할 때 공부, 활동, 고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내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2〉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청소년)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783	1	친구	0.368
2	생각	0.623	2	생각	0.198
3	시간	0.580	3	시간	0.141
4	활동	0.555	4	활동	0.128
5	학교	0.462	5	학교	0.121
6	고민	0.203	6	스트레스	0.019
7	공부	0.141	7	재미	0.015
8	다양	0.135	8	고민	0.009
9	특히	0.123	9	공부	0.007
9	어린	0.123	10	선생님	0.006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818	1	친구	0.342
2	생각	0.718	2	생각	0.301
3	시간	0.699	3	시간	0.297
4	활동	0.687	4	활동	0.292
5	학교	0.644	5	학교	0.250
6	고민	0.544	6	고민	0.149
7	공부	0.530	7	다양	0.121
8	다양	0.524	8	어린	0.113
9	특히	0.521	9	주변	0.112
9	어린	0.521	10	특히	0.108

- 한편 지도자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으로 친구, 생각, 활동, 청소년, 아이, 시간, 코로나, 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성 분석 상위 10위 단어로 모두 공통되게 언급하였다. 이는 직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한 단어들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5-23〉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10위 단어(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지도자)

degree			betweenness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792	1	친구	0.234
2	생각	0.758	2	생각	0.192
3	활동	0.620	3	활동	0.133
4	청소년	0.572	4	청소년	0.073
5	학교	0.516	5	학교	0.065
6	아이	0.396	6	아이	0.042
7	시간	0.343	7	코로나	0.024
8	코로나	0.292	8	프로그램	0.022
9	프로그램	0.281	9	시간	0.021
10	사업	0.273	10	사업	0.010
closeness			eigenvector		
순위	단어	값	순위	단어	값
1	친구	0.827	1	친구	0.204
2	생각	0.802	2	생각	0.203
3	활동	0.734	3	활동	0.188
4	청소년	0.698	4	청소년	0.181
5	학교	0.672	5	학교	0.169
6	아이	0.621	6	아이	0.141
7	시간	0.599	7	시간	0.139
8	코로나	0.582	8	프로그램	0.120
9	프로그램	0.578	9	사업	0.117
10	사업	0.574	10	코로나	0.113

3)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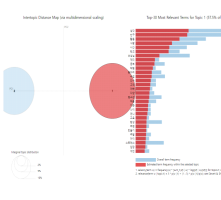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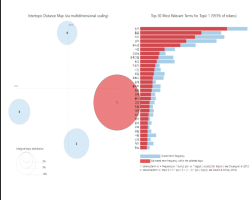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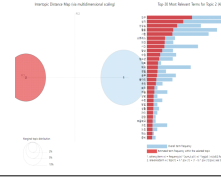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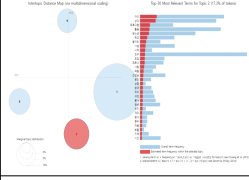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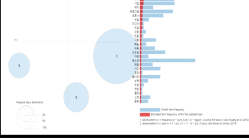
-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관한 입장에 관하여 청소년의 경우 2개의 토픽, 지도자의 경우 4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 먼저 청소년의 경우 토픽 1번(57.5% 비중)에서 관계적인 측면의 단어 친구, 선생님, 간사, 아빠, 언니가 도출되었고 학업과 더불어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주요맥락을 확인한 결과 주변인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참여를 권하면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 1번은 ‘주변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2번(42.5% 비중)의 경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주요 맥락을 확인한 결과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기관장들을 직접 대면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화, 회의, 상담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토픽 2번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서 접하는 요소’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다.
- 한편, 지도자의 경우 총 4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는데 먼저 토픽 1번(59.5% 비중)의 경우 지도자가 청소년서비스 기획 시 고려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었다. 주요 맥락을 확인한 결과 재미, 관심, 의미를 내포한 경험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워지자 모집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토픽 1번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기획 시 현재 주로 신경 쓰는 부분’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번(17.3% 비중)은 실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이 수행되었을 때 지도자가 겪는 부분이 핵심어로 등장했다. 원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참여 청소년이 시간과 의지가 있는지,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운영시 상담, 체험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토픽 2번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진행 시 고려 되어지는 것’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 3번(12.5% 비중)은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대상자 모집에 관한 고민’으로 토픽명을 명명하였는데 토픽 내 핵심어를 기준으로 주요 맥락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학원,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업과 청소년사업 운영 시간이 중첩될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모집이 쉽지 않음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활동의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지는 것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겪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픽 4번(10.8% 비중)의 경우 지도자로서 청소년을 사업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하는지 상기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맥락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사업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꾸준한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도전, 노력, 열정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짐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 4번은 ‘청소년사업 변화를 위해 가지는 마음가짐’으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표 5-24〉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연번 (비중)	상위 15개 핵심어	토픽명
1 (57.5%)	친구, 활동, 시간, 학교, 선생님, 재미, 공부, 체험, 동아리, 수업, 간사, 고민, 아빠, 언니, 주변	주변인들이 권하는 다양한 경험	1 (59.5%)	아이, 학교, 시간, 모집, 코로나, 동아리, 청년, 교육, 봉사, 고민, 대면, 의미, 영어, 참여, 구조, 경험, 신경, 재미, 관심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기획 시 현재 주로 신경 쓰는 부분
2 (42.5%)	친구, 스트레스, 의견, 대화, 경험, 공부, 동아리, 우리, 회의, 상담, 수련, 생활, 차이, 관장, 해소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에서 접하는 요소	2 (17.3%)	생각, 활동, 학교, 동아리, 사업, 친구, 코로나, 체험, 선생님, 공간, 상담, 고민, 의지, 지역, 시간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진행 시 고려 되어지는 것
			3 (12.5%)	학교, 청년, 모집, 청소년, 활동, 코로나, 시간, 대면, 공간, 연락, 고민, 체험, 학원, 중첩, 평일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대상자 모집에 관한 고민
			4 (10.8%)	재미, 코로나, 수업, 직업, 걱정, 전문, 학습, 교육, 도전, 노력, 직장, 전망, 열정, 신경, 문화	청소년사업 변화를 위해 가지는 마음가짐

〈그림 5-18〉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입장 관련 토픽모델링 시각화

청소년			지도자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연번 (비중)	시각화 결과	토픽명
1 (57.5%)		주변인들 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	1 (59.5%)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기획 시 현재 주로 신경 쓰는 부분
2 (42.5%)		지역사회 청소년사 업에서 접하는 요소	2 (17.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진행 시 고려 되어지는 것
			3 (12.5%)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대상자 모집에 관한 고민
			4 (10.8%)		청소년사업 변화를 위해 가짐 마음가짐

7. 소결

- 성남시 청소년과 지도자가 행복한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고,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된 핵심키워드와 의미구조를 파악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청소년 13명, 지도자 13명이 인터뷰한 내용을 6개 주제로 부문화하여 분석하였다.¹²⁾ 분석방법으로 핵심어 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관계는 친구, 선생님, 부모님(특히 엄마)이었고, 청소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요 행위는 공부였다. 활동, 각종 여가 등은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병행하는 요소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환경이 꾸준히 변화하는 시점에서도 학업과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공간은 학교와 학원이 중심이었고 학원에서 또한 친구와의 관계는 꾸준히 이어졌다. 청소년은 일상 속에서 공부에 대한 부족함을 경험하고 주요 과목 등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주말 등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활동의 경우 공부와 병행하는 요소로 언급되었으며, 활동 참여의 경로는 친구, 가족 등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 지도자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주된 관계는 청소년, 청년, 선생님, 부모님을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 지원, 성과 등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청소년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 서비스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이용한 대상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구분하여 차이점을 분석한다면 보다 깊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둘째,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 기대감의 경우 청소년은 미래를 중심으로, 지도자는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도 친구와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분을 항상, 자주 고민하면서 추후 미래에 직업을 얻음으로써 안정감 등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내면적으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였는데 인생에 있어 자존감과 여유를 가지고 싶어하였다.
- 지도자는 청소년보다 관계에 있어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도자는 가족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업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을 인생에 있어서 주요한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직장,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중요시하였다. 행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에 집중하였다면 지도자들은 지금 내 상황을 더욱 개선 시키기 위한 개발 관점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 건강, 만족감, 즐거움 등을 경험하기를 희망했다.
- 셋째,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안위를 경험하는 소소한 순간들을 주로 언급했다. 예컨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부르거나 산책을 하는 등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친한 친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행복을 느끼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느끼는 공간은 집, 학교, 카페 등이 있었다. 또한, 친구와 가족이 자신에 대해 조언, 도움, 공감 등을 표현할 때도 행복을 느꼈으며 공부에서의 성취를 중요히 여겼다.
- 한편 지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행복은 청소년이 응답한 행복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다. 우선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주변 관계를 통해서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부의 관점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청소년이 입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재미와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성취

의 범주 또한 보다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프로그램, 동아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에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보았다.

□ 넷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학업의 과정에서 주요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학, 영어 과목에서 문제가 안 풀릴 때 스트레스를 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88.0% 비중에 해당해 성남시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제에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 학교 등 소속된 환경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은 짜증, 걱정, 상처 등이었다.

□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그 외 다른 주제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쉽지 않을 때, 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에 관하여 정보를 얻지 못할 때,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예측하고 있었다. 한편 인사이드 등 조직 운영에 따라 담당했던 청소년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영역에 대해 보다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들이 현재 호소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집중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극복과 관련한 청소년과 지도자의 의견을 살펴봐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학업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을 꾀하기도 했으며 학업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안 중 청소년시설에서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소년

들은 학업과 청소년 서비스를 병행하며 청소년 서비스 참여 시 자신의 기분과 마음을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지도자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는 학업을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실현되어야하며 그 안에서 진로, 직업, 체육 등의 주제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한다고 보았다.
-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일상이 청소년들에게 행복이자, 스트레스로 존재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해소할 수 있는 요소기도 하였다. 친구, 가족 그리고 학업은 청소년들과 아주 밀접했다.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들의 행복과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친구, 가족의 존재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관점은 청소년과 지도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더 확장된, 재미있는 경험을 누리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의 삶을 조망하고 지원하는데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과업 그리고 이들이 희망하는 행복과 스트레스 극복을 이해하는데 다소 거리감이 있는 시각일 수 있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교 외에도 친구와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면서 재미와 다양한 의미를 느끼지만 고민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접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영향력이 컸는데, 친구, 가족, 선생님 등이 청소년에게 경험을 권유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처음에 권유 형태로 시작하더라도 자발적, 가치관 중심으로 꾸준히 청소년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이곳에서 만나는 좋은 어른 즉, 좋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서비스 참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들을 직접 대면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년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속에서 대화, 회의, 상담, 동아리, 체험, 만들기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도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경우 그들의 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이와 연관된 주제들이 주로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지도자들이 만나는 관계는 아이, 청소년, 청년이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고민들이 도출되었다.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재미, 관심, 의미를 내포한 경험을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느끼기를 기대했으며, 청소년이 시간과 의지가 있는지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 체험, 상담 등의 서비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상황에서 학업과 청소년사업 운영 시간이 중첩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자체를 모집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업을 가진 것에 소명의식을 가지며,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는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문성을 배양하고 도전, 노력, 열정의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술한 결과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에 있어 친구,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의 영역은 본질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관점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미스매치한 영역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은 삶에서 학업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참여함과 동시에 학업은 필수적으로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도자가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업과 분리되서 운영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영역이 아닌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업 그리고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표 5-25〉 영역별 추출된 토픽모델링 결과

구분	청소년 13인	청소년 지도자 13인
일상	1.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 2. 학업과 병행하는 주말 시간의 다양한 활동 3. 청소년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주변 관계 4.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 5. 부족한 학업보충을 위한 주말 학습	1. 청소년사업으로 청소년을 만날 때 겪는 감정과 행위 2. 청소년사업 운영에 관한 무게감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기대감	1. 현재 해내야 할 과업과 마음가짐 2. 미래의 나에게 바라는 점	1. 일과 가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2.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 3. 해내고자 하는 인생의 과업과 삶의 이유
청소년의 행복	1. 나만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 2.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3.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1.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2.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진로 관련 경험 3.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4.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 5. 입시를 벗어나 재미있는 활동을 할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	1. 주요과목이 풀리지 않을 때 2. 소속된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1.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주변인들과 고민을 나누기 어려울 때 2.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지 못할 때 3.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4. 취업 등 과업을 진행할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	1. 학업과 관계의 긍정적 변화 2.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1. 학업을 벗어난 재미있는 경험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관점	1. 주변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 2.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서 접하는 요소	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기획 시 현재 주로 신경 쓰이는 부분 2.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진행 시 고려되어지는 것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대상자 모집에 대한 고민 4. 청소년사업 변화를 위해 가지는 마음가짐

〈표 5-26〉 청소년과 지도자의 텍스트테이터에서 나타난 주요 단어

구분	청소년 13인	청소년 지도자 13인
일상	관계 혼자, 친구, 선생님, 엄마, 부모님 시, 공간 학교, 학원, 토요일, 주말, 평일 행위 성적, 공부, 활동, 운동, 게임, 유튜브, 병행 감정, 생각 부족	관계 아이, 청소년, 청년, 선생님, 부모님 시, 공간 매일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곳 행위 활동,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성과, 업무 감정, 생각 보람, 걱정, 스트레스
인생의 우선순위 만족감· 기대감	관계 친구, 부모님 시, 공간 미래, 나중, 항상, 자주 행위 공부, 취업, 직업, 학업, 진로 감정, 생각 자존감, 안정감, 스트레스, 여유, 고민	관계 가족, 아이, 친구, 청소년, 가정, 인간관계 시, 공간 현재, 직장, 회사, 행위 결혼, 개발, 운동, 생활 감정, 생각 행복, 안정감, 사랑, 건강, 만족감, 즐거움
청소년의 행복	관계 혼자, 친구, 가족, 엄마, 언니, 선생님, 강아지 시, 공간 학교, 항상, 집, 카페 행위 공부, 게임, 노래, 맛있는, 친한, 해결, 조언, 도움, 공감, 성취, 위로, 여행, 산책 감정, 생각 고민, 스트레스, 문제, 긍정	관계 친구, 선생님, 부모님, 가족, 엄마, 남자친구 시, 공간 집, 주말 행위 도움, 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성취, 새로운 경험, 자격증, 체험 감정, 생각 재미, 만족, 안정감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	관계 혼자, 친구, 선생님, 언니 시, 공간 학교, 학원, 수련, 가끔씩 행위 수학, 공부, 과제, 영어, 전환, 무리, 스케줄 감정, 생각 고민, 짜증, 걱정, 상처, 못하는, 사소한	관계 친구, 선생님, 부모, 어머니, 어른, 가정, 조직 시, 공간 학교 행위 도움, 소통, 상담, 진로, 해결, 지원, 프로그램, 인사, 관심 감정, 생각 고민, 힘들, 짜증, 걱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방안	관계 친구, 선생님, 부모님, 언니, 엄마, 가족 시, 공간 학교, 수련관, 저녁, 주말 행위 공부, 학업, 시험, 도움, 해결, 조언, 활동, 동아리, 노래, 도움, 노력, 전환 감정, 생각 긍정, 배려	관계 친구, 선생님, 아이, 기업, 청년, 인맥 시, 공간 학원 행위 진로, 게임, 체험, 체육, 동아리, 직업, 해소, 동아리, 프로그램, 상담 감정, 생각 재미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관점	관계 친구, 선생님, 간사, 아빠, 언니, 관장 시, 공간 학교, 수련관 행위 공부, 활동, 동아리, 체험, 경험, 교육, 만들기, 회의, 대화 감정, 생각 스트레스, 재미, 고민, 다양	관계 친구, 아이, 청소년, 선생님, 청년, 직원 시, 공간 학교 행위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 교육, 체험, 참여, 모집 감정, 생각 고민, 재미, 의미, 관심, 도전, 노력, 열정

VI

결론 및 제언

- 장기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전면등교 시행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진행된 2022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과 스트레스,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인 방향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 행복은 추상성을 띄고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 주변의 상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행복과 스트레스는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니며 모든 것은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의 문항과 연속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여러 주제들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이와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강점, 난점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집단을 예측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을 확인했다.
-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일상, 인생의 우선순위와 만족감, 기대감, 행복, 스트레스 상황, 극복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검토했다.
-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1) 청소년의 생활 습관을 총체적으로 코칭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연구결과 성남시 청소년들은 전면 등교 상황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미 재단에서는 일상관리 청소년 사업(온&온, 방과후아카데미) 등 청소년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충분한 완성도에 비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청소년(또는 보호자)들이 간편한 접근을 통해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방향으로 시도되는 습관 형성 디지털 플랫폼 등의 연계를 통해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일컫는 신조어인 이른바 ‘갓생’의 삶은 젊은세대 사이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공부기록-열품타(열정을 품은 타이머)’, ‘목표 달성-챌린저스’, ‘습관 퀘스트-퀘스트라이프’, ‘돈버는만보기-캐시워크’, ‘미션 알람-알라미’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보고된다(김동현, 2022).
- 예컨대 스타트업 화이트큐브에서 개발한 ‘목표 달성 플랫폼’ 챌린저스의 경우 목표 달성과 습관 형성을 동시에 돕는 챌린지(도전) 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챌린저스는 운동 및 학습과 더불어 시간관리, 감정 관리 등의 챌린지가 존재하며 성취에 관한 보상을 제공한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진행한 ‘가볍게 걷고, 마시고’ 챌린지, 서울시와 협업한 ‘롱코비드 후유증 극복 챌린지’를 통한 마음 챙김 질문 답변하기, 환경부와 함께한 ‘물 절약 실천하기’ 챌린지 등을 협업한 바 있다(유다정, 2022).

-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기관들의 시도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이점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반응도 좋았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한다. 우리 재단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이점은 흡수하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점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본적인 재단 서비스 중 작은도서관, 정규프로그램 이용, 개인적인 숙제, 건강관리 등의 요소들을 청소년이 자신의 디바이스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인증하고 현장 전문가들은 성취 보상 및 이를 독려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청소년(또는 보호자)의 간편한 일상생활 관리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 자본 측면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 체계적 제공으로 경험 격차 최소화

- 본 조사결과 여가 프로그램 충분도에 대해 주관적 가정경제사정이 잘사는편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2020년, 2022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면, 부족한편으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 자본 측면으로 운영되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여가, 문화에 관한 경험을 차별없이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부분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는 성남시에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남시 학교조직으로 구성된 1388 학교지원단을 통해 학교에 속해있는 소외청소년을 조기발굴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조직들로 구성된 1388 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청소년들까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재단에서는 간단한 체험에서부터 문화를 기획하는 형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발굴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사회 자본 측면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제공에 이바지하고 경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과과목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성 강화

-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지도자들 역시 청소년들의 행복에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청소년과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학업(입시)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지도자들은 진로체험(경험) 중심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도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숲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 한편, 여성가족부(2022b)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는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진로에 대한 관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남시 청소년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학업과의 병행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재미는 강화하고 교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학업의 병행에 있어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4) 경계개입군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 SDQ 분석결과 성남시 청소년 10명 중 3.3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경계 및 개입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지향행동에서는 10명 중 1.1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초등학교 학교급이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 문제의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고 10명 중 2.1명에서 3.3명 정도가 해당했다. 특히 성남시 청소년은 내재적으로 걱정, 불행, 낙담, 두려움, 우울, 불안, 분리 불안과 더불어 두통, 복통 호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정서증상'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는 경계개입군 중 초등학교 학교급의 경우 관계향상을 중, 고등학교 학교급의 경우 자기 내면의 안정감과 리추얼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험활동 영역에서 자기(인성)개발 영역을 선호하는 것과는 연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계개입군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인식하는 문제가 우울, 분노와 같은 내재화 또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또한 경계개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정상군에 비해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가출욕구, 자퇴욕구, 자살욕구가 더 높은 반면, 상담심리치료 요구도는 정상군에 비해 낮아 이들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정상군에 경계개입군은 또래문제, 학습격차의 문제, 스마트폰 의존 등에서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리정서 지원과 더불어 교육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2. 제언

1) 교과과정 T/F팀 구성의 필요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시·군·구-교육(지원)청 간 지역청소년 활동·교육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개발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또한, 여성가족부(2022b)의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에서도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재단 내 400여개 프로그램과 교과목, 성취기준의 연계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현장에서는 지도자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재단 내 프로그램들은 교과 및 범교과 주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재단 차원에서 교육과정 기획·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각 시설에 배포한다면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계가 수반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 현재 재단의 프로그램들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기분과 마음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들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 학업성취에 관한 부분을 분절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다면 청소년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함과 동시에 학업의 부담감을 해소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관계재의 순기능 강화

- 성남시 청소년은 친구, 가족, 선생님 등 관계에 관한 부분을 행복에 있어 주요한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활동에서 만난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이들이 존재하는 가정, 학교, 학원 이외에 새로운 공간에서의 관계 확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 이는 관계재(relational good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이다. 관계재는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사회적인 교류 및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행복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재화로 보고된다(한재명, 류재린, 김균, 2015).
- 현장에서 지도자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무척 깊다. 인생에 있어 업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을 가장 중요한 관계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또한 ‘좋은 어른’에 대한 경험을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 느꼈다. 이는 지도자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관계재의 확장을 경험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지도자와 함께하며 사회적 자산과 심리적 자산을 배양(김수향, 2022)하는데 긍정적인 경험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1회성 또는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사회적, 심리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술한 청소년의 생활 습관 코칭에 있어 이러한 관계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관적 학교성적, 주관적 가정경제사정 문항의 경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문항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학업성취도, 소득수준을 명확히 제시한 변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지원 및 돌봄 사업, 참여 사업을 구분하여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조사의 경우 지원 및 돌봄 사업과 참여 사업의 참여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진행되었다. 물론 지역 사회 청소년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하는데는 의의가 있었으나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들을 확인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지원 및 돌봄 사업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참여 사업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데이터를 구분하고 이들이 주요하게 언급하는 주제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 셋째, 재단 제공 서비스 미경험군과 경험군의 차이점에 대해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경험군과 1~5개 서비스 경험군, 6~9개 서비스 경험군을 구분하여 현재와 미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SDQ 집단 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미경험군 보다 6~9개 서비스 경험군이 대체로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높고 SDQ 집단 또한 정상군으로 구분되는 비율이 높았다. 미경험군과 6~9개 서비스 경험군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연구방법을 강화하여 재단 경험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추후 연구 시에는 보다 정확한 표집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2020년과 동일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설문 참여 독려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 변수의 변화 등을 명확히 통제하는 연구 설계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1. 국내문헌

- 강슬기. (2022). **집단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태경. (2022).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 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13(1), 23-52.
- 고도현, 김도영. (2021). “청소년 행복” 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8(12), 189-215.
- 고동완, 김기범, 배현주, 김다영, 김옥빈, 이하림, 등. (2020).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 고승화. (2022). [망중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470>, 2022년 1월 21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2).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http://www.ypec.re.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1831&menuId=MENU00550&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2022년 12월 22일 인출.
- 김강산. (2019).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현. (2022). “갓생 도와줘요” ...습관 형성 플랫폼 뜬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IOIQXZ>, 2022년 3월 13일 인출.

김민선, 손병덕. (202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직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9(7), 327-356.

김수향. (2022). 미래 교육 전환의 핵심, 사회적·심리적 자산으로서 교육생태계 역할. 2022 청소년지도분야 인적자원개발 포럼, <https://drive.google.com/file/d/1uIArTqiNUJo2dH9OntoQT3TbkaPsfV8J/view>, 2022년 12월 8일.

김진경, 김혜연. (2013).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1(2), 173-186.

김창훈, 이수정, 김정화. (2022). 토픽모델링 기반의 판례분석을 통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특성 비교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40(5), 683-699.

김현애(2022). 국내 독서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62, 263-290.

문동지, 연다인, 김희웅. (2018). 토픽 모델링 기반 한국 노인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2), 139-161.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서우석(2007).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5, 273-302.

서유경, 김현옥. (2021). 소득집단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한국청소년복지연구**, 23(3), 79-107.

서재욱, 정윤택. (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

- 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성남시청소년재단. (2022). 성남시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 의식: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 의식과 실천에 긍정적 효과. **이슈페이퍼 2022-02호**, 1-4.
- 소수연, 주지선, 조은희, 손영민, 백정원. (2021). 청소년 불안·우울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9(1), 229-254.
- 실천교사교육모임. (2022). 2022년 코로나 이후의 학습과 생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lmYpFnCL6YuEXVdN4IZkYWDrmQFv7yJHZBYPHY0ExE/edit>, 2022년 5월 30일 인출.
- 안재순. (2021).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웰빙과 감사성향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762-770.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 R.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신경정신의학**, 42(1), 141-148.
- 양윤희, 임동선. (2020). 한국 단일문화 및 다문화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보고와 언어능력의 관계.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5, 227-241.
- 여성가족부. (2022a).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안전 지킨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13898>, 2022년 7월 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b).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

o?newsId=156529552, 2022년 10월 10일 인출.

여유진, 김미곤. (2018). 행복지수 개발의 정책적 함의: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 **보건복지포럼** 265(11), 7-19.

유다정. (2022). 건강습관 형성 플랫폼 '챌린저스', 마케팅 채널로 급
부상. Bloter&Media,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12280009>, 2022년 12월 28일 인출.

이세원, 이화조. (2021).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박탈한 교육 기
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회복의 책임 : I 부. 연구개요 & 뉴
스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년 10월 22일-23일, 온라인.

이윤정. (2018).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
향. **인문사회** 21, 1023-1036.

이혜선, 이경미, 조재희. (2022). 언론은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을
어떤 단어로 재현해 왔는가? : 2011~2021 언론보도 대상 의미
연결망 분석과 토픽모델링. **한국언론정보학보**, 114, 204-246.

임정아, 진영선. (201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질적
연구방법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 **청소년문화포럼**, 52,
133-162.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2021). **데이터 기반의 학생 및 아동·청소
년 자살 사망 심층분석**. 경기: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장명선, 김윤나, 김재민, 박건, 이소라, 신정웅, 등.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장여옥, 조미영, 강주연, 김나영. (2020). **군포시 위기청소년 실태조
사**.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

전기숙. (2016). 청소년의 행복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0),
411-429.

- 정익중. (2021). 스마트폰은 아동청소년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정반합의 변증법. **청소년문화포럼**, 66, 133-148.
- 조가희. (2021). **유아의 행복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2011). **대학생의 행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셋별. (2006). 한국적 문화자본의 지형으로서의 청소년 여가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4(2), 61-80.
-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2020). 학교의 정서적 환경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중요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 **초등교육연구**, 33(3), 259-282.
- 최지영, 강수환. (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 관계: 청소년 체험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2(3), 129-148.
- 한국방정환재단. (2021a). 2021 제12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2009~2021년 행복을 위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 감소, 한국방정환재단 <https://children365.or.kr/archives/activity/130015>, 2022년 1월 21일 인출.
- 한국방정환재단. (2021b). 2021년 <제12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 <https://children365.or.kr/archives/activity/130020>, 2022년 1월 21일 인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재명, 류재린, 김균. (2015).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28(1), 103-141.

- 함승경, 최지명, 김영옥. (2019).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 **홍보학연구**, 23(6), 24-51.
- 허종호. (2021).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실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7, 1-24.
- 황승우, 서경혜. (2021).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52(4), 179-207.

2. 국외문헌

- Beal, S. J., Crockett, L. J., & Peugh, J. (2016). Adolescents' changing future expectations predict the timing of adult role trans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2(10), 1606-1618.
- Becker, A., Rothenberger, A., & Sohn, A. (2015). Six years ahead: a longitudinal analysis regarding course and predictive value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4(6), 715-725.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reswell, J. W. (2017). **연구방법: 질적, 양적 혼합적 연구의 설계 4판**. (정종진, 김영숙, 성용구, 성장환, 류성립, 박판우,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허재복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4)
- Dahlberg, A., Fält, E., Ghaderi, A., Sarkadi, A., & Salari, R. (2020). Swedish norms for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 Questionnaire for children 3-5 years rated by parents and preschool teacher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1(2), 253-261.
- Diener, E., Lucas, R., Schimmack, U., & Helliwell, J.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u, Y., Kou, J., & Coghill, D. (2008). The validity, reliability and normative scores of the parent, teacher and self report versions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in China.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2(1), 1-15.
- Giannakopoulos, G., Tzavara, C., Dimitrakaki, C., Kolaitis, G., Rotsika, V., & Tountas, Y. (2009).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 in Greek adolescents.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8(1), 1-7.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 Goodman, R., Meltzer, H., & Bailey, V. (1998).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pilot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self-report version.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7(3), 125-130.
-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 Norton, M.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under COVID-19. *World Happiness Report, 2021*, 13-57.
- Kawabe, K., Horiuchi, F., Uno, H., Nakachi, K., Hosokawa, R., Oka, Y., & Ueno, S. I. (2021). Parent-Adolescent

- Agreement on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ssessed by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Global Pediatric Health*, 8, 1-6.
- Kim, M. S., Kim, H. W., Cha, K. H., & Lim, J. (2007). What makes Koreans happy?: Exploration on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mong Korean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2), 265-286.
- Lundh, L. G., Wångby-Lundh, M., & Bjärehed, J. (2008). Self-reporte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Swedish 14 to 15-year-old adolescents: a study with the self-report version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6), 523-532.
- Matsunaga, N., Ito, T., Ito, Y., Mizusawa, J., Gu, Y., Sanada, S., ... & Sugiura, H. (2022). Decreased balance function in school-aged children with behavioral problems. *Brain Sciences*, 12(1), 1-8.
- O'callaghan, D., Greene, D., Carthy, J., & Cunningham, P. (2015). An analysis of the coherence of descriptors in topic modeling.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2(13), 5645-5657.
- Sierra, J. O., Enesco, C. S., de Albéniz Iturriaga, A. P., Molina, B. L., & Pedrero, E. F. (2022). Spanish normative data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in a community-based sample of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2(3), 151-160.
- Vaillant, G. E. (1995). **행복의 지도**. (김진영, 고영건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3).



부록

[부록 #1]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설문지

2022 성남시청소년행복실태조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위한 종합 서비스 수행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와 생활 변화, 청소년 정책 경험 등을 확인하고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성남시청소년재단 / 기획조정팀 : 김화자 팀장, 강주연 담당 / 031-729-9016, jykang@snyouth.or.kr

설문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

설문 참여 동의 *

설문조사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특성 등은 자료 분석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이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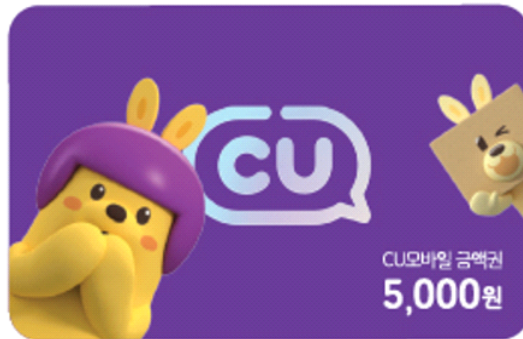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제공받는자: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소정의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 "쿠폰주식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 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 목적: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편의점 5천원 상품권) 발송

보유 및 이용 기간: 모바일 상품권 발송 이후 즉시 파기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제공받는자: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청년 온라인 조사 패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 전화번호, 출생연도

수집 및 이용 목적: 성남시 청소년-청년 온라인 조사 패널 운영

보유 및 이용 기간: 온라인패널 조사 사업 종료 시 수집 항목 파기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온라인패널조사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구성을 위해 온라인패널 모집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사회/진로/생활/정서

각 문항을 읽고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각, 감정 등을 편안하게 응답해주세요.

①=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가족, 친구 등).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스마트폰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계획했던 일(공부, 숙제, 학원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SDQ

각 문항을 읽고 '전혀아니다', '다소그렇다', '분명히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V표시 해주세요.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려서도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답해주세요.

①=전혀아니다, ②=다소그렇다, ③=분명히그렇다

	전혀아니다	다소그렇다	분명히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한다.	①	②	③
2.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3. 나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	①	②	③
4. 나는 게임기, 또는 간식 등을 기꺼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①	②	③
5. 나는 자주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6. 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보다는 주로 혼자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7. 나는 대체로 내가 말한대로 행동한다.	①	②	③
8.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9. 나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10. 나는 언제나 친절부절 못하고 꿈지락거린다.	①	②	③
11. 나는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12. 나는 자주 싸우는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①	②	③
13. 나는 자주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눈물이 난다.	①	②	③
14. 다른 친구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15. 나는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16. 나는 낯선 상황에 긴장하고, 험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①	②	③
17. 나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18.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①	②	③
19.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①	②	③
20. 나는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①	②	③
21. 나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①	②	③
22.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	①	②	③
23.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①	②	③
24. 나는 두려움이 많고 쉽게 놀란다.	①	②	③
25.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집중을 잘한다.	①	②	③

보호/복지

각 문항을 읽고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각, 감정 등을 편안하게 응답해주세요.

①=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나는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업(숙제나 시험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여건(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트레스가 심할 때 대처(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출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가출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해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해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살하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건강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와 사회참여

다음은 여가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응답해주세요

①=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나는 여가생활(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활동프로그램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만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만18세가 되면 꼭 투표를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만18세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독서활동

독서활동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을 응답해주세요.

①=매우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1. 2021년 1년동안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몇 권이나 읽었는지 응답해주세요. (잡지, 만화, 제외)					
* 예를 들어 1년 동안 20권을 읽었다면, "20"으로 기입, 읽은 도서가 없다면 "0"으로 기입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2. 나의 독서량(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활동

다음 온라인활동(※인터넷으로 하는 활동, 스마트폰으로 하는 활동 등)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했나요?

①=거의하지않는다, ②=하지않는다, ③=보통, ④=많이했다, ⑤=매우많이했다

	거의하지않는다				매우많이했다
1. 커뮤니케이션·소통(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	①	②	③	④	⑤
2. 자료 및 정보 획득(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4. 교육·학습(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①	②	③	④	⑤
5. 크리에이터활동(컨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사이트/앱)은 무엇인가요? (최대 3개 응답가능)					
① 네이버 ② 구글 ③ 다음 ④ 유튜브 ⑤ 네이버TV ⑥ V 라이브 ⑦ 트위치 ⑧ 아프리카TV ⑨ 넷플릭스 ⑩ 페이스북 ⑪ 인스타그램 ⑫ 트위터 ⑬ 틱톡 ⑭ 밴드 ⑮ 카카오톡 ⑯ 페이스북메신저 ⑰ 인스타그램DM ⑱ 기타					
7. 나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 혐담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온라인상에서 비방, 혐담, 사생활 유출을 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가짜 정보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르바이트

1-1. 나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① 참여 경험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1-2.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1주일 평균 참여 시간은?

① 3시간 이하 ② 3~5시간 ③ 6~10시간 ④ 11~15시간 ⑤ 16시간 이상

1-3.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시급(21년 8,720원, 22년 9,160원)보다 적게 받았다.
- ② 계약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했거나, 처음 약속과 다른 일을 하였다.
- ③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④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 ⑤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 ⑥ 기타

2. 나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참여 경험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활동/참여

여러분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건강-보건 활동(체육-신체단련, 흡연음주 예방, 안전-응급처치, 성교육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2. 과학 정보 활동 (모형 및 로봇, 과학 실험, 우주 천체, 과학경진대회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3. 교류 활동 (국제 교류 활동, 도시-농촌 간 교류, 다문화 및 국제이해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4. 모험 개척 활동 (탐사-등반, 야영, 해양 및 수상훈련, 극기 훈련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5. 문화-예술 활동 (문학, 미술, 음악, 춤, 영화-연극, 전통예술, 사진촬영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6. 봉사 활동 (일손 돕기, 위문, 돌봄 및 지도, 캠페인, 자선-구호활동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7. 직업 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8. 환경 보존 활동 (생태체험, 환경탐사, 숲 체험, 환경 캠페인 활동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9. 자기(인성) 개발 (자기표현, 자기탐구, 심성수련, 예절교육, 리더십 캠프 등)
① 있다(온라인) ② 있다(오프라인) ③ 있다(온·오프라인모두) ④ 없다
10. 경험했던 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① 건강-보건 활동 ② 과학 정보 활동 ③ 교류 활동 ④ 모험 개척 활동 ⑤ 문화-예술 활동
⑥ 봉사 활동 ⑦ 직업 체험활동 ⑧ 환경 보존 활동 ⑨ 자기(인성) 개발
11.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활동 중 <<온라인활동(인터넷으로 하는 활동)>>으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건강-보건 활동 ② 과학 정보 활동 ③ 교류 활동 ④ 모험 개척 활동 ⑤ 문화-예술 활동
⑥ 봉사 활동 ⑦ 직업 체험활동 ⑧ 환경 보존 활동 ⑨ 자기(인성) 개발
12.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활동 중 <<오프라인 활동(직접 만나서 하는 활동)>>으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건강-보건 활동 ② 과학 정보 활동 ③ 교류 활동 ④ 모험 개척 활동 ⑤ 문화-예술 활동
⑥ 봉사 활동 ⑦ 직업 체험활동 ⑧ 환경 보존 활동 ⑨ 자기(인성) 개발

성남시 청소년 재단과 운영시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운영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모른다					잘알고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정, 중원, 분당서현, 분당정자, 분당판교, 분당야탑 중 한 곳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양지동, 은행동 중 한 곳이라도) 청소년문화의집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용해 본 시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가능)										
① (임시)수정청소년수련관 ② 중원청소년수련관 ③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④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⑥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⑦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⑧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⑩ 이용경험 없음										

청소년 재단 내 시설을 이용했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작은도서관 이용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2. 수영, 농구, 헬스, 피아노 등 각종 강좌수업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3. 문화놀이터, 자립문화공간 등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사용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4. 어울림마당, 창의과학축제, 통고구마축제 등 행사 참여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5.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6.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활동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7. 코끼리, 청바지프로젝트, 목공, 생존수영 등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학교연계활동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8. 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프로그램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9. 또래상담, 개인·집단 상담 등 심리지원 활동

① 참여 경험(2021~2022년) 있음 ② 참여 경험 없음

10. 현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겼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코로나19 이후 학교 생활 변화 관련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학교 생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① 예전처럼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 ② 학교 가는 것과 원격 수업(온라인수업)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
- ③ 원격 수업(온라인 수업)만 해도 충분하다.
- ④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 같이 다른 형태로 수업을 해도 된다.
- ⑤ 특별한 의견이 없다.

2. 2022년 학교에 꾸준히 나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에서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지키는게 어려웠다(지각, 급식시간, 쉬는 시간 등).
- ②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는게 어려웠다(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넷플릭스 등 놀이용으로 사용).
- ③ 친구들과 협동하는게 어려웠다.
- ④ 집에서 듣는 수업에 익숙해져서 등교하기 꺼려했다.
- ⑤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3. 2022년 학교에 꾸준히 나와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다(기상, 취침, 등교, 하교, 급식 등).
- ② 선생님과 실제 얼굴을 보고 공부,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서 좋다.
- ③ 친구들과 함께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다.
- ④ 집에 혼자 있지 않아 좋다.
- 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배경변인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연도 (태어난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3. 학교급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4. 현재 살고 있는 곳

- ① 수정구 ② 중원구 ③ 분당구

안좋은편이다

좋은편이다

5. 나의 작년(2021) 학교 성적은 어땠나요?

-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② ③ ④ ⑤

7. 기프티콘을 받을 본인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번호 미기재 및 잘못 기입 시 기프티콘이 재발송 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은 7월 15일 이후에 발송됩니다. *입력방식(000-0000-0000)

2022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연구보고서 2022-03)

발행 2022년 12월

발행인 최원기

발행처 성남시청소년재단

(134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홈페이지 www.snyouth.or.kr

전화 1577-8088

팩스 031-751-4627

전체총괄 정상수(전략기획실장)

운영총괄 김화자(전략기획실 기획조정팀 팀장)

연구책임 강주연(전략기획실 기획조정팀 팀원)

연구자문 이강주(한국교육개발원)

I S B N 978-89-94517-38-4(PDF)



비매입/무료

95060

9 788994 517384

ISBN 978-89-94517-38-4 (PDF)